

E 11-2014-06

2014 제3권 제6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 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
이동소 연구원 petit211@krei.re.kr
손은애 연구원 32sea@krei.re.kr

TEL 02-3299-4322

FAX 02-960-0164

contents

03

해외곡물시장 동향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5
곡물 선물 5월 동향과 6월 전망 / 25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 41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 51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61

73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유전자 변형 작물의 국제 현황과 이슈 / 73
USDA 세계 곡물 교역 장기전망 / 94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FAO 곡물시장뉴스 / 131
해외곡물시장 뉴스 / 14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55

부록

세계 곡물 통계 / 167
국가별 보리 통계 / 171



part 01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4 World Grain Market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5

곡물 선물 5월 동향과 6월 전망 / 25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 41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 51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61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민수(한국사료협회 과장)*

세계 곡물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의 기상 여건 호조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생산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수출량 증가로 상쇄되어 기말 재고량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나, 교역량의 감소세가 더 커 기말 재고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밀과 같이 옥수수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교역량 감소세가 더 커 기말 재고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경우 전년에 비해 교역량 증가보다 생산량이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15년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량은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초반 날씨 악화에 따른 곡물의 파종 지연 및 생산량 감소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곡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와 같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주요 곡물 시장은 양호한 날씨 덕택으로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와 밀의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생육 초기 단계이어서 날씨 향방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 계속해서 생육 상황을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인도와 호주의 경우 적도 동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이상 기온 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하고 있어 주요 곡물의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주요 곡물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이

* mskim@kofeed.org, 02-581-5730.

로 인한 생산 부진 또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이라크 내전에 따른 유가 상승과 주요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 움직임 역시 곡물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Weather Market”으로 흘러가고 있는 곡물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부차적으로는 곡물 시장과 연동되는 거시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병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2014년 6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의 2014/15년도 곡물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 다만, 현 시점에서 파악되는 수치는 파종 면적을 고려하여 생산량에 대한 예측과 그에 수반한 수급적인 측면을 자료화하였기에 향후의 생육 단계와 수급 상황에 따라 수치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1. 세계 곡물 수급 및 전망

2014/15년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및 잡곡 등을 합산한 세계 조곡의 생산량은 12억 5,870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12억 5,071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4,617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6.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량은 1억 4,429만 톤으로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억 1,257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15년 세계 쌀 생산량은 4억 8,07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4억 8,218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4,140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량은 3,832만 톤으로 0.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1억 1,067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15년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16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6억 9,906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5,208만 톤으

로 2013/14년 대비해서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량은 1억 5,019만 톤으로 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1억 8,861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15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9억 8,11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9억 6,75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1,55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7.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량은 1억 1,477만 톤으로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1억 8,265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8.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15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9,999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2억 8,063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1,233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입량은 1억 868만 톤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8,288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2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구분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수출량	재고량	재고비율
세계 조곡	14/15.6(A)	204.58	1258.70	144.29	1250.71	146.17	212.57	15.2
	14/15.5(B)	203.79	1257.18	143.58	1250.47	146.07	210.50	15.1
	13/14(C)	169.42	1272.56	147.16	1237.40	156.80	204.58	14.7
	증감율(A/B)	0.4	0.1	0.5	0.0	0.1	1.0	
	증감율(A/C)	20.8	-1.1	-2.0	1.1	-6.8	3.9	
세계 쌀	14/15.6(A)	112.13	480.72	38.32	482.18	41.40	110.67	21.1
	14/15.5(B)	111.25	480.72	38.32	482.20	41.40	109.77	21.0
	13/14(C)	110.20	477.47	38.63	475.55	40.65	112.13	21.7
	증감율(A/B)	0.8	0.0	0.0	0.0	0.0	0.8	
	증감율(A/C)	1.8	0.7	-0.8	1.4	1.8	-1.3	
세계 밀	14/15.6(A)	186.05	701.62	150.19	699.06	152.08	188.61	22.2
	14/15.5(B)	186.53	697.04	149.85	696.15	151.82	187.42	22.1
	13/14(C)	175.28	713.97	155.19	703.20	162.75	186.05	21.5
	증감율(A/B)	-0.3	0.7	0.2	0.4	0.2	0.6	
	증감율(A/C)	6.1	-1.7	-3.2	-0.6	-6.6	1.4	

구분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수출량	재고량	재고비율
세계 옥수수	14/15.6(A)	169.05	981.12	114.77	967.52	115.52	182.65	16.9
	14/15.5(B)	168.42	979.08	114.27	965.77	115.72	181.73	16.8
	13/14(C)	138.14	981.89	116.69	950.98	124.16	169.05	15.7
	증감율(A/B)	0.4	0.2	0.4	0.2	-0.2	0.5	
	증감율(A/C)	22.4	-0.1	-1.6	1.7	-7.0	8.0	
세계 대두	14/15.6(A)	67.17	299.99	108.68	280.63	112.33	82.88	21.1
	14/15.5(B)	66.98	299.82	108.33	280.58	112.33	82.23	20.9
	13/14(C)	57.04	283.79	107.38	270.05	110.99	67.17	17.6
	증감율(A/B)	0.3	0.1	0.3	0.0	0.0	0.8	
	증감율(A/C)	17.8	5.7	1.2	3.9	1.2	2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2.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쌀 기초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의 쌀 기초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의 쌀 기초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주요국의 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16	0.94	1.04	-10.3	10.6
인도	25.44	24.44	25.23	-0.8	3.2
파키스탄	0.50	0.60	0.60	20.0	0.0
태국	12.81	13.81	13.81	7.8	0.0
베트남	0.85	0.85	0.85	0.0	0.0
브라질	0.48	0.78	0.78	62.5	0.0
인도네시아	6.48	6.68	6.68	3.1	0.0
필리핀	1.49	2.53	2.53	69.8	0.0
미얀마	0.55	0.71	0.71	29.1	0.0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중국	47.38	46.83	46.83	-1.2	0.0
이집트	0.43	0.53	0.53	23.3	0.0
일본	2.74	2.82	2.82	2.9	0.0
한국	0.74	0.78	0.78	5.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쌀 생산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중국의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반해, 인도를 비롯한 브라질, 일본, 한국의 쌀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주요국의 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6.12	6.81	6.81	11.3	0.0
인도	106.29	106.00	106.00	-0.3	0.0
파키스탄	6.60	6.70	6.70	1.5	0.0
태국	20.50	20.50	20.50	0.0	0.0
베트남	27.80	27.80	27.80	0.0	0.0
브라질	8.60	8.50	8.50	-1.2	0.0
인도네시아	37.36	37.70	37.70	0.9	0.0
필리핀	11.89	12.20	12.20	2.6	0.0
미얀마	11.96	12.15	12.15	1.6	0.0
중국	142.30	144.00	144.00	1.2	0.0
이집트	4.88	4.90	4.90	0.4	0.0
일본	7.83	7.70	7.70	-1.7	0.0
한국	4.23	4.15	4.15	-1.9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쌀 소비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및 미국의 쌀 소비량이 증가함에 반해, 일본과 한국의 쌀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 주요국의 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97	4.10	4.10	3.3	0.0
인도	96.50	98.00	98.00	1.6	0.0
파키스탄	2.63	2.70	2.70	2.7	0.0
태국	10.80	10.90	10.90	0.9	0.0
베트남	21.50	21.50	21.50	0.0	0.0
브라질	8.05	8.15	8.15	1.2	0.0
인도네시아	38.65	39.20	39.20	1.4	0.0
필리핀	12.85	13.20	13.20	2.7	0.0
미얀마	10.50	11.00	11.00	4.8	0.0
중국	146.00	148.00	148.00	1.4	0.0
이집트	4.00	4.10	4.10	2.5	0.0
일본	8.25	8.20	8.20	-0.6	0.0
한국	4.61	4.59	4.59	-0.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쌀 수출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및 태국의 쌀 수출량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반해, 인도의 쌀 수출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주요국의 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2.96	3.26	3.26	10.1	0.0
인도	10.00	9.00	9.00	-10.0	0.0
파키스탄	3.90	3.90	3.90	0.0	0.0
태국	9.00	10.00	10.00	11.1	0.0
베트남	6.50	6.70	6.70	3.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주요 국가의 2014/15년 쌀 수입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쌀 수입량은 대폭 감소함에 반해, 유럽을 비롯한 서남아시아의 쌀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 주요국의 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브라질	0.70	0.70	0.70	0.0	0.0
EU-27	1.35	1.40	1.40	3.7	0.0
인도네시아	1.50	1.00	1.00	-33.3	0.0
나이지리아	3.00	3.50	3.50	16.7	0.0
필리핀	2.00	1.80	1.80	-10.0	0.0
서남아시아	4.30	4.48	4.48	4.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4/15년 쌀 기말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얀마 및 베트남의 쌀 기말 재고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밖에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한국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필리핀을 비롯한 파키스탄, 브라질, 미국의 쌀 기말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7. 주요국의 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04 (15.0%)	1.10 (14.9%)	1.19 (16.2%)	14.4 (1.2%p)	8.2 (1.3%p)
인도	25.23 (23.7%)	23.44 (21.9%)	24.23 (22.6%)	-4.0 (-1.1%p)	3.4 (0.7%p)
파키스탄	0.60 (9.2%)	0.70 (10.6%)	0.70 (10.6%)	16.7 (1.4%p)	0.0 (0.0%p)
태국	13.81 (69.7%)	13.71 (65.6%)	13.71 (65.6%)	-0.7 (-4.1%p)	0.0 (0.0%p)
베트남	0.85 (3.0%)	0.75 (2.7%)	0.75 (2.7%)	-11.8 (-0.3%p)	0.0 (0.0%p)
브라질	0.78 (8.7%)	0.93 (10.3%)	0.93 (10.3%)	19.2 (1.6%p)	0.0 (0.0%p)
인도네시아	6.68 (17.3%)	6.18 (15.8%)	6.18 (15.8%)	-7.5 (0.0%p)	0.0 (0.0%p)
필리핀	2.53 (19.7%)	3.33 (25.2%)	3.33 (25.2%)	31.6 (5.5%p)	0.0 (0.0%p)
미얀마	0.71 (6.0%)	0.56 (4.6%)	0.56 (4.6%)	-21.1 (-1.4%p)	0.0 (0.0%p)
중국	46.83 (32.0%)	46.18 (31.1%)	46.18 (31.1%)	-1.4 (-0.9%p)	0.0 (0.0%p)
이집트	0.53 (11.0%)	0.52 (10.4%)	0.52 (10.4%)	-1.9 (-0.6%p)	0.0 (0.0%p)
일본	2.82 (33.4%)	2.82 (33.6%)	2.82 (33.6%)	0.0 (0.2%p)	0.0 (0.0%p)
한국	0.78 (16.9%)	0.75 (16.3%)	0.75 (16.3%)	-3.8 (-0.3%p)	0.0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3.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도 밀 기초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미 국가를 비롯한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의 밀 기초 재고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인도의 밀 기초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8.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9.54	15.87	16.14	-17.4	1.7
캐나다	5.05	9.82	9.79	93.9	-0.3
아르헨티나	0.29	2.74	2.74	844.8	0.0
브라질	1.00	2.10	2.00	100.0	-4.8
EU-27	10.55	10.68	10.68	1.2	0.0
러시아	4.95	6.04	5.74	16.0	-5.0
카자흐스탄	2.94	2.09	2.09	-28.9	0.0
우크라이나	2.58	3.96	3.96	53.5	0.0
호주	4.26	5.44	4.94	16.0	-9.2
인도	24.20	17.83	17.83	-26.3	0.0
중국	53.96	58.18	58.18	7.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밀 생산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밖에 미국과 호주 또한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남미 지역의 밀 생산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밀 생산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9. 주요국의 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57.96	53.43	52.85	-8.8	-1.1
캐나다	37.50	28.50	28.50	-24.0	0.0
아르헨티나	10.50	12.50	12.50	19.0	0.0
브라질	5.30	6.00	6.00	13.2	0.0
EU-27	143.32	144.88	146.25	2.0	0.9
러시아	52.09	52.00	53.00	1.7	1.9
카자흐스탄	13.94	14.50	14.50	4.0	0.0
우크라이나	22.28	20.00	20.00	-10.2	0.0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호주	27.00	25.50	25.50	-5.6	0.0
인도	93.51	94.00	95.85	2.5	2.0
중국	121.72	123.00	124.00	1.9	0.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밀 소비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캐나다의 밀 소비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밖에 미국, 러시아, 호주, 중국의 밀 소비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의 밀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사료용 밀 소비량 또한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의 사료용 밀 소비량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그밖에 러시아, 인도, 중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사료용 밀 소비량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유럽 및 우크라이나의 사료용 밀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0. 주요국의 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3.87 (5.99)	33.09 (4.63)	32.55 (4.35)	-3.9 (-27.4)	-1.6 (-6.0)
캐나다	11.20 (6.00)	9.75 (4.50)	9.75 (4.50)	-12.9 (-25.0)	0.0 (0.0)
아르헨티나	6.05 (0.10)	6.15 (0.10)	6.15 (0.10)	1.7 (0.0)	0.0 (0.0)
브라질	11.40 (0.60)	11.60 (0.60)	11.60 (0.60)	1.8 (0.0)	0.0 (0.0)
EU-27	117.00 (49.00)	121.50 (53.00)	122.00 (53.50)	4.3 (9.2)	0.4 (0.9)
러시아	34.00 (12.50)	33.50 (12.00)	33.50 (12.00)	-1.5 (-4.0)	0.0 (0.0)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카자흐스탄	6.80 (2.00)	7.30 (2.50)	7.30 (2.50)	7.4 (25.0)	0.0 (0.0)
우크라이나	11.50 (3.40)	11.50 (3.50)	11.50 (3.50)	0.0 (2.9)	0.0 (0.0)
호주	6.95 (3.60)	6.60 (3.20)	6.60 (3.20)	-5.0 (-11.1)	0.0 (0.0)
인도	93.90 (4.80)	92.05 (4.50)	93.90 (4.50)	0.0 (-6.3)	2.0 (0.0)
중국	123.50 (23.00)	121.00 (20.00)	122.00 (21.00)	-1.2 (-8.7)	0.8 (5.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밀 수출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인도의 밀 수출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밖에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러시아의 밀 수출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1. 주요국의 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2.11	25.86	25.17	-21.6	-2.7
캐나다	22.00	21.00	21.00	-4.5	0.0
아르헨티나	2.00	6.50	6.50	225.0	0.0
EU-27	30.00	27.50	28.00	-6.7	1.8
러시아	18.50	19.00	19.50	5.4	2.6
카자흐스탄	8.00	7.00	7.00	-12.5	0.0
우크라이나	9.50	8.50	8.50	-10.5	0.0
호주	19.50	18.50	18.50	-5.1	0.0
인도	6.00	3.50	3.50	-41.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주요 국가의 2014/15년 밀 수입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의 밀 수입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밖에 브라질,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밀 수입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2013/14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표 12. 주요국의 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브라질	7.20	6.50	6.50	-9.7	0.0
중국	7.00	3.00	3.00	-57.1	0.0
서남아시아	21.01	19.43	19.48	-7.3	0.3
북아프리카	24.70	23.50	23.50	-4.9	0.0
동남아시아	16.10	16.13	16.13	0.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4/15년 밀 기말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권 국가와 호주, 중국, 브라질의 밀 기말 재고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반해, 북미와 아르헨티나, 인도의 밀 기말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3.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6.14 (24.5%)	14.71 (25.0%)	15.62 (27.1%)	-3.2 (2.6%p)	6.2 (2.1%p)
캐나다	9.79 (29.5%)	8.05 (26.2%)	8.02 (26.1%)	-18.1 (-3.4%p)	-0.4 (-0.1%p)
아르헨티나	2.74 (34.0%)	2.60 (20.6%)	2.60 (20.6%)	-5.1 (-13.4%p)	0.0 (0.0%p)
브라질	2.00 (17.0%)	2.50 (20.7%)	2.40 (19.8%)	20.0 (2.8%p)	-4.0 (-0.9%p)
EU-27	10.68 (7.3%)	12.06 (8.1%)	12.43 (8.3%)	16.4 (1.0%p)	3.1 (0.2%p)
러시아	5.74	6.74	6.94	20.9	3.0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카자흐스탄	(10.9%)	(12.8%)	(13.1%)	(2.2%p)	(0.3%p)
	2.09	2.29	2.29	9.6	0.0
	(14.1%)	(16.0%)	(16.0%)	(1.9%p)	(0.0%p)
우크라이나	3.96	4.06	4.06	2.5	0.0
	(18.9%)	(20.3%)	(20.3%)	(1.4%p)	(0.0%p)
호주	4.94	5.97	5.47	10.7	-8.4
	(18.7%)	(23.8%)	(21.8%)	(3.1%p)	(-2.0%p)
인도	17.83	16.30	16.30	-8.6	0.0
	(17.8%)	(17.1%)	(16.7%)	(-1.1%p)	(-0.4%p)
중국	58.18	62.18	62.18	6.9	0.0
	(46.7%)	(51.0%)	(50.6%)	(3.9%p)	(-0.4%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캐나다, 미국, 유럽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밖에 중국과 브라질 또한 옥수수 기초 재고량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4.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20.86	29.12	29.12	39.6	0.0
캐나다	1.55	2.75	2.75	77.4	0.0
아르헨티나	1.32	3.03	3.53	167.4	16.5
브라질	14.15	14.95	15.45	9.2	3.3
EU-27	5.09	6.16	6.16	21.0	0.0
우크라이나	1.19	3.24	2.24	88.2	-30.9
남아프리카	3.07	3.42	3.09	0.7	-9.6
중국	67.57	77.70	77.20	14.3	-0.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옥수수 생산량은 2013/14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아르헨티나, 중국, 유럽 지역의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캐나다를 비롯한 브라질,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3/14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표 15.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53.72	353.97	353.97	0.1	0.0
캐나다	14.20	12.50	12.50	-12.0	0.0
아르헨티나	24.00	26.00	26.00	8.3	0.0
브라질	76.00	74.00	74.00	-2.6	0.0
EU-27	64.57	64.65	65.25	1.1	0.9
우크라이나	30.90	26.00	27.00	-12.6	3.8
남아프리카	14.50	13.50	13.50	-6.9	0.0
중국	217.73	220.00	220.00	1.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옥수수 소비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소비량이 큰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밖에 브라질, 유럽,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옥수수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 또한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유럽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6.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298.08 (134.63)	296.81 (133.36)	296.81 (133.36)	-0.4 (-0.9)	0.0 (0.0)
캐나다	12.20 (6.80)	12.20 (6.70)	12.20 (6.70)	0.0 (-1.5)	0.0 (0.0)
아르헨티나	8.30 (5.50)	9.00 (6.00)	9.00 (6.00)	8.4 (9.1)	0.0 (0.0)
브라질	55.00 (46.00)	56.50 (47.50)	56.50 (47.50)	2.7 (3.3)	0.0 (30.0)
EU-27	75.50 (57.00)	76.00 (57.00)	76.50 (57.50)	1.3 (0.9)	0.7 (0.9)
우크라이나	9.90 (8.50)	10.40 (9.00)	10.90 (9.50)	10.1 (11.8)	4.8 (5.6)
남아프리카	11.50 (5.20)	11.40 (5.30)	11.40 (5.30)	-0.9 (1.9)	0.0 (0.0)
중국	212.00 (154.00)	222.00 (162.00)	222.00 (162.00)	4.7 (5.2)	0.0 (0.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옥수수 수출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수출량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역시 옥수수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캐나다의 옥수수 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7.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48.26	43.18	43.18	-10.5	0.0
캐나다	1.20	1.50	1.50	25.0	0.0
아르헨티나	13.50	16.00	16.00	18.5	0.0
브라질	20.50	20.00	20.00	-2.4	0.0
EU-27	2.00	2.00	2.00	0.0	0.0
우크라이나	20.00	16.00	16.00	-20.0	0.0
남아프리카	3.00	2.20	2.20	-26.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주요 국가의 2014/15년 옥수수 수입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이집트,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일본의 옥수수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8.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EU-27	14.00	13.00	13.00	-7.1	0.0
중국	4.00	3.00	3.00	-25.0	0.0
일본	15.50	16.00	16.00	3.2	0.0
한국	9.50	9.50	9.50	0.0	0.0
멕시코	11.50	10.90	10.90	-5.2	0.0
이집트	7.00	6.50	6.50	-7.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4/15년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및 중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브라질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캐나다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9.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29.12 (8.4%)	43.85 (12.9%)	43.85 (12.9%)	50.6 (4.5%p)	0.0 (0.0%p)
캐나다	2.75 (20.5%)	2.05 (15.0%)	2.05 (15.0%)	-25.5 (-5.5%p)	0.0 (0.0%p)
아르헨티나	3.53 (16.2%)	4.04 (16.2%)	4.54 (18.2%)	28.6 (2.0%p)	12.4 (2.0%p)
브라질	15.45 (20.5%)	13.25 (17.3%)	13.75 (18.0%)	-11.0 (-2.5%p)	3.8 (0.7%p)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EU-27	6.16 (7.9%)	5.81 (7.4%)	5.91 (7.5%)	-4.1 (1.4%p)	1.7 (0.1%p)
우크라이나	2.24 (7.5%)	2.89 (10.9%)	2.39 (8.9%)	6.7 (1.4%p)	-17.3 (-2.0%p)
남아프리카	3.09 (21.3%)	3.34 (24.6%)	3.02 (22.2%)	-2.3 (0.9%p)	-9.6 (-2.4%p)
중국	77.20 (36.4%)	78.60 (35.4%)	78.10 (35.2%)	1.2 (-1.2%p)	-0.6 (-0.2%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대두 기초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 대두 기초 재고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밖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일본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0.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83	3.53	3.40	-11.2	-3.7
아르헨티나	22.40	28.05	28.55	27.5	1.8
브라질	15.33	18.51	17.91	16.8	-3.2
EU-27	0.25	0.44	0.59	136.0	34.1
중국	12.38	13.70	13.70	10.7	0.0
일본	0.18	0.17	0.17	-5.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대두 생산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반해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13/14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 주요국의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89.51	98.93	98.93	10.5	0.0
아르헨티나	54.00	54.00	54.00	0.0	0.0
브라질	87.50	91.00	91.00	4.0	0.0
EU-27	1.23	1.25	1.43	16.3	14.4
중국	12.20	12.00	12.00	-1.6	0.0
일본	0.20	0.21	0.21	5.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대두 소비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중국, 유럽의 대두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브라질 및 일본의 대두 소비량은 2013/14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표 22.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48.84 (46.27)	49.67 (46.68)	49.67 (46.68)	1.7 (0.9)	0.0 (0.0)
아르헨티나	39.35 (37.30)	41.90 (39.80)	41.90 (39.80)	6.5 (6.7)	0.0 (0.0)
브라질	39.98 (37.00)	40.10 (37.10)	40.10 (37.10)	0.3 (0.3)	0.0 (0.0)
EU-27	13.28	13.51	13.56	2.1	0.4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12.35)	(12.58)	(12.58)	(1.9)	(1.9)
중국	79.65	83.90	83.90	5.3	0.0
	(68.35)	(72.50)	(72.50)	(6.1)	(0.0)
일본	3.01	3.01	3.01	0.0	0.0
	(1.96)	(1.95)	(1.95)	(-0.5)	(0.0)

주: 괄호 안은 착유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2014/15년 대두 수출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증가함에 반해,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3.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43.55	44.23	44.23	1.6	0.0
아르헨티나	8.50	9.00	9.00	5.9	0.0
브라질	45.50	45.00	45.00	-1.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주요 국가의 2014/15년 대두 수입량은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증가함에 반해, 일본과 유럽의 대두 수입량은 2013/14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표 24. 주요국의 대두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EU-27	12.45	12.50	12.50	0.4	0.0
중국	69.00	72.00	72.00	4.3	0.0
일본	2.80	2.80	2.80	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2014/15년 대두 기말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유럽의 대두 기말 재고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아르헨티나의 대두 기말 재고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중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5. 주요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5월 (B)	2014/15. 6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40 (3.7%)	8.98 (9.6%)	8.84 (9.4%)	160.0 (5.7%p)	-1.6 (-0.2%p)
아르헨티나	28.55 (59.7%)	31.16 (61.2%)	31.66 (62.2%)	10.9 (2.5%p)	1.6 (1.0%p)
브라질	17.91 (21.0%)	24.56 (28.9%)	24.31 (28.6%)	35.7 (7.6%p)	-1.0 (-0.3%p)
EU-27	0.59 (4.4%)	0.61 (4.5%)	0.88 (6.5%)	49.2 (2.1%p)	44.3 (2.0%p)
중국	13.70 (17.2%)	13.50 (16.0%)	13.50 (16.0%)	-1.5 (-1.2%p)	0.0 (0.0%p)
일본	0.17 (5.6%)	0.17 (5.6%)	0.17 (5.6%)	0.0 (0.0%p)	0.0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0 JUN, 2014.

곡물 선물 5월 동향과 6월 전망

임호상(삼성선물 책임연구원)*

5월 곡물선물 시장은 4월 미 곡물 시장이 1) 미 농무부 4월 수급보고에서 옥수수 기말재고율 추가 하향 수정, 2)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옥수수/소맥 수출에 미칠 부정적 요인 부각, 3) 미 2013/14년도 대두 기말재고율이 적정 재고율 17~18%를 크게 하회하는 4.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으로, 전월말 대비 옥수수 +2.5%, 대두 +5.7%, 소맥 +3.0% 상승 마감한 흐름을 이어가며 출발했다.

하지만 5월 말까지 곡물 선물 시장은 작황 개선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하락 마하였다. 1) 5월 9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5월 수급보고에서 옥수수/대두/소맥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미국의 옥수수 파종 진척도가 과거 5년 평균을 상회하고 주간 Crop Progress 보고서 내용도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 3) 대두의 파종 진척도도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인 점, 4) 겨울 소맥의 작황에 대한 우려가 일부 개선된 부분, 5)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향후 러시아와의 회담 재개 기대, 그리고 러시아의 소맥 수출 물량 증가 전망 등이 곡물 가격 하락 요인들이다. 이로 인해 전월대비로 옥수수 선물은 -2.4%, 대두 -1.4%, 소맥 -6.1%를 기록하였다.

6월 곡물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난 6월 11일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 전망에서 1) 글로벌 2014/2015년 곡물연도의 옥수수/대두/소맥 기말재고율이 2013/14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2) 미국의 재배지역의 작황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의 조정 요인을 제공할 전망이다. 다만 대두의 경우는 구곡의 기말재고율이 3.8%대로 여전히 낮다는 점이 상대

* hosang.lim@samsung.com, 02-3707-3621.

적으로 가격 조정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한편 시장외적 요인인 외환시장은 1) 미 5월 고용지표 개선 흐름 지속 확인 통한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대 지속, 2) 영란은행 카니 총재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언급, 3) ECB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및 향후 필요할 경우 양적완화 단행 시사 등에 따른 유로화 약세 흐름 지속 등의 요인들이 달러화의 강세 흐름을 이어지게 할 부분인 점은 미 곡물 선물, 특히 소맥 선물 가격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하기 바란다.

1. 곡물선물 5월 동향 : 5월 미 농무부 기말재고 증가 전망 속 조정

표 1. 5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5.30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	원면	원유
전년말비 (%)	-1.1%	+7.7%	-4.5%	+2.5%	-1.4%	+11.1%
전월말비 (%)	-2.4%	-1.4%	-6.1%	-3.8%	+0.1%	+4.2%

미국 곡물 선물은 5월 초반에는 3월과 4월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출발. 하지만 5월 9일에 발표된 미 농무부의 5월 글로벌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주요 곡물들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옥수수가 전년도의 8.40%에서 12.9%로, 대두가 3.83%에서 9.5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옥수수 선물은 전월대비 2.4%, 대두 선물은 1.4%, 소맥 선물은 6.1% 하락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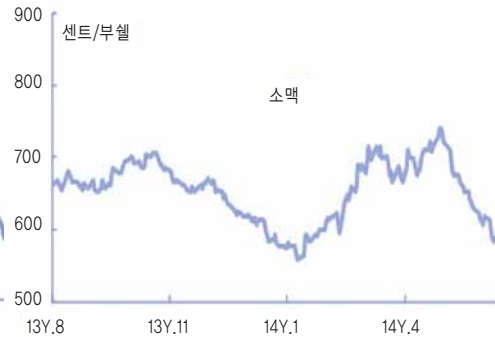
특히 소맥은 1)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대선이 무사히 종료되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는 등 향후 양국간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 잔존, 2) 러시아의 소맥 생산 물량 확대 전망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곡물들에 비해 소맥 선물의 하락 폭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2. 소맥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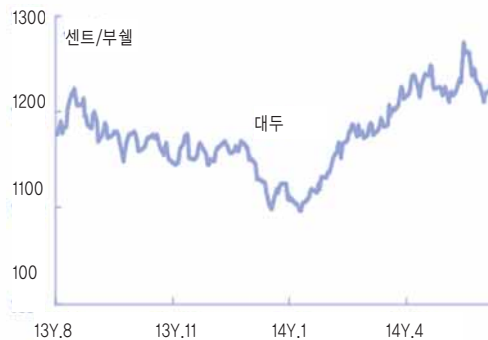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대두 선물은 4월 중순 이후 미국의 대두 기말재고율이 적정 재고율 17~18%를 크게 하회하는 4.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남미産 대두의 작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전월대비 +5.7%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대두 선물 또한 앞서 언급한 新穀인 2014/15년도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확대된 부분이 영향을 미치며 5월에는 1.4% 하락 마감했다.

다만 舊穀인 2013/14년도 곡물의 기말재고율이 3.83%로 조금의 수급 불안 요인이 불거지며 미국산 재고의 소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두 곡물들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1.4%로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4. 생우 선물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표 2. 주요 농산물 선물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추이

(6/12일 종가기준)

상품	현재	전주말	주간 변동	주간 변동률	전월말 대비 (%)	전년 대비 (%)	거래량	거래량 증감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 증감
옥수수	445.5	457.5	-12	-2.6%	-3%	-1.2%	335,286	-23,886	465,715	22,361
대 두	1214.75	1218.5	-3.75	-0.3%	0%	7.5%	337,329	78,758	317,751	38,945
소 맥	589	618.3	-29.25	-4.7%	-5%	-4.5%	277,785	-4,551	146,503	-29,338
대두유	39.06	39.2	-0.14	-0.4%	0%	-2.4%	144,447	31,711	136,151	23,520
원 면	77.42	77.8	-0.42	-0.5%	-1%	-1.3%	78,338	22,171	105,417	19,470
원 당	17.51	17.8	-0.26	-1.5%	-1%	2.5%	289,425	47,493	389,461	75,828
커 피	174.6	174.3	0.35	0.2%	0%	48.9%	66,866	24,923	67,567	16,632
돈지육	131.45	129.4	2.05	1.6%	2%	35.4%	71,108	11,229	81,123	15,399
생 우	145.4	141.9	3.5	2.5%	2%	13.7%	99,520	-16,565	176,583	-3,971

2. 곡물 선물 6월 전망

■ 곡물 선물 시장 외부 환경: 미 달러 강세 지속 따른 조정 요인

지난 5월 중순까지는 5월초 개최된 옐런 총재의 미 의회 증언에서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발언으로 인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 미 5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가 전월비 +21.7만 명 기록하며 전월치 +28.8만 명은 하회했으나, 전망치 +21.5만 명을 상회하며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 지속 기대 확대, 2) 미 5월 지역연은 경제보고(베이지북)에서 개인소비/제조업 등의 확대를 통한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 확인, 3) 영란은행 카니 총재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이 미 FOMC에 미칠 영향력, 4) ECB가 6월 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0.1% 인하, 은행들의 중앙은행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추가 TLTRO 자금 대출 단행, 향후 필요할 경우 자산담보부증권(ABS) 등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 시사 등을 시행한데 따른 유로화 약세 흐름 지속 등의 요인들이 달러화의 강세 흐름을 이어지게 할 부분인 점은 미 곡물 선물, 특히 유럽지역이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소맥 선물 가격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는 주의.

다만 미/유럽/일본의 금융완화 지속 기대 속에 브라질, 호주 등의 국가들의 통화 강세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부정적 요인을 상쇄시킬 부분임은 주의.

그 외의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옥수수/소맥의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 러시아 세력간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하지만 1)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최근 우크라이나의 신임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 러시아의 소맥 수출 물량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는 점 등은 소맥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5. 달러화 지수 추이



그림 6. 유로화 지수 추이



그림 7. 브라질 헤알화 추이



그림 8. 달러화 지수 추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이 10월에는 최종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을 전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하는 점은, 큰 흐름에서의 달러화 강세를 지속시킬 요인은 이어지며 미 곡물 가격의 추가적인 급등세를 제한할 요인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미국 농무부 6월 수급 전망 요약 : 글로벌 곡물 재고율 상향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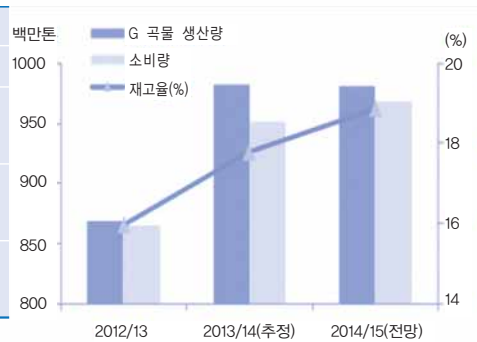
옥수수는 6월 11일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전망에서는 2014/15년도 글로벌 옥수수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5월의 18.8%에서 18.9%로 상향 수정되었고, 2013/14년도의 17.8%도 상회했다. 다만 미국은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은 6월에 12.9%로 5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고, 2013/14년도 기말재고율도 전월과 동일한 8.4%를 기록했다.

표 3. 글로벌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율(%)	
			2014.4	2014.5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868.8	981.89	979.08	981.12	-0.1%	0.2%
공급량	1003.41	1120.03	1147.50	1150.17	2.7%	0.2%
소비량	865.27	950.98	965.77	967.52	1.7%	<u>0.2%</u>
교역량	95.21	124.16	115.72	115.52	-7.0%	<u>0.2%</u>
기말재고	138.21	169.05	181.73	<u>182.65</u>	8.0%	<u>0.5%</u>
재고율(%)	16.0	17.8	<u>18.8</u>	<u>18.9</u>		

자료: USDA

그림 9. 글로벌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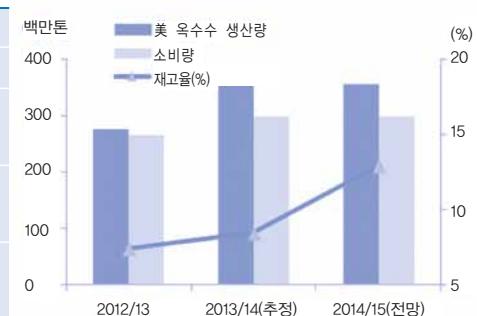
자료: USDA

표 4. 미국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율(%)	
			2014.4	2014.5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273.83	353.72	353.97	353.97	0.1%	<u>0.0%</u>
공급량	298.95	374.58	383.09	383.09	2.3%	0.0%
소비량	263.64	298.08	296.81	296.81	-0.4%	0.0%
교역량	18.58	48.26	43.18	43.18	-10.5%	<u>0.0%</u>
기말재고량	20.86	29.12	43.85	43.85	50.6%	<u>0.0%</u>
재고율(%)	7.4	8.4	<u>12.9</u>	<u>12.9</u>		

자료: USDA

그림 10. 미국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자료: USDA

대두는 미 농무부 6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29.3%에서 29.5%로 상향 수정 되었고, 2013/14년도의 기말재고율도 5월의 24.8%에서 24.9%로 상향 수정되었다. 한편 미국산 대두의 경우는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5월의 9.6%에서 9.4%로 하향 수정되고, 근월물인 2013/14년도의 기말재고율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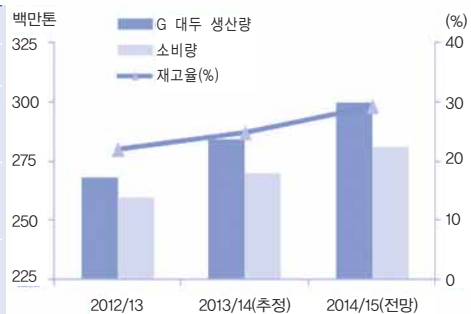
월의 3.8%에서 3.7%로 하향 수정되면서 대두 선물 가격의 상대적인 낙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5. 글로벌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율(%)	
			2014.4	2014.5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267.85	283.79	299.82	299.99	5.6%	<u>0.1%</u>
공급량	321.44	340.83	366.80	367.16	7.6%	0.1%
소비량	259.32	269.89	280.58	280.63	4.0%	<u>0.0%</u>
교역량	100.65	110.64	112.33	112.33	1.5%	<u>0.0%</u>
기말재고량	57.04	66.98	82.23	82.88	22.8%	<u>0.8%</u>
재고율(%)	22.0	24.8	<u>29.3</u>	<u>29.5</u>		

자료: USDA

그림 11. 글로벌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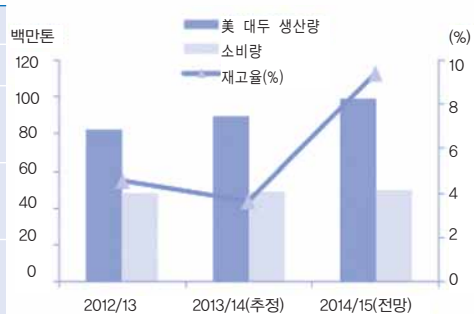
자료: USDA

표 6. 미국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율(%)	
			2014.4	2014.5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82.56	89.51	98.93	98.93	10.5%	0.0%
공급량	87.17	93.34	102.46	102.33	9.8%	-0.1%
소비량	48.42	48.71	49.67	49.67	2.0%	<u>0.0%</u>
교역량	35.91	43.55	44.23	44.23	1.6%	0.0%
기말재고량	3.83	3.53	8.98	8.84	154.4%	<u>-1.6%</u>
재고율(%)	4.5	3.8	<u>9.6</u>	<u>9.4</u>		

자료: USDA

그림 12. 미국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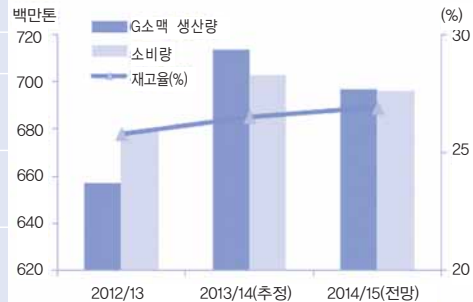
소맥은 농무부 6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5월의 26.9%에서 27.0%로 상향 수정되었다. 또한 미국의 기말재고율도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5월의 25.0%에서 27.1%로 상향 수정되고, 2013/14년도 기말재고율도 23.9%에서 24.5%로 상향 수정됨에 따라 소맥 선물 가격의 낙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7. 글로벌 소맥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율(%)	
			2014.4	2014.5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657.3	714	697.04	701.62	-2.4%	0.7%
공급량	854.56	889.33	883.57	887.67	-0.6%	0.5%
소비량	679.23	702.8	696.15	699.06	-0.9%	0.4%
교역량	137.18	162	151.82	152.08	-6.3%	0.2%
기말재고량	175.33	186.53	187.42	188.61	0.5%	0.6%
재고율(%)	25.8	26.5	26.9	27.0		

자료: USDA

그림 13. 글로벌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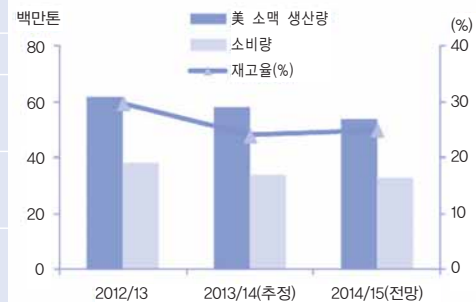
자료: USDA

표 8. 미국 소맥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율(%)	
			2014.4	2014.5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61.67	57.96	53.43	52.85	-7.8%	-1.1%
공급량	85.22	82.26	73.66	73.35	-10.5%	-0.4%
소비량	38.27	34.14	33.09	32.55	-3.1%	-1.6%
교역량	27.42	32.25	25.86	25.17	-19.8%	-2.7%
기말재고량	19.54	15.87	14.71	15.62	-7.3%	6.2%
재고율(%)	29.7	23.9	25.0	27.1		

자료: USDA

그림 14. 미국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자료: USDA

■ 곡물 6월 전망 : 생산량 증가 전망 속 조정 흐름, 옥수수 수분기 주의

기본적으로 미 농무부의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옥수수/대두의 파종 진척도가 개선 되는등 작황 개선 기대 속에 2014/15년도 생산량 증가 전망이 이어지며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옥수수의 경우 다음 생육단계인 가장 중요한 수분기를 앞두고 날씨가 적합한 상황을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이므로 언제 든지 날씨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옥수수는 6월 11일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옥수수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5월의 18.8%에서 6월에는 18.9%로 상향 수정되었고, 2013/14년도의 17.8%도 상회하고 있다. 옥수수 신곡 생산량 전망치가 구소련, EU 등을 위주로 5월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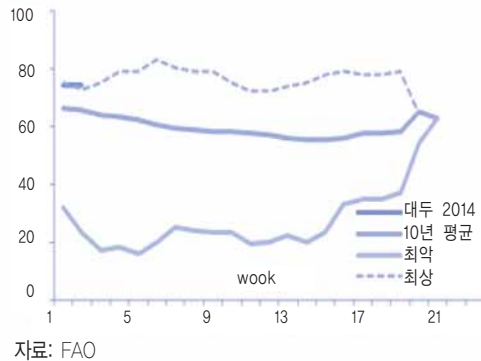
또한 미국산 옥수수의 기말재고율도 구곡의 8.4%에서 신곡은 12.9%로 2009/10

년 곡물연도 이래 처음으로 수급 우려가 전년대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그림 15. 옥수수 작황



그림 16. 대두 작황



그리고 6월 10일 발표된 Crop Progress 보고에서 1) 옥수수의 발아율이 92%로 전주의 80%, 5년 평균 90%를 상회하고, 2) 생육 상황이 Good 이상인 비율이 75%로 전년도의 63%를 상회, 3) Corn Belt 지역에서는 20여년 만의 양호한 작황 기록 등 작황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수급 우려를 완화시킬 요인이다. 특히 5월 중순에 파종이 평년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초기 단계의 양호한 작황 및 기상환경의 영향으로 부정적 요인이 상쇄된 부분도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

물론 올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향후 날씨 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우려는 남아 있으나, 아직까지는 글로벌한 재고 증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옥수수 선물 가격의 향후 방향성은 결국 수분기를 앞두고 재배지역의 날씨가 수분에 유리한 상황을 연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하겠다.

표 9. 미국 옥수수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 (2014/15년도, 2013/14년도, 백만 톤)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6.11)	2013/14 (2014.5.9)	2013/14 (2014.6.11)
작부면적	에이커	84.3	84.3	87.7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165.3	165.3	158.8
기초재고	부셸	1,146	1,146	821
생산	부셸	13,935	13,935	13,925
공급 합계	부셸	15,111	15,111	14,781
사료	부셸	5,250	5,250	5,300
식품/종자/공업	부셸	6,435	6,435	6,435
에탄올	부셸	5,050	5,050	5,050
수출	부셸	1,700	1,700	1,900
수요 합계	부셸	13,385	13,385	13,635
기말재고	부셸	1,726	1,726	1,146
재고율	%	12.90%	12.90%	8.40%

한편 대두는 1) 미 농무부 6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29.3%에서 29.5%로 상향 수정 되고, 2) 2013/14년도의 기말재고율도 5월의 24.8%에서 24.9%로 상향 수정된 점, 3)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앞 페이지의 작황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작황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들이다.

표 10. 미국 대두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 (2014/15년도, 2013/14년도, 백만 톤)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6.11)	2013/14 (2014.5.9)	2013/14 (2014.6.11)
작부면적	에이커	80.5	80.5	75.9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45.2	45.2	43.3
기초재고	부셸	125	130	141
생산	부셸	3,635	3,635	3,289
공급 합계	부셸	3,775	3,780	3,519
Crushing	부셸	1,715	1,715	1,700
수출	부셸	1,625	1,625	1,600
종자	부셸	92	92	95
사료	부셸	18	18	0
수요 합계	부셸	3,450	3,450	3,360
기말재고	부셸	325	330	125
재고율	%	9.42%	9.57%	3.68%

실제 6월 10일 Crop Progress 보고에서 1) 대두의 파종율은 87%로 5년 평균치 81%를 상회했고, 2) 발아율도 71%로 5년 평균치 62%를 상회하는 등 대두의 작황도 예년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대두 선물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 향후 날씨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 변동성은 확대될 부분이지만.

다만 미국산 대두의 경우는 해외용 대두밀 수요가 증가로 인해,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5월의 9.67%에서 9.42%로 하향 수정되고, 근월물인 2013/14년도의 기말재고율도 5월의 3.8%에서 3.68%로 하향 수정되면서 대두 선물 가격의 상대적인 낙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낮은 기말재고율은 1972/73년 곡물연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소맥은 1) 미 농무부 6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5월의 26.9%에서 27.0%로 상향 수정되고, 2) 미국의 기말재고율도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5월의 24.9%에서 27.1%로 상향 수정된 점, 3) 사료용 대체재 관계에 있는 옥수수 선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 4) 러시아의 소맥 수출 증가 전망 등이 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여전히 미 농무부에서 남부~중서부 지역의 작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격 지지 요인은 남아 있으나, 1) 글로벌 소맥 생산량의 증가, 2) 이로 인한 미국산 소맥의 기말재고율 증가 전망 등은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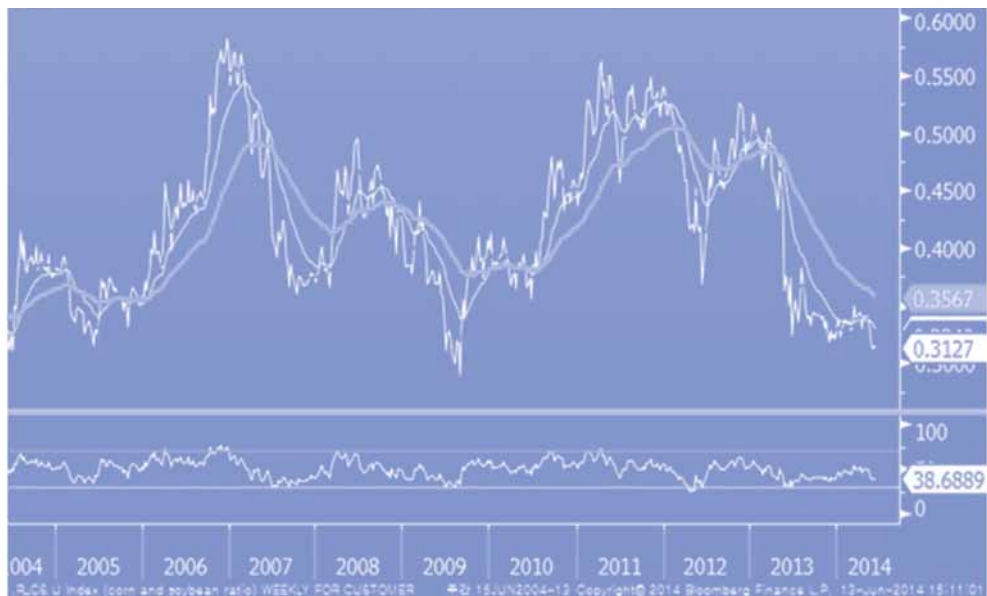
표 11. 미국 소맥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 (2014/15년도, 2013/14년도, 백만 톤)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6.11)	2013/14 (2014.5.9)	2013/14 (2014.6.11)
작부면적	에이커	45.9	45.9	46.2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u>45.3</u>	42.7	47.2
기초재고	부셸	<u>593</u>	593	718
생산	부셸	<u>1,942</u>	1,963	2,130
공급 합계	부셸	2,695	2,706	3,018
Crushing	부셸	960	970	950
수출	부셸	76	76	74
종자	부셸	160	170	220
사료	부셸	<u>950</u>	950	1,180
수요 합계	부셸	2,121	2,166	2,424
기말재고	부셸	574	540	593
재고율	%	<u>27.1%</u>	<u>24.9%</u>	<u>24.5%</u>

■ 선물 시장의 상대 가격, 포워드커브,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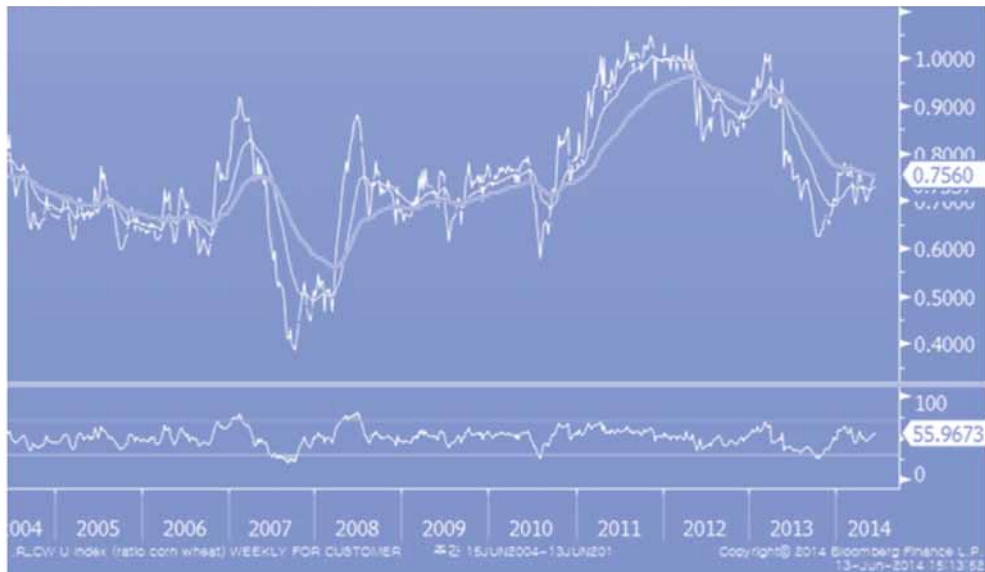
아래 <그림 17>은 옥수수 선물과 대두 선물의 가격 비율을 주간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과거 2005년부터 볼 때, 시장의 과매도/과매수 여부를 나타내는 하단의 RSI 지표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과매도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대적인 낙 폭이 컸던만큼 옥수수 가격의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옥수수/대두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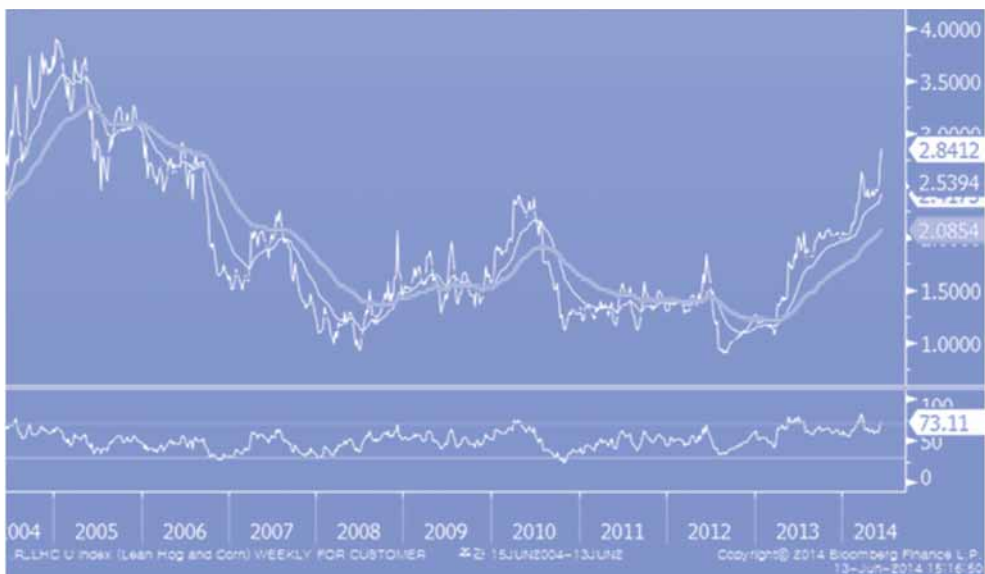
한편 다음 <그림 18>은 사료용 대체 관계에 있는 옥수수와 소맥 선물의 주간 비율 차트이다. 이 경우도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낙 폭이 컸던 소맥 선물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폭을 제한할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8. 옥수수/소맥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그 외에 아래에 있는 돈육 선물과 옥수수 선물간의 가격 비율 차트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가격 흐름을 비교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림 19. 돈육/옥수수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옥수수 선물 시장의 포워드커브의 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 20>에서 보듯 1) 농무부 수급 전망에서의 2014/15년도 생산량 증가 및 이로 인한 기말재고율 증가 전망, 2) 옥수수 파종 진척도 및 작황 개선 등의 영향 속에 근월물의 수급 불안 우려가 축소되며 포워드커브 자체가 아래로 하향 이동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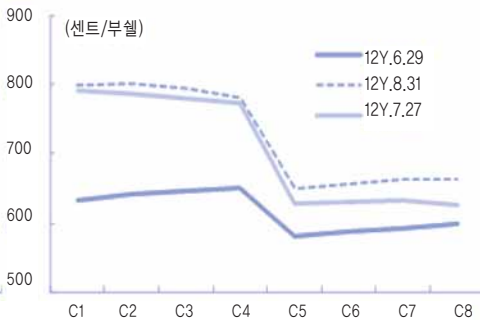
다만 아래 <그림 21>의 2012년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를 통해 보면 향후 수분 단계의 날씨가 작황에 우호적이나 여부에 따라 8월까지 가격 반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배에 적합한 날씨의 전개 여부에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0.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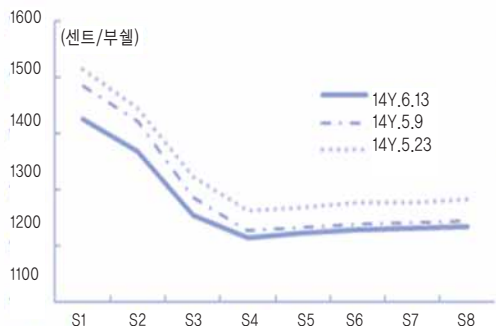
그림 21. 2012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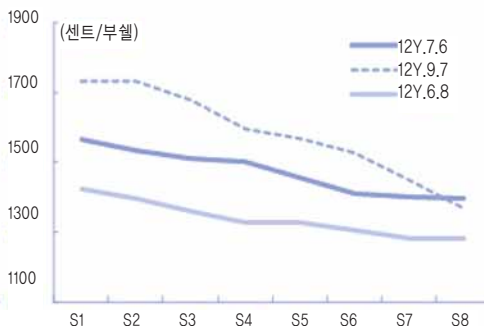
한편 대두 선물은 아래 <그림 23>의 2012년 포워드커브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또한 향후 날씨의 전개 여부에 따라 가격 반등 요인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산 대두의 근월물의 기말재고율이 3.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림 22.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23. 2012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자료: 블룸버그

한편 아래 <그림 24>와 <그림 25>를 보면 지난 월간 전망에서 옥수수/소맥 선물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최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증가 폭 확대로 과거의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요인이므로 가격 조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했었는데, 실제 그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며 옥수수/소맥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은 축소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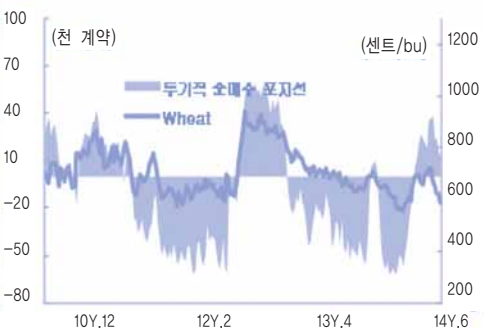
특히 소맥의 포지션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으로 향후 추가적인 포지션 축소 시에는 단기 가격 반등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4. 옥수수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25. 소맥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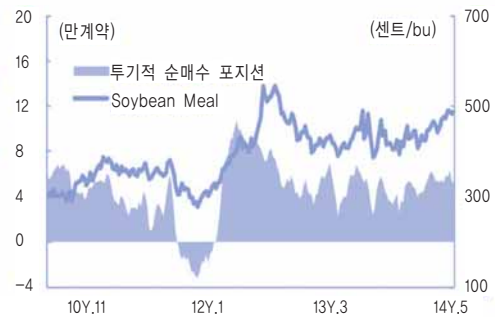
반면 대두 선물의 경우도 추가적인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축소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대적으로 옥수수/소맥 선물에 비해서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대두 파종이 옥수수처럼 속도가 빨라지고, 재배지역의 날씨가 개선될 경우 대두 선물의 가격 조정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6. 대두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27. 대두박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자료: 블룸버그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을 필두로 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시장 떠받치기' 노력은 눈물겹다. 5월 8일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뭔가 보여 주겠다”고 장담한 드라기의 추가 완화 '패키지'는 시장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 시장은 다시 6월 17~18일의 FOMC를 주목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꾸준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와중에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이후 개각을 통해 '2기 경제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달려온 시장이지만, 이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분주한 중앙은행들 시장은 6월 FOMC 주목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호크 아이..... 헐리우드 액션 영화 '어벤저스(Avengers)'의 쟁쟁한 주인공들이다. 때로 나와 지구를 지키는 이들 가운데에는 거인도 있고 왜소한 체격도 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나름 다들 주특기 하나씩은 있다. 영화를 보다 보면 통쾌한 장면도 많이 마주치지만 황당한 대목도 적지 않다. 주인공 한 명으로도 한 편의 영화가 가능할 정도의 슈퍼 캐릭터들이지만 우루루 몰려다니다 보니 그저 'One of them'에 그치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스토리 전개 과정의 개연성과 필연성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고 보는 영화이기도 하다. 물론 극장의 불이 다시 켜지는 순간에도 감동은 없다..... 요

* jopok@nfutures.co.kr, 02-3787-8290.

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행태는 영화 '어벤저스'를 방불케 한다. 아래 <그림 1~4>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상을 구하겠다고 나선 영웅들의 최근 동향을 정리했다. <그림 5>에서는 갈 길은 잃은 한국은행(BOK)의 딱한 형편도 살피고 넘어간다.

그림 1. 추가 완화정책 내놓은 ECB & '양적 완화(QE) 반대' 변함없는 Bundesbank

"돈 맡기면 이자 대신 보관비"...드라기, 디플레 방어 '승부수'

ECB, 기준금리 0.1% 인하...은행 해지금에 첫 대대적 투자

양적완화 정책 강력 시사...“대가서 그치지 않을 것”
기업 대출채권 ECB가 지원하는 ‘타겟된 장기대출’도

입력: 2014-06-06 01:40:26

한국경제



○행동에 나선 '리프 서비스' 황제 드라기

○은행 대출 확대 위해 전방위 정책 동원

상승세 둔화되는 유로존 소비자물가

2010년 12월 2.2

2011년 12월 2.7

2012년 12월 2.2

2013년 12월 0.8

2014년 0.5

자료: 유로스타트

하락하는 ECB 기준금리

2011년 11월 1.25

2012년 7월 1.00

2013년 5월 0.75

2013년 11월 0.50

2014년 6월 0.25

자료: ECB

드라기, '비주카포' 제외한 모든 정책 발표

입력: 2014.06.06 03:53:51

한정언론

Market Watch

獨 중앙銀, "QE, 불가능한 것 아니다" 입장 선화

유로존 QE 도입, 최대 걸림돌 제거돼

입력: 2014.05.26

news1

《서울=뉴스1》 최종판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에선으로부터 유로존을 보호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유럽 1위 경제대국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양적완화(QE)에 지지의사를 전했다.

바이에른 총재는 국채보다는 인간의 자산 매입을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연합(EU) 조약에 부합하는 한 국채매입을 지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조약에 따르면 특정 정부에 대한 ECB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금지돼 있다.

獨 중앙은행 총재 "ECB 양적완화에 단호히 반대"

역시작성: 2014-06-13 14:54



【아시아경제 박민희 기자】 독일 중앙은행(중앙은행)인 뮌헨의 뮌헨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ECB의 기준금리 인하와 장기 대출 확대의 부당 조처에 불의한 바이에른이 그 이상의 추가적인 부당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뮌헨에서 열린 바이에른 바이에른 총재는 코로나도인 중앙은행이 후회할 경제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는 ECB가 미국, 일본, 영국 중앙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에른은 "국채 매입은 ECB의 통화정책을 유로존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안정이라는 임무를 달성해야 할 ECB의 역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채 매입은 유로존 정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유로존 최대의 인플레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림 2.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들고 나온 마크 카니(BOE 총재)

카니 영란은행 총재 "영국, 금리 인상 준비해라"

배파직 발언, 취임 1년만에 나온 것

최종수정: 2014-06-13 09:23

이투데이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조기 금리인상 인상을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카니 BOE 총재가 "금리인상이 시장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면서 영국 기업과 가구에 금리인상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카니 BOE 총재는 이날 런던 하우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을 잡기 위한 조치로 예상되는 중앙은행의 조치는 점진적 금리 인상 말고 다른 대체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재의 이러한 발언과 발언은 그가 BOE 수장직을 맡은 지 1년만에 나온 것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부채와 관련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카니 총재는 "금 융당국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택 시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英 영란은행, 내년 출구전략 나설 것"-CBI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1%로 인상...연말 2% 이를 것

입력: 2009-09-23 오후 3:26:50

Newstomato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산업연합(CBI)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영국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는 11월 1750억파운드(2860억달러) 규모의 국제매입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내년 영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란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英 중앙銀 총재 "영국 부동산 거품, 심각한 문제 있다"

입력시간: 2014.05.19 16:39

이데일리

영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 우려가 대두될 정도로 지난 1년간 급세세를 보였다. 영국 부동산 가격은 올해 4월까지 지난 1년간 무려 10%나 상승했다.

카니 총재는 또 작년부터 시행한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프로그램은 규제할 것임을 내비쳤다. 헬프 투 바이는 영국과 금융회 모기지에도 선례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금리와 대출 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BOE 카니, 투명성 줄이고 정책 위험 키워"

입력: 2014.06.14 00:01:01

한정언론

그림 3. 재탕, 삼탕 ...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아베(日 총리)와 구로다(BOJ 총재)

BOJ, 기존 통화정책 유지·대외 경기평가는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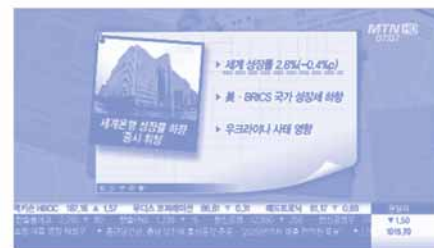
기사입력 2014.06.13 13:53 아시아경제

13일 볼로디그로프스에 따르면 BOJ는 이날 금융정책위원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0.1% 수준으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도 기존 연간 60조~70조엔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OJ는 일본경제에 대한 평가도 "완전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제시하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대외 경제에 대한 평가는 기존 "회복되기 시작했다"에서 "회복되고 있다"로 상향 조정했다. BOJ가 대외 경기 평가를 상향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세계은행 성장률 하향 '증시 휘청'

2014/06/12 09:25 MTN



구로다 "ECB 완화책 때문에 엔화 오를 이유 없어"

승인 2014.06.13 17:32:10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문우 기자 = 구로다 히로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단행한 통화 완화 정책 때문에 엔화가 유로화에 대해 오를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ECB 정책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띠고, 엔화가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사실상 구두계약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의 부러진 세번째 화살...이집집단에 막혀 성장전략 후퇴

기사입력 2014.06.13

후퇴한 日 성장 전략

당초 계획	변경된 안
이민 문화 개방	외국인 실업률 확대
고용·학교 자유화	성폭행 임금제한 도입
농협중앙회 폐지	농협 권한 축소
법인세 조속 인하	내년 중 인하 검토

그림 4.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결정타는 날리지 못하는 인민은행(PBOC)

중인민은행, 일부 은행들에 기준을 50bp 인하 기준율 인하 통해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경기부양 의도

2014-06-09 21:20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문에서 "지난해 농업부문에 대한 신규 대출이 올해 신규 대출의 50%를 넘거나 농업 분야에 대한 대출액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는 은행에 한해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민은행의 기준을 완화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상업은행의 3분의 2 가량이 수혜를 얻게 될 전망이다.



'개인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중국 인민은행 '대외무역 지원책' 발표

총 11개 조항의 '미니부양책'...수출입기업 전발행 금융서비스 제공

등록 : 2014-06-12 02:28 이종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메이신위(梅新偉) 연구원은 그 동안 중국인들이 기다려왔던 것처럼 비록 개인의 무역결제 허용범위는 크지 않을 테지만 향후 해외소망을 하거나 개인 무역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환율 리스크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이번 지원책에는 △무역기업 금융조달 채널 확대 △대외무역에 대한 중국수출입은행 등 정책성은행 금융서비스 강화 △금융리스 발전 지원 △대의 무역 및 위안화 투자결제 업무 간소화 △외국기업의 위안화 지불결제나 자금결제 업무 허용 등 위안화 운영 제약 완화 △은행과 온라인결제기관의 무역결제 업무 협력 허용 △무역기업 신용시스템 구축 △위안화 환율제도 완비 △환율 리스크 헷지 도구 다양화 △중국기업 해외진출시 금융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인민은행 "올해 통화정책 미세조정 지속"

승인 2014.06.11

연합뉴스

"中 인민은행, 경제정책 결정 목소리 커져..역할 반전"

"부채 부추기는 금리 인하보다 미니 부양책 낫다"

2014.06.10

지시받던 인민은행, 이제는 능동적으로 정책 결정

이데일리

분주한 인민은행(PBOC)...

그러나 이거다 할 만한 '한 방'은
없이 헤드라인만 요란하다는 느낌

그림 5. 움직이지 못하는 한국은행(BOK) ... 시장의 시선은 '2기 경제팀'으로 집중

韓銀 금통위, 13개월째 금리 年2.5% 동결
 "원화값 상승에 금리대응 신중"
 기사입력 2014.06.12 17:19/22 MK 뉴스



최-안 두 경제라인, 금리인하 목소리 확산
 최, 경기부양 강조 vs 안, 과거 금리인상 실기 지적
 2014-06-13 14:56 NEWSPM



금통위 "경기회복 주춤" ..8개월만에 경기인식 부정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경기 추세치 따라 회복→회복세 주춤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석달 만에 삭제
 입력시간 | 2014.06.12 10:56 이데일리

이주열 "환율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 신중해야"
 2014-06-12 13:28 NEWSPM

우회전 감박이 커고 계속 직진?... 이주열의 고민
 "금리 방향은 인상" 지난달 언급... "경기 방향성" 한발 뒤로 물러나
 2014-06-13 16면 '서울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 방향은 앞으로 인상 쪽이라고 명확한 시그널(신호)을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연세 차이를 바꿀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우회전 감박이론 연 상태에서 계속 직진하는 한국이다. '우측 감박이론'을 놓고 좌회전한다'고 비판받았던 전임 김종수 총재와 상황과 경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신호와 행동의 불일치가 겹쳐지면 중앙은행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다.

ECB는 중앙은행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의 자금이 대출로 풀려나가고 유로화가 약세로 전환되어 경기회복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돈이 돌지 않는 근본적인 배경인 신용경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BOE는 몇 개월 만에 부동산 시장 과열 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진단을 수정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도 여느 중앙은행들처럼 주저함 없이 '말 바꾸기'에 나서면서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줄이고 정책 위험을 키워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작년 4월에 제시한 '질적·양적 통화완화정책(QQE)'이 가진 패의 전부인 BOJ는 그저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PBOC는 분주히 뭔가를 내놓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경착륙을 막아내는 정도에 만족하는 정도다. 남들은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뭔가 해보겠다고 뽕뽕거리는데 그저 모였다 하면 기준금리 동결 말고는 발표할 것이 없는 BOK는 '2기 경제팀' 인선 내용이 발표되자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그림 6. 유로존 국제시장 및 유로/달러(EUR/USD) 시장 동향



그림 7. 영국(英國) 증시 및 파운드화 동향



그림 8. 일본(日本) 증시 및 엔화 동향



그림 9. 중국(中國) 증시 및 위안화 동향



그림 10. 한국(韓國) 증시 및 채권시장 동향



위 <그림 6> ~ <그림 10>에서는 중앙은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해당 국가들의 주가, 금리, 환율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국채시장은 이미 국채수익률이 미국의 그것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하향안정세를 누려왔는데, 과연 ECB의 조치에 힘입어 더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부닥친다. 유로화가 이제 약세로 돌아설 것인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영국의 증시나 파운드/달러 환율은 지금부터가 승부임을 차트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기준 변경이라는 꿈을 동원해 증시를 떠받치고 엔화약세를 유지해 나가려는 일본의 노력은 눈물겹다. 중국 증시는 과연 지금까지의 무기력한 장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 가운데, 글로벌 달러시세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위안화 환율은 여전히 인민은행의 의중이 최대 변수임을 보여준다. 한국 금융시장은 새로운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의 취임 이후에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다음 방향성 결정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와중에 시장은 6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목하고 있다.

■ 짹짹하게 이어지는 ‘지정학적 위험’

시장과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 와중에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 내전이 악화되면서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 또 하나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태도가 아직 불분명하고, 이라크 사태는 이슬람 지역의 오래 묵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분쟁으로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 향후 전개 양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자료 11] 참조) 국제 유가의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지속적 관찰이 요구된다. 대형 투자은행(IB)들의 원자재 거래가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고 비철금속은 여전히 재고과잉에 시달리고 있어 상품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 안정적이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그림 11. 국제유가를 불안하게 하는 지정학적 위험 고조



기사 인용: 국민일보, 뉴시스 / 차트 인용: Infomax

2. 환율 전망

■ 글로벌 달러강세 가능성에 달러/원 환율도 하방경직성 강화

비록 ECB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기준금리 인하(0.25% → 0.15%) 및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지 누구도 쉽게 전망하기 힘든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까지 단행하고 있지만, BOE나 연준(Fed)은 앞으로 그들의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밍과 속도, 즉 언제부터(when)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며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디까지(how & where)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BOE나 Fed는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더라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리 높지 않은 수준까지 올릴 것임을 이른바 ‘포워드 가이드’를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연준이 양적 완화(QE) 종료에 이어 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예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면 이는 상식적으로 (물론 최근 몇 년간 국제금융시장 흐름이 늘 상식에 부합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달러화에는 강세 요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중동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도 경험상 美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변수다. 따라서 1,050원 붕괴 이후 1,010원대 중반까지 밀리는 동안 어느 정도 달러매물의 소화가 이뤄졌을 달러/원(USD/KRW) 환율도 대외변수만 살펴보았을 때에는 1,000원 아래까지의 추가하락보다는 이 정도 레벨에서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 강화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 현 정부 ‘2기 경제팀’의 환율정책 스탠스는 확인이 필요해

아직 인사 청문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으로 두 톱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경제관료 출신답게 전형적인 ‘성장 중시 시장주의자’로 인식되고 있어 2기 경제팀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고환율을 통한 수출 증대’이겠으나 최 후보자는 부총리에 지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놓은 환율 관련 발언에서 “지금껏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민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 경제성정을 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고환율을 통한 성장이 국민들의 이득에 기여하지 못해 왔다는 취지로 들리면서 시장은 곧 “내수 부양에 중점을 두는 차기 경제팀이 원화절상을 용인하는 것인가?”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서 최 후보자의 ‘고환율 지적’은 2008 ~ 2009년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현 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환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새 장관 취임 이후 환율정책 스탠스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달러/원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의지 및 개입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의지보다 국내 외환 수급(需給) 및 대외변수 변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시세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환율 변동 요인은 국내 주식시장의 동향임은 물론이다.

그림 12. 달러/원(USD/KRW) 및 엔/원(JPY/KRW) 재정환율 추이



차트 인용: Infomax, 6월 16일 장 마감 후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014년 5월 원자재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조정으로 다소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날씨 관련 이슈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서 원자재시장의 하락조정을 초래한 것이다. 원유시장은 리비아, 이라크 등 지역에서의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강보합을 유지했으며, 곡물시장은 우호적인 기후가 전개되어 옥수수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비철금속 및 금 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혼조 또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계절적 수요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경제의 회복세는 금시장에 대한 하락요인이다. 4월에 재고증가로 급락했던 에탄올시장은 5월 들어 다시 급등세를 나타냈다. 가솔린 소비가 증가하고 에탄올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에탄올 생산이 늘고 가격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 생산마진이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에탄올시장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4년 5월 평균 원자재지수는 최근 지속된 강세에 대한 조정으로 다소 하락했다. CRB지수(CRB Index)는 306.8을 기록하여 전월 308.6에 비해 0.6%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6.9% 상승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652.4로서 전월 653.2보다 0.1% 하락, 전년 동기보다는 4.0% 상승했다.

* hwaniipark@gmail.com, 02-3780-8220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287.1	308.6	306.8	6.9	-0.6
S&P GSCI	627.1	653.2	652.4	4.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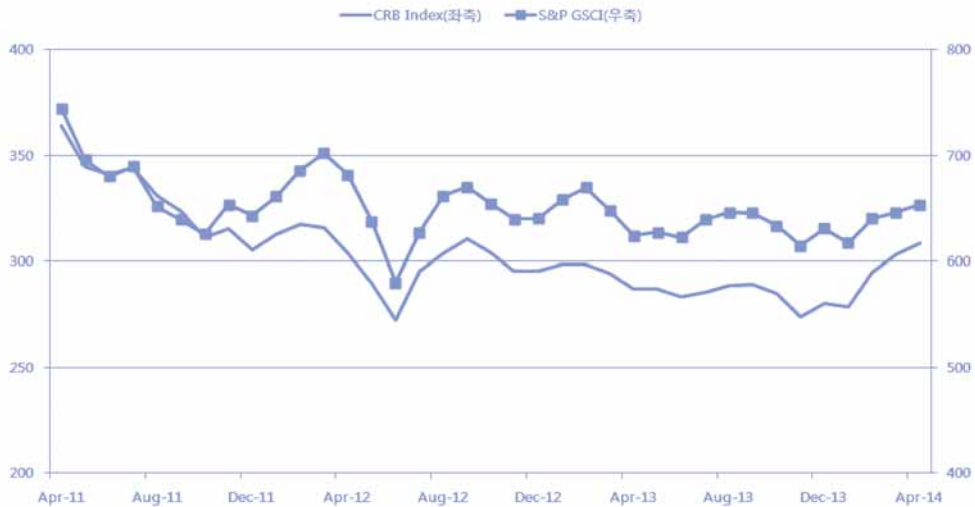
주: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지수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2014년 1월 이후 이어져온 원자재시장의 랠리는 5월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다. 4월까지 CRB Index는 10.7%, S&P GSCI는 5.8% 상승했고 주요 저항선이나 의미있는 지수 수준에 접근을 하면서 추가상승 기대감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5월 들어서는 그동안의 원자재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추가상승보다는 숨고르기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CRB Index 300이나 S&P GSCI 650은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향후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5월 원자재시장은 이전까지 영향을 미쳤던 재료이외에 새로운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월까지 곡물 및 에너지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나 날씨 관련 이슈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채 추가상승보다는 하락조정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재료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품목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4월까지 약세를 나타냈던 미국 달러화는 5월에는 강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원자재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4년 5월의 에너지시장은 뚜렷한 모멘텀 없이 4월의 방향성을 다소 희석시킨 상황이다. WTI원유의 5월 가격은 101.8달러/배럴로서 4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7.4%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는 5월 가격이 109.2달러/배럴로서 전월의 108.1달러/배럴에 비해 1% 높은 상태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리비아와 이라크에서는 주춤했던 내전 및 단체 간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면 원유시장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원유생산은 5월에도 기록갱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루 847만배럴을 생산하여 4월말보다 12만 배럴이 증가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는 1분기 중 선진국 원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9,276만배럴/일로 전월보다 6.5만배럴 상향 발표했다. 원유시장은 향후 강세요인이 다수 존재하지만 강한 상승세를 유도할지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상승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5월에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5월 가격은 4.5달러/백만Btu로서 전월보다 1.5% 하락했으며, 1년 전보다는 11.5%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4월에 영향을 미쳤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소 진정되는 상황이며, 5월에는 따뜻한 날씨로 인한 가격하락요인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크라이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추이에 대한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94.8	102.0	101.8	7.4	-0.2
브렌트유	103.3	108.1	109.2	5.7	1.0
천연가스	4.07	4.61	4.54	11.5	-1.5

주: WTI원유, 브렌트유는 달러/배럴, 천연가스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4월에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곡물시장은 5월에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5월의 옥수수 가격은 489.7센트/부셸로 전월보다 2.5% 하락했으며, 대두는 1,482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5% 하락했다. 옥수수의 가격 하락폭이 큰 상황으로 옥수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5월의 생육우는 137.7센트/파운드로 전월보다 1.4% 상승했다.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651.5	502.2	489.7	-24.8	-2.5
대두	1,437.9	1,489.2	1,482.1	3.1	-0.5
생육우	120.3	135.8	137.7	14.5	1.4

주: 옥수수, 대두는 센트/부셸, 생육우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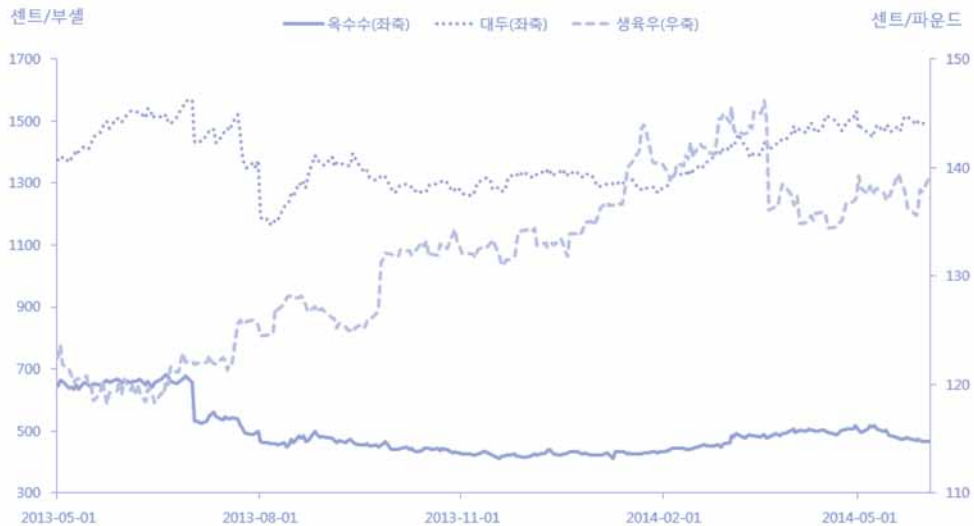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곡물시장은 2014년 들어 지속 상승했지만 5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가격상승을 이끌었던 이슈들이 차츰 해소되면서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었다. 미국 콘벨트 지역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 파종이 느려졌지만 5월에는 기후여건이 개선되면서 파종이 상당량 완료되었다. 5월 25일 기준 옥수수 파종은 88% 진행되었는데 작년 같은 시점의 84%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른 편이다. 또한 남부지역의 건조했던 기후 역시 비가 내리면서 건조문제도 해결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파종속도가 진전되고 기후가 우호적으로 변화되면서 곡물 기말재고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는 13/14년 옥수수 기말재고를 전월보다 6.6% 증가할 것으로 조정했으며, 14/15년 기말재고도 상향조정 발표했다. 하지만 옥수수 가격을 강세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엘니뇨 발생 확률도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여건에 따라 곡물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4월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생육우시장은 5월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4월에는 차익매물이 나오고 생육우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하락을 나타냈지만, 이후 공급자들의 공급 물량 감소와 여름철 과잉공급 기대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다시 강

세로 돌아섰다.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5월의 비철금속시장은 지난 4월에 이어 품목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리는 3월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 4월에는 보합세를 나타냈는데 5월에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5월 구리가격은 6,746달러/톤을 기록하여 4월에 비해 1.2% 상승했다. 4월에 4% 이상 급등했던 알루미늄은 5월에는 1,915달러/톤을 기록하여 전월보다 2.8% 하락했다. 금 가격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5월 가격은 1,288달러/온스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8% 하락했다.

비철금속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계절적인 수요증가 요인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경기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정책 실시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 8% 이하를 유지하여 과거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고 비철금속 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런던거래소의 구리재고는 17만톤으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구리가격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재고감소보다는 중국 파이낸싱 딜에 따른 재고이동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다.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고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5월 미국 제조업 PMI는 53.2를 기록하여 전월에 이어 경기 확장세를 유지했으며 내구재 주문,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상승하는 등 견실한 경기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함께 경기회복추세는 금시장에 대한 가격하락 압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5	2014.4	2014.5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993	1,971	1,915	-3.9	-2.8
구리	7,372	6,667	6,746	-8.5	1.2
금	1,417	1,299	1,288	-9.1	-0.8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4년 5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와 전월(2014년 4월) 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 소비세 증가의 청신호

미국 에탄올시장은 2014년 4월의 급락에서 벗어나 5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5월 마지막 주 가격은 235.5센트/갤런으로 4주 전 대비 9.3%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7.4% 하락한 상태이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3.5.27	2014.4.28	2014.5.26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254.2	215.5	235.5	-7.4	9.3

주: 에탄올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4년 5월 마지막 주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5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4년 4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5월 에탄올시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선 배경은 수요증가에 기인한다. 지난 4월 에탄올 가격 급락은 생산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요량으로 인해 에탄올 재고가 증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5월에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가솔린 소비가 증가하면서 에탄올 소비도 같이 확대되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의 에탄올 생산량은 하루 89만배럴을 기록했으나 5월 들어 90만배럴 이상으로 증가했다. 5월 마지막 주의 생산량은 93.8만배럴까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가솔린 소비량은 4월까지만 해도 하루 900만배럴 이하였으나 5월 9일 이후 900만배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5월 23일 가솔린 소비량은 931만배럴을 기록하면서 2013년 7월의 930만배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향후 에탄올시장은 다가오는 드라이빙 시즌에 가솔린 소비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옥수수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에탄올 가격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에탄올 생산업자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가솔린 수요에 따라 에탄올 생산량이 더욱 증가하여 에탄올 생산마진이 유지되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솔린 수요 증가에 따른 에탄올의 내수 소비 증가 이외에 최근 에탄올 수출물량이 늘면서 에탄올 생산활동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즉 가솔린 소비와 에탄올 수출에 따른 에탄올 및 옥수수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셸)
2014/2/28	894	16.6	8,411	13.56
2014/3/28	922	15.9	8,713	13.98
2014/4/25	898	17.1	8,693	13.62
2014/5/9	922	17.3	9,191	13.98
2014/5/16	925	17.0	9,174	14.03
2014/5/23	927	17.5	9,310	14.06
2014/5/30	938	18.3	9,104	14.22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차장)*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표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Wheat (a)	128.1	125.7	144.8	140.5	150.9	144.0
Coarse Grain (b)	112.3	117.0	124.8	125.2	142.2	142.3
Soybean (c)	91.4	91.7	92.2	100.6	111.0	112.3
Total (a+b+c)	331.8	334.4	361.8	366.3	404.1	398.6
전년 대비 증감률(%)	1.6	0.8	8.2	1.3	10.3	-1.4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2013/14 시즌 대두(Soybean)를 포함한 곡물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0% 가량 증가한 '404.1 백만 톤'으로 특히 옥수수(Corn)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며 2013년 하반기에 나타난 Panamax 와 Supramax 시황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해상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4% 감소한 '398.6 백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곡종별로 보면 옥수수(Corn)와 대두(Soybean) 물동량은 전 시즌과 큰 차이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맥(Wheat)의 물동량이 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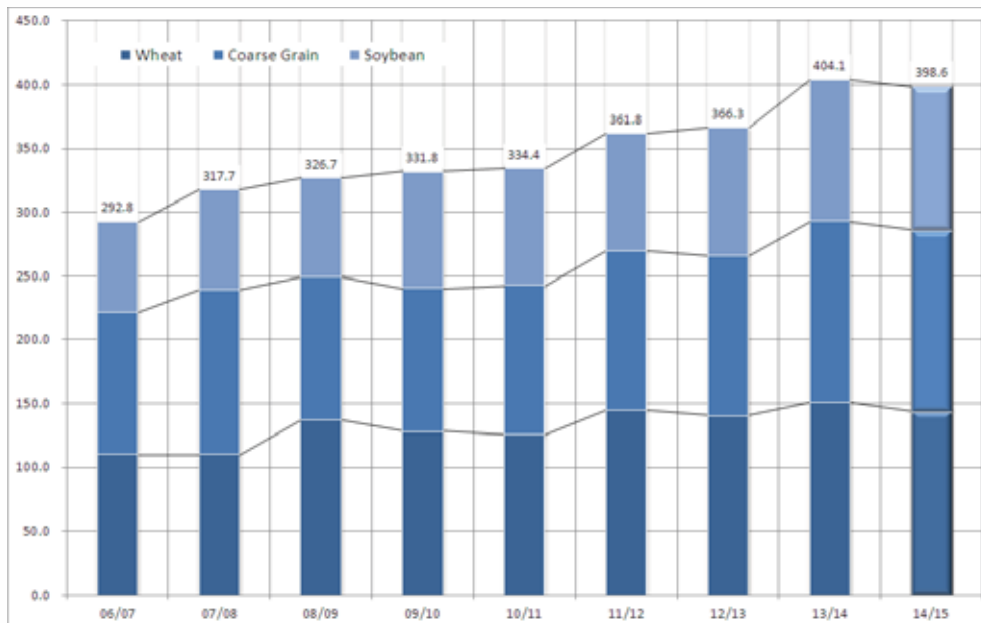
* ydjung@kamcosimc.com, 02-2189-5512.

즌 대비 4.6%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동 화물 주로 운송하는 50,000톤 급 이하 선박들의 운임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써 2011/12 시즌부터 곡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뒤 다음 해에는 증가 추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엘리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 이변과 곡가 급변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물동량 예측치 또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곡물 위원회(International Grain Council)’는 5월 29일자 보고서에서 2014/15 시즌 소맥(Wheat)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4.0% 가량 감소하는 한편 옥수수 물동량은 전 시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Clarkson’이나 ‘USDA’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으나 대두(Soybean) 물동량의 경우 12.5%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상기 두 기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수입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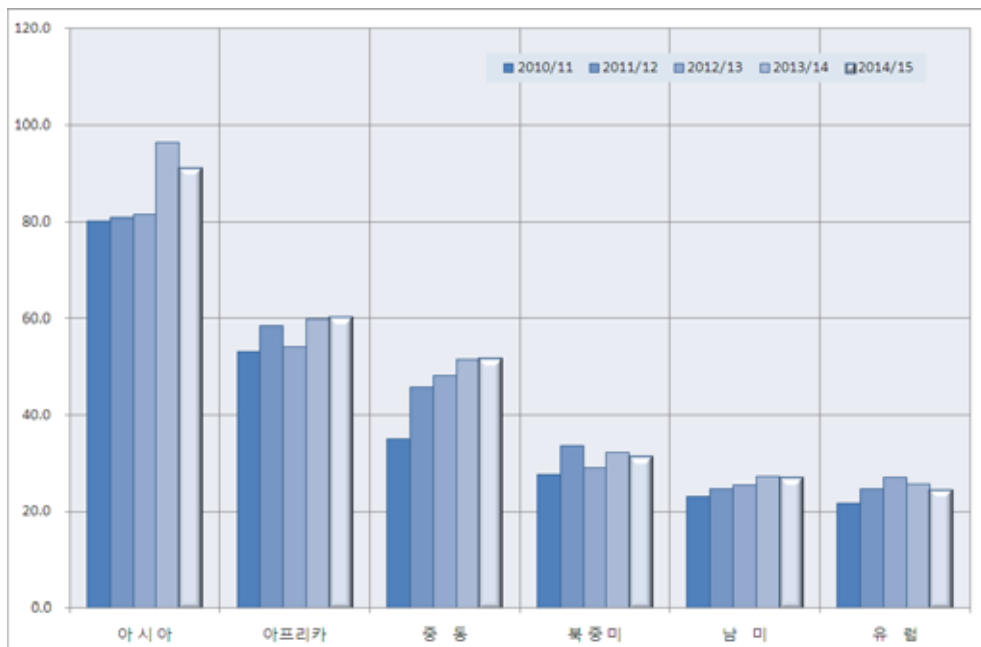
표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243	270	266	293	286	-2.4
아 시 아	80.2	80.9	81.4	96.4	91.1	-5.5
아프리카	53.1	58.6	54.2	59.7	60.3	1.0
중 동	34.9	45.7	48.0	51.4	51.6	0.4
북 중 미	27.7	33.7	29.0	32.3	31.4	-2.8
남 미	23.1	24.8	25.6	27.3	27.1	-0.7
유 럽	21.8	24.8	26.9	25.7	24.6	-4.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그림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영국의 해운 리서치 기관인 'Clarkson'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륙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일단 아시아 지역의 수입량이 전 시즌 '96.4 백만 톤' 대비 5.5% 가량 감소한 '91.1 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작황 개선 등의 원인으로 전 시즌 대비 33% 가량 크게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대 곡물 수입국인 일본의 수입량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한국의 수입량은 5% 증가한 '13.8 백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15 시즌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지역의 곡물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거의 변동이 없을 전망이며 유럽의 경우 러시아 지역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입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수출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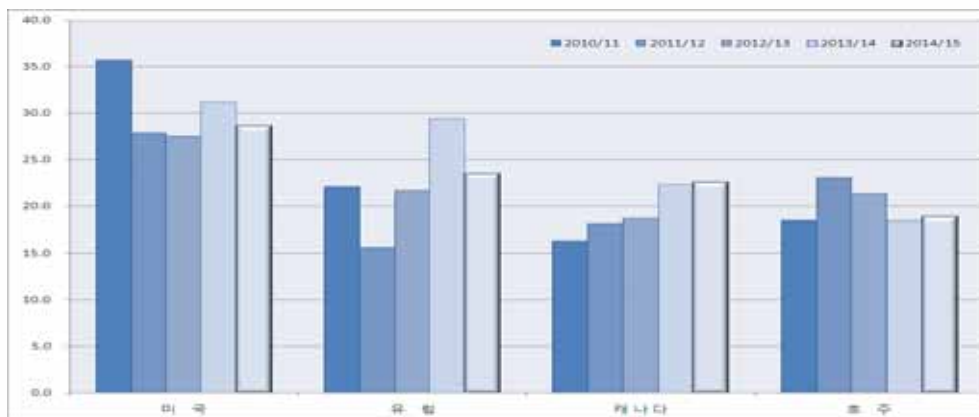
표 3. 주요 국가별 수매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25.7	144.8	140.5	150.9	144.0	-4.6
미 국	35.7	27.9	27.5	31.2	28.6	-8.3
유 럽	22.1	15.6	21.7	29.4	23.5	-20.1
캐 나 다	16.3	18.2	18.7	22.3	22.6	1.3
호 주	18.5	23.1	21.3	18.5	18.9	2.2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그림 3. 주요 국가별 수매 수출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2014/15 시즌 전 세계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4.6% 감소한 '144.0 백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 국가별로는 유럽의 수출량이 20%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공급 요인이 아닌 주변 국가들의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량 또한 8.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주와 캐나다의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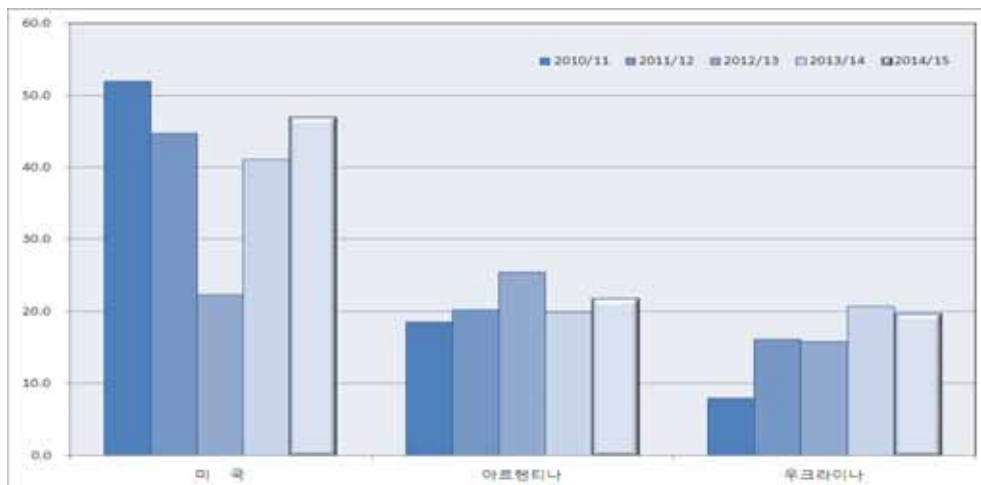
표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17.0	124.8	125.2	142.2	142.3	0.1
미 국	52.0	44.7	22.3	41.1	47.0	14.4
아르헨티나	18.5	20.2	25.4	19.9	21.8	9.5
우크라이나	7.9	16.1	15.8	20.8	19.7	-5.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그림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주로 사료용 옥수수로 구성된 Coarse Grain 물동량의 경우 2014/15 시즌 물동량이 전 시즌과 거의 변동 없는 '142.3 백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국별로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각각 14.4%와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정정 불안 등의 원인으로 수출량이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Panamax 와 Supramax 운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전 시즌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운임 상승이 금년에도 나타날 것을 많은 선주들은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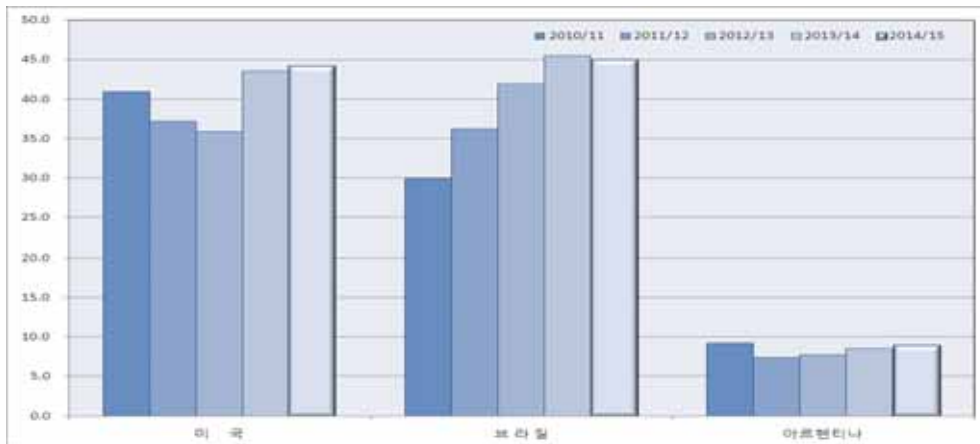
표 5. 주요 국가별 Soybean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91.7	92.2	100.6	111.0	112.3	1.2
미 국	41.0	37.2	35.9	43.5	44.2	1.6
브 라 질	30.0	36.3	41.9	45.5	45.0	-1.1
아르헨티나	9.2	7.4	7.7	8.5	9.0	5.9

자료: USDA

그림 5. 주요 국가별 Soybean 수출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2014/15 시즌 대두(Soybean)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소폭 증가한 '112.3 백만 톤' 에 이를 전망이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수출량이 1.6% 증가하는 반면 브라질의 수출량은 1.1% 감소하며 두 국가의 순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15 시즌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사상 처음으로 7천만 톤을 넘을 전망이며 이는 전 세계 대두 물동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철광석을 주로 운송하는 Cape 선형에 이어 Panamax 와 Supramax 운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 만큼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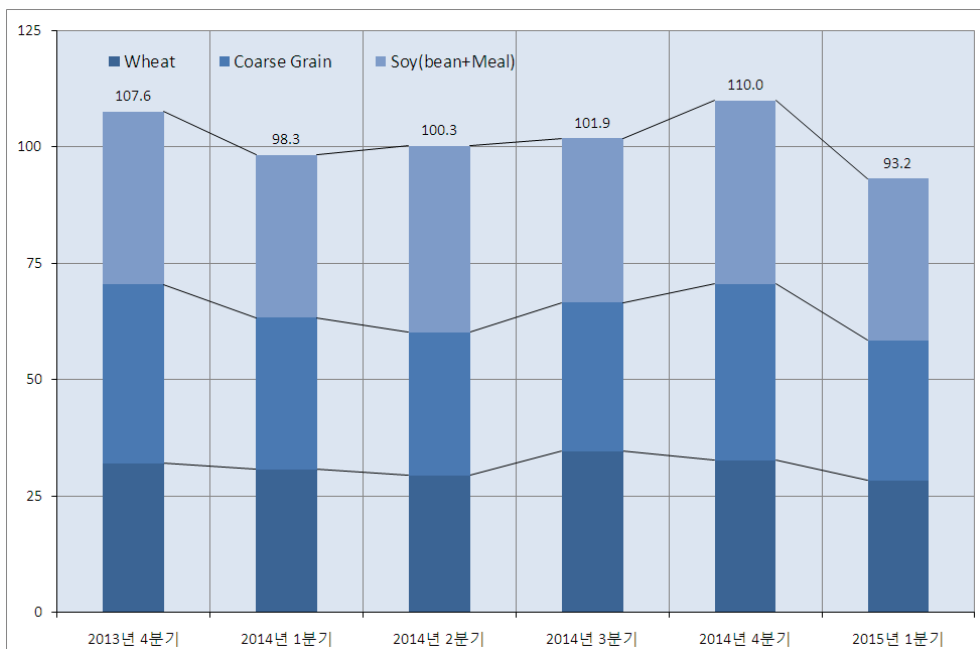
표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Wheat	32.0	30.7	29.4	34.6	32.7	28.3
Coarse Grain	38.5	32.6	30.8	32.0	37.9	30.2
Soy(bean+Meal)	37.1	35.0	40.1	35.3	39.4	34.7
Total	107.6	98.3	100.3	101.9	110.0	93.2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MAY, 2014.

그림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MAY, 2014.

영국의 다른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SSY(Simpton Spence & Young)'가 제시하고 있는 분기별 곡물 물동량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물동량이 많으며 특히 매년 4분기에 곡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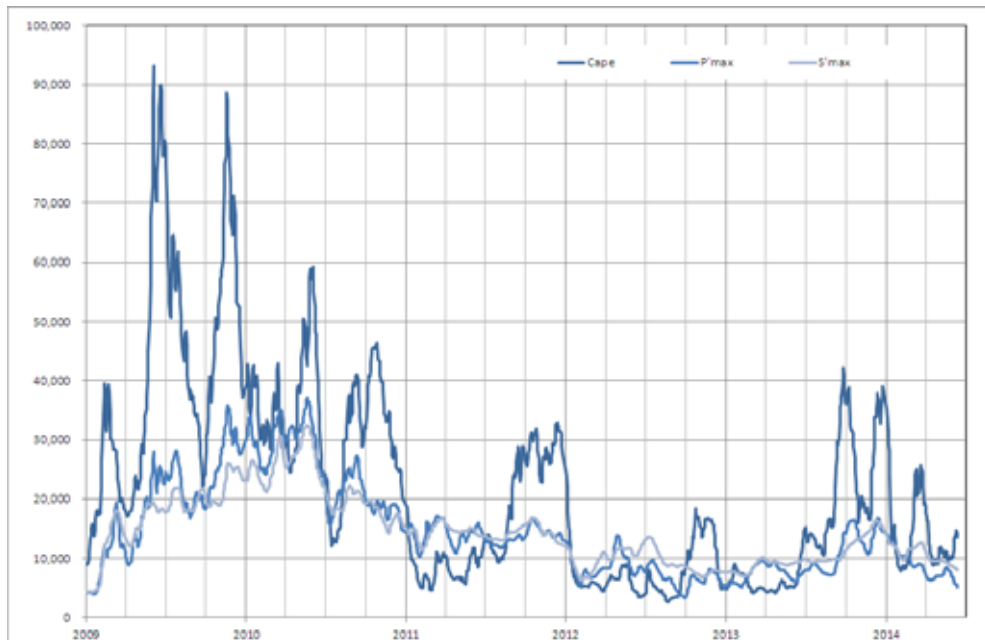
이는 곡물 뿐 아니라 전체 건화물 물동량의 약 30%와 25%를 차지하는 철광석과 석탄 화물 물동량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으로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되어 인도되는 선박량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적음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운임이 상승할 주요한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며 현재 운임 선물 시장(Forward Freight Market)에서는 4분기 용선료가 현물 대비 거의 2배 가량 높은 극심한 Contango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곡물 메이저 등 주요 화주들은 4분기를 겨냥하여 기간 용선 선박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움직임들이 목격되고 있다.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최근 건화물선 시장

그림 7. 최근 건화물선 선형별 용선료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Cape 선형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중국 항만의 철광석 재고가 거의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철광석 가격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주요 제철소들은 철광석 수입을 자제하고 있고 이는 Cape 시황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 정부의 원자재 담보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한편 금융권에서도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지 않는 등 수입 여건이 계속 악화되며 단기적인 Cape 시황 하락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anamax 시황의 경우 용선료가 20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운항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선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선주들은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싱가포르나 중국 근해에 선박을 세워놓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Supramax 시황 또한 약세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Panamax 선형에 비해 용선료는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시황은 철광석 화물 물동량이 10%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Cape 선복 증가율은 4% 수준에 그치며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형선을 중심으로 작년과 같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황 상승 시점은 중국의 철광석 재고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한편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는 시점으로 예상되며, Cape 시황 상승에 따라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며 Panamax 와 Supramax 시황 또한 동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표 7. 수역별 · 기간별 곡물 운임 현황

단위: US\$/MT

기 간		USG 운임	PNW 운임
2014년	7월	45.87	26.13
	8월	47.38	27.05
	9월	51.03	28.59
	3분기	48.09	27.26
	4분기	52.78	30.21
2015년		52.41	29.86
2016년		52.76	30.02

자료: 캄코선박운용(주)

‘세계 곡물 협회(International Grain Council)’에 따르면 6월 10일 기준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일본에서 양하하는 이른바 ‘USG 운임’은 톤 당 ‘\$44’ 선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사 계산으로 2014년 6월 13일 현재 ‘USG 운임’은 톤 당 ‘\$43.73’으로 계산되는 한편 미국 서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한국에서 양하하는 ‘PNW 운임’은 톤 당 ‘\$24.89’ 선으로 산출된다.

선물 운임의 경우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현물 대비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금년 3분기 USG 운임은 현물 대비 톤 당 ‘\$4.36’ 높은 ‘\$48.09’ 수준으로 보이며 이론적으로 4분기 운임은 톤 당 ‘\$50.0’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된다.

Panamax 선형의 경우 선주들이 추가 용선료 하락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박 운항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운임은 거의 저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반등이 예상된다.

한편 금년 하반기 곡물 운임은 곡물 물동량이나 Panamax 와 Supramax 선복 공급량인 자체적인 수요 공급 요인보다는 Cape 시황 변동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이는 운임에 대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part

0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4 World Grain Market



유전자 변형 작물의 국제 현황과 이슈 / 73

USDA 세계 곡물 교역 장기전망 / 94

유전자 변형 작물의 국제 현황과 이슈

김승규(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유전자 변형 작물의 도입을 통한 세계 식량난의 해소와 식량 안보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새로운 기술의 이용에 따른 식품 안전성과 환경문제,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치열하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생산 현황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국가의 노력, 식량 안보와 관련한 유전자 변형 작물 생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본다.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1인당 곡물 요구량의 증대에 반해 농경지는 감소하고 있어 이는 1인당 경지 면적의 감소를 가져와 인류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경지 면적당 생산성 증대 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유전자 변형 작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다(박효근, 2009).

2005년의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에 따르면 약 2억 5천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약 8억 인구가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GMO작물은 짧은 생육기간, 적은 화학비료 투입량, 병해충, 냉해 및 가뭄에 대한 내성, 우수한 영양성을 포함한 생산성 증대로 GMO작물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자유무역 및 세계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저개발국가의 저효율 가족농을 해체하고 중국에는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산업화된 식품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어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이익은 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원의원 George McGovern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기업은 돈을 벌기위한 집단이기 때문

* sgkimwin@knu.ac.kr, 053-950-5769.

에 “사기업에 의한 식량안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과 더불어 저개발국가의 가난과 기아에 GMO작물 도입이 하나의 대책일 수 있으나 그들에게 GMO작물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도입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균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1. 유전자 변형 작물 국제 현황

■ GMO작물 생산 현황

〈표 1〉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의 GMO작물 재배면적을 나타낸다. 세계적으로 GMO작물 재배면적은 1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변화를 보면 1996년 170만 헥타르(ha)에서 2012년 1억 7,000만 헥타르(ha)로 약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하여 약 1,000만 헥타르(ha)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세계 GMO 작물의 재배면적 추이(1996년~2012년)

Year	Hectares(million)	Acres(million)
1996	1.7	4.3
1997	11.0	27.5
1998	27.8	69.5
1999	39.9	98.6
2000	44.2	109.2
2001	52.6	130.0
2002	58.7	145.0
2003	67.7	167.2
2004	81.0	200.0
2005	90.0	222.0
2006	102.0	252.0
2007	114.3	282.0
2008	125.0	308.8
2009	134.0	335.0
2010	148.0	365.0
2011	160.0	395.0
2012	170.3	420.8
Total	1,427.3	3,531.8

자료: James(2012)

〈표 2〉는 GMO작물을 생산하는 28개 국가들의 2011년과 2012년의 GMO작물 재배면적을 나타낸다. GMO작물의 재배면적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순이다.

표 2. 국가별 GMO작물 재배면적 비교(2011년, 2012년)

(백만 Hectares)

	Country	재배면적 (2011)	%	재배면적 (2012)	%	증감	%
1	USA*	69.0	43	69.5	41	+0.5	+1
2	Brazil*	30.3	19	36.6	21	+6.3	+21
3	Argentina*	23.7	15	23.9	14	+0.2	+1
4	Canada*	10.4	7	11.6	7	+1.2	+12
5	India*	10.6	7	10.8	6	+0.2	+2
6	China*	3.9	2	4.0	2	+0.1	+3
7	Paraguay*	2.8	2	3.4	2	+0.6	+21
8	South Africa*	2.3	1	2.9	2	+0.6	+26
9	Pakistan*	2.6	2	2.8	2	+0.2	+8
10	Uruguay*	1.3	1	1.4	1	+0.1	+8
11	Bolivia*	0.9	1	1.0	1	+0.1	+11
12	Philippines*	0.6	<1	0.8	<1	+0.2	-
13	Australia*	0.7	<1	0.7	<1	<0.1	-
14	Burkina Faso*	0.3	<1	0.3	<1	<0.1	-
15	Myanmar*	0.3	<1	0.3	<1	-	-
16	Mexico*	0.2	<1	0.2	<1	-	-
17	Spain*	0.1	<1	0.1	<1	-	-
18	Chile*	<0.1	<1	<0.1	<1	<0.1	-
19	Colombia	<0.1	<1	<0.1	<1	<0.1	-
20	Honduras	<0.1	<1	<0.1	<1	<0.1	-
21	Sudan	<0.1	<1	<0.1	<1	<0.1	-
22	Portugal	<0.1	<1	<0.1	<1	<0.1	-
23	Czech Republic	<0.1	<1	<0.1	<1	<0.1	-
24	Cuba	<0.1	<1	<0.1	<1	<0.1	-
25	Egypt	<0.1	<1	<0.1	<1	<0.1	-
26	Costa Rica	<0.1	<1	<0.1	<1	<0.1	-
27	Romania	<0.1	<1	<0.1	<1	<0.1	-
28	Slovakia	<0.1	<1	<0.1	<1	<0.1	-
	Total	160.0	100	170.3	100	+10.3	+6

주: *는 GMO작물 재배면적 50,000 헥타르(ha) 이상의 국가
자료: James(2012)

GMO작물 재배면적 상위 10개 국가의 주요 현황과 해당 국가들의 상업화된 GMO작물과 일정기간 동안에 GMO작물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주로 재배되는 GMO작물은 콩, 면화, 옥수수, 카놀라 등이 있다. 이 네 가지 작물의 전체 생산량에 대한 GMO 품종의 생산량의 비율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GMO 콩은 총 11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콩 전체 생산량의 81%가 GMO 품종이다. 면화는 15개 국가에서 재배되며, 전체 생산량의 81%가 GMO 품종이며, 옥수수와 카놀라는 각각 17개 국가와 4개 국가에서 전체 생산량 대비 35%, 30% 정도가 GMO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다.

표 3. GM작물 재배면적 상위 10개국의 주요 현황

	1인당 GDP (US\$)	농업의 GDP 비중	농업 GDP (백만\$)	농업종사자 비율	경지면적 (백만 ha)	경지면적/총인 구
USA	46,350	1	140.9	2%	178.0	2.40
Brazil	8,210	7	110	21%	59.6	1.30
Argentina	8,240	10	32.8	1%	33.2	3.30
Canada	45,070	3	45	3%	49.9	6.00
India	1,020	17	197	64%	177.5	0.60
China	3,270	11	476	41%	143.5	0.45
Paraguay	2,130	19	2.7	27%	4.3	3.00
S. Africa	5,680	3.3	16.2	9%	14.8	1.30
Pakistan	990	20	33	44%	22.5	0.50
Uruguay	9,010	10	3.2	11.1%	1.35	1.60

상업화된 GMO작물 현황		GMO작물 생산의 농업소득(백만\$)
USA	Maize, Soybean, Canola, Cotton, Squash, Papaya, Potato, Sugarbeet	43.6 (1996-2011)
Brazil	Soybean, Cotton, Maize	6.6 (2003-2011)
Argentina	Soybean, Cotton, Maize	14 (1996-2011)
Canada	Canola, Maize, Soybean, Sugarbeet	4 (1996-2011)
India	Cotton	12.6 (2002-2011)
China	Cotton, Poplar, Papaya, Sweet Pepper, Tomato	13 (1997-2011)
Paraguay	Soybean, Maize, Cotton	0.732 (2004-2011)
S. Africa	Cotton, Maize, Soybean	0.922 (1998-2011)
Pakistan	Cotton	-
Uruguay	Soybean, Maize	0.101 (2000-2011)

자료: James(2012)

그림 1. 주요 GMO작물



자료: James(2012)

■ 세계 곡물 수급 현황

옥수수과 대두의 상당량이 GMO작물로 경작되고 있기 때문에 두 곡물에 대한 세계 수급량을 통해 GMO작물 중 곡물에 대한 수급 동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 옥수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재환 외(2009)에 따르면 2008/2009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7억 9,500만 톤으로 2002/2003년 6억 2,600만 톤에 비해 27.0% 증가하였고,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4.1%이다. 반면 재고량은 연평균 2.3%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의 재고량은 46.8%, EU는 52.1% 감소했다. 2008/2009년 세계 옥수수 재고율은 지난 6년 동안 가장 낮은 13.8% 수준이다. <표 4>는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천 ha, 천 톤)

국가	항목	2002/2003	2004/2005	2006/2007	2008/2009
세계	재배면적	137,904	145,140	149,821	157,507
	생산량	603,555	715,770	712,442	781,359
	재고량(A)	126,587	132,054	108,689	110,123
	공급량	829,896	897,675	928,145	988,254
	소비량(B)	626,595	687,978	725,657	795,804
	재고율(A/B)	20.2%	19.2%	15.0%	13.8%
미국	재배면적	28,057	29,798	28,590	31,637
	생산량	227,767	299,914	267,598	305,319
	재고량(A)	27,603	53,697	33,114	28,552
	공급량	268,685	324,526	317,870	346,955
	소비량(B)	200,748	224,648	230,769	270,141
	재고율(A/B)	13.8%	23.9%	14.3%	10.6%
중국	재배면적	24,634	25,446	28,463	29,200
	생산량	121,300	130,290	151,600	156,000
	재고량(A)	64,973	36,555	36,602	36,994
	공급량	206,117	175,144	186,871	195,494
	소비량(B)	125,900	131,000	145,000	158,000
	재고율(A/B)	51.6%	27.9%	25.2%	23.4%

국가	항목	2002/2003	2004/2005	2006/2007	2008/2009
브라질	재배면적	12,956	11,561	14,000	14,300
	생산량	44,500	35,000	51,000	55,000
	재고량(A)	6,258	4,192	3,592	12,242
	공급량	46,683	43,374	55,428	68,742
	소비량(B)	35,800	38,500	41,000	47,500
	재고율(A/B)	17.5%	10.9%	8.8%	25.8%
아르헨티나	재배면적	2,450	2,780	2,800	2,570
	생산량	15,500	20,500	22,500	18,000
	재고량(A)	529	956	1,657	507
	공급량	15,828	20,730	23,666	18,507
	소비량(B)	4,100	5,200	6,700	7,500
	재고율(A/B)	12.9%	18.4%	24.7%	6.8%
EU	재배면적	8,995	9,677	8,492	8,849
	생산량	57,660	66,471	53,829	59,486
	재고량(A)	5,501	8,108	7,382	3,887
	공급량	63,833	71,986	70,346	66,387
	소비량(B)	57,576	63,200	62,300	60,500
	재고율(A/B)	9.6%	12.8%	11.8%	6.4%

자료: USDA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SD Online.

대두의 경우에는 지난 6년간 세계 대두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8/2009년 세계 대두 소비량은 1억 9,000만 톤에서 2억 3,000만 톤으로 22.1%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6년간 소비량은 연평균 3.4%, 재고량은 3.9% 증가하고 있어 옥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어 있다<표 5>.

표 5. 세계 대두 수급동향

(천 ha, 천 톤)

국가	항목	2002/2003	2004/2005	2006/2007	2008/2009
세계	재배면적	82,305	93,176	94,293	98,242
	생산량	196,855	215,758	237,328	235,741
	재고량(A)	42,861	47,427	62,676	54,063
	공급량	295,304	317,067	359,459	365,891
	소비량(B)	191,461	204,853	225,281	233,957
	재고율(A/B)	22.4%	23.2%	27.8%	23.1%

국가	항목	2002/2003	2004/2005	2006/2007	2008/2009
미국	재배면적	29,339	29,930	30,190	30,098
	생산량	75,010	85,013	86,770	79,486
	재고량(A)	4,853	6,960	15,617	5,577
	공급량	80,800	88,224	99,245	85,257
	소비량(B)	47,524	51,404	53,242	51,920
	재고율(A/B)	10.2%	13.5%	29.3%	10.7%
중국	재배면적	9,546	9,590	9,280	9,300
	생산량	16,510	17,400	15,967	16,800
	재고량(A)	4,467	4,700	2,700	4,720
	공급량	40,022	45,302	49,266	57,044
	소비량(B)	35,290	40,212	46,120	51,874
	재고율(A/B)	12.7%	11.7%	5.9%	9.1%
브라질	재배면적	18,448	22,917	20,700	21,500
	생산량	52,000	53,000	59,000	60,000
	재고량(A)	16,636	16,658	18,190	18,350
	공급량	65,914	68,982	75,694	79,150
	소비량(B)	29,649	32,187	34,019	35,100
	재고율(A/B)	56.1%	51.8%	53.5%	52.3%
아르헨티나	재배면적	12,600	14,400	16,300	18,000
	생산량	35,500	39,000	48,800	50,500
	재고량(A)	14,262	15,976	22,606	22,773
	공급량	47,699	54,307	67,259	75,761
	소비량(B)	24,813	28,763	35,094	37,788
	재고율(A/B)	57.5%	55.5%	64.4%	60.3%
EU	재배면적	343	394	494	275
	생산량	993	1,086	1,228	750
	재고량(A)	876	757	1,118	806
	공급량	19,010	16,531	17,252	15,696
	소비량(B)	18,111	15,739	16,087	14,860
	재고율(A/B)	4.8%	4.8%	6.9%	5.4%

자료: USDA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SD Online.

■ 우리나라의 GMO작물 수입 현황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식용 및 사료용 GMO작물 수입물량이 784만 톤 정도이다. 그 중 식용 GMO작물 수입 물량은 191만 5,000톤이고, 사료용 GMO작물 수입

물량은 식용 GMO작물 수입물량의 3배 정도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식용 및 사료용 GMO작물 수입 현황은 <표 6>과 같다(성명환 외, 2013).

표 6. 식용 및 사료용 GMO작물 수입 현황

(천 톤, 백만 달러)

연도	전체		식용		사료용	
	계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9	7,280	1,774	1,372	500	5,908	1,274
2010	8,482	2,137	1,916	620	6,567	1,517
2011	7,853	2,706	1,875	808	5,978	1,899
2012	7,840	2,672	1,915	845	5,925	1,827

자료: LMO 국가통합정보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2012)

2012년 수입이 승인된 식용 GMO작물은 대두와 옥수수가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도 면화, 카놀라, 알팔파, 감자, 사탕무를 포함 7개 품목을 수입 승인하였다. 여기서 식용 GMO 대두는 88만 2,000톤, 식용 GMO 옥수수는 103만 4,000톤으로 이 두 작물이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였다. <표 7>은 식용 GMO작물별 수입 승인 현황이다(성명환 외, 2013).

표 7. 식용 GMO작물별 수입 승인 현황

(천 톤, 백만 달러)

연도	계	금액	옥수수		대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9	1,372	500	471	82	901	498
2010	1,916	620	993	233	923	388
2011	1,875	808	1,025	343	850	464
2012	1,915	885	1,034	318	882	527

자료: LMO 국가통합정보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2012)

사료용 GMO의 경우에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로 5개 품목이 수입 승인되었고, 물량은 전체의 약 76%로 옥수수와 면실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두와 카놀라 등이 소량 수입되었다. 사료용 GMO 옥수수 수입 물량은 577만

9,000톤, 사료용 GMO 면실류 수입 물량은 14만 6,000톤에 달한다. <표 8>은 사료용 GMO작물별 수입 승인 현황이다(성명환 외, 2013).

표 8. 사료용 GMO작물별 수입 승인 현황

(천 톤, 백만 달러)

연도	계	금액	면실류		옥수수		대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9	5,908	1,274	98	31	5,810	1,244	-	-
2010	6,567	1,517	119	37	6,448	1,480	0.2	0.089
2011	5,978	1,899	130	38	5,847	1,860	0.5	0.132
2012	5,925	1,827	146	44	5,779	1,783	0.001	0.001

자료: LMO 국가통합정보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2012)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GMO 작물 중 약 36%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브라질에서 약 32%, 아르헨티나에서 약 15%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GMO작물 수입국의 다원화로 호주, 파라과이, 필리핀 등지에서도 GMO작물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MO작물 국가별 수입량은 <표 9>와 같다(성명환 외, 2013).

표 9. 우리나라의 GMO작물 국가별 수입량

(천 톤, 백만 달러)

국가	계		옥수수		대두		면실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USA	2,841	1,025	2,417	776	392	238	33	11
Brazil	2,458	836	2,082	617	376	230	-	-
Argentina	1,189	362	1,189	362	-	-	-	-
Etc.	1,351	450	1,125	347	114	69	112	34

자료: LMO 국가통합정보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2012)

2. GMO작물의 식품안전성

■ GMO작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주요 이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골라 다른 생물체에 삽입함으로써 전에 없던 품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철호 외(2009)에 의하면 개발된 작물의 안전성은 신규성, 알레르기성, 항생제 내성, 독성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평가된다. 식품에서 특정 성분이 기존에 없던 것이거나 양이 다를 경우에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가 필요한 범위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신규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에 대한 실험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된 GMO작물이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성분상의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간주한다.

독성 이외에도 GMO작물은 알레르기성, 항생제 내성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성분이지만 일부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GMO 작물을 식품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 또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최양도, 2002)

■ GMO작물 승인 현황

세계 각국은 GMO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과학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토대로 활발한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GMO 작물의 수입을 승인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스위스,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총 26개국이다(임송수, 2013). 주요 국가들의 GMO 작물 승인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국의 GMO작물 승인 현황(2013)

		Argentina	Australia/ New Zealand	Brazil	Canada
Roundup Ready Alfalfa	Monsanto	—	Food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Roundup Ready Canola	Monsanto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Roundup Ready Sugar Beet	Monsanto	—	Food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Roundup Ready Soybeans	Monsanto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Soybean Liberty Link LL27	Bayer Crop Sciences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Soybean Liberty Link LL55	Bayer Crop Sciences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Rootworm Protection Maize	Dow Agro Sciences	—	Food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CV127 soybean	BASF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Soybean FG72	Bayer Crop Sciences/Syngenta	—	Food	—	Food, Feed/Cultivation
Enogen Corn	Syngenta	—	Food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Agrisure Viptera Corn	Syngenta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Bt11 Corn	Syngenta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Insect Resistant Corn	Dupont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High Oleic Soybean	Dupont	—	Food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China	Colombia	Honduras	European Union
Roundup Ready Alfalfa	Monsanto	—	—	—	—
Roundup Ready Canola	Monsanto	Food, Feed, Safety Certificate	—	—	Food, Feed
Roundup Ready Sugar Beet	Monsanto	Food, Feed, Safety Certificate	Food, Feed	—	Food, Feed
Roundup Ready Soybeans	Monsanto	Food, Feed, Safety Certificate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Food, Feed
Soybean Liberty Link LL27	Bayer Crop Sciences	Food, Feed	Submitted in progress	—	Food, Feed
Soybean Liberty Link LL55	Bayer Crop Sciences	—	Submitted in progress	—	Food, Feed
Rootworm Protection Maize	Dow Agro Sciences	Safety Certificate	Food	—	Food, Feed
CV127 soybean	BASF	Food, Feed, Safety Certificate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Food, Feed(Approval Pending)
Soybean FG72	Bayer Crop Sciences/Syngenta	—	—	—	—
Enogen Corn	Syngenta	Food, Feed, Safety Certificate	—	—	—
Agrisure Viptera Corn	Syngenta	—	Food, Feed	—	Food, Feed
Bt11 Corn	Syngenta	Food, Feed, Safety Certificate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Food, Feed
Insect Resistant Corn	Dupont	Safety Certificate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ood, Feed
High Oleic Soybean	Dupont	Safety Certificate	—	—	—

		Mexico	Paraguay	Philippines	Russian Federation
Roundup Ready Alfalfa	Monsanto	Food, Feed	—	Food, Feed	—
Roundup Ready Canola	Monsanto	Food, Feed	—	Food, Feed	—
Roundup Ready Sugar Beet	Monsanto	Food	—	Food, Feed	Food
Roundup Ready Soybeans	Monsanto	Environmental/Cultivation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Food, Feed	Food, Feed
Soybean Liberty Link LL27	Bayer Crop Sciences	Food, Feed	—	Food, Feed	Food, Feed
Soybean Liberty Link LL55	Bayer Crop Sciences	Food, Feed	—	Food, Feed	Food, Feed
Rootworm Protection Maize	Dow Agro Sciences	Food, Feed	—	Food, Feed	—
CV127 soybean	BASF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Approval Pending)	Food, Feed	Food, Feed
Soybean FG72	Bayer Crop Sciences/Syngenta	—	—	—	—
Enogen Corn	Syngenta	Food, Feed	—	Food, Feed	Food, Feed
Agrisure Viptera Corn	Syngenta	Food, Feed	—	Food, Feed	Food, Feed
Bt11 Corn	Syngenta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Food, Feed	Food, Feed
Insect Resistant Corn	Dupont	Food, Feed	—	Food, Feed	—
High Oleic Soybean	Dupont	Food, Feed	—	—	—

		Indonesia	Japan	Korea	Malaysia
Roundup Ready Alfalfa	Monsanto	–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
Roundup Ready Canola	Monsanto	–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
Roundup Ready Sugar Beet	Monsanto	–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	–
Roundup Ready Soybeans	Monsanto	Food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Food, Feed
Soybean Liberty Link LL27	Bayer Crop Sciences	Food, Feed	Food, Feed	Food, Feed	Food, Feed
Soybean Liberty Link LL55	Bayer Crop Sciences	–	Food, Feed	Food, Feed/ Environmental/Cul tivation	–
Rootworm Protection Maize	Dow Agro Sciences	–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
CV127 soybean	BASF	Food (Approval Pending)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Approval Pending)
Soybean FG72	Bayer Crop Sciences/ Syngenta	–	–	–	–
Enogen Corn	Syngenta	Food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
Agrisure Viptera Corn	Syngenta	Food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Environmental/ Import, Food	–
Bt11 Corn	Syngenta	Food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Food
Insect Resistant Corn	Dupont	–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
High Oleic Soybean	Dupont	–	Environmental/ Import, Food, Feed	Food, Feed	–

		Singapore	South Africa	Switzerland	Taiwan
Roundup Ready Alfalfa	Monsanto	Feed	—	—	—
Roundup Ready Canola	Monsanto	Food, Feed	—	—	—
Roundup Ready Sugar Beet	Monsanto	Food, Feed	—	—	—
Roundup Ready Soybeans	Monsanto	Food, Feed	Environmental/ Cultivation, Food, Feed	—	Food
Soybean Liberty Link LL27	Bayer Crop Sciences	Food, Feed	Food, Feed	—	Food
Soybean Liberty Link LL55	Bayer Crop Sciences	—	—	—	Food
Rootworm Protection Maize	Dow Agro Sciences	Food, Feed	—	—	Food
CV127 soybean	BASF	Food, Feed (Approval Pending)	Environmental/ Cultivation, Food, Feed	—	Food
Soybean FG72	Bayer Crop Sciences/ Syngenta	—	—	—	—
Enogen Corn	Syngenta	—	—	—	Food
Agrisure Viptera Corn	Syngenta	Food, Feed	—	—	Food
Bt11 Corn	Syngenta	—	Environmental/ Cultivation, Food, Feed	Food, Feed	Food
Insect Resistant Corn	Dupont	Food, Feed	Environmental/ Cultivation, Food, Feed	—	Food
High Oleic Soybean	Dupont	Food, Feed	Food, Feed	Food, Feed	Food

		Thailand	US	Uruguay
Roundup Ready Alfalfa	Monsanto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Roundup Ready Canola	Monsanto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Roundup Ready Sugar Beet	Monsanto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Roundup Ready Soybeans	Monsanto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Soybean Liberty Link LL27	Bayer Crop Sciences	—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Soybean Liberty Link LL55	Bayer Crop Sciences	—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Rootworm Protection Maize	Dow Agro Sciences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CV127 soybean	BASF	Food, Feed(Approval Pending)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Approval Pending)
Soybean FG72	Bayer Crop Sciences/Syngenta	—	Food, Feed	—
Enogen Corn	Syngenta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Agrisure Viptera Corn	Syngenta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Bt11 Corn	Syngenta	—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Insect Resistant Corn	Dupont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High Oleic Soybean	Dupont	Food	Environmental/Cultivation, Food, Feed	—

자료: GMO Answers(2013)

■ GMO작물 표시제 현황

GMO작물이 개발되고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이들 작물의 인체 또는 환경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소비자 및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GM 식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이철호 외, 2009).

다음 <표 11>은 GMO 식품 표시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시제의 기준은 식품에 혼입된 GMO작물의 함량 정도에 따라 나뉘며, 일부만 적용하거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표 11. GMO 식품 표시제를 채택한 국가 현황

국가분류	표시제 기준 혼입률	국가	국가 수
GMO금지 국가	—	세르비아, 베냉, 잠비아	3
의무 GM 식품 표시제 도입 국가	0.9~1%	EU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	37
	1%이상	한국, 중국, 일본, 브라질, 케냐,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11
	일부 적용 또는 예외 존재	인도, 태국, 대만, 베트남, 부탄, 요르단, 말리, 카메룬, 세네갈, 에티오피아, 튀니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페루	15
	소계		63
GM 식품 표시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	—	기타 국가	—

주: 임송수(2013)에서 재인용
자료: Center for Food Safety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2001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실시하였고,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우리나라 GMO 표시제 실시에도 근간이 되고 있다(이철호 외, 2009).

3. GMO작물과 식량 안보

최초의 의약품 제조용 GMO의 산업적 도입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GMO작물 도입에 대한 우려로 논쟁이 가열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논쟁들은 합의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과학자나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소위 전문가 그룹들의 대립된 의견들이 양산되었다. 전 세계적인 GMO작물의 생산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GMO작물의 도입에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나타났고 GMO작물 도입에 따른 잠재적인 사회적·환경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정책 도입도 관찰된다(Azadi & Ho, 2010).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GMO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GMO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지 않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러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에 대하여 공식적인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이 GMO작물과 다른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GMO작물에 대한 표시제(labeling)를 요구하거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GMO작물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저개발 국가들의 GMO작물 생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낮추었다.

환경주의자들은 이러한 GMO작물의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유기농법에 대한 장려를 피하고 있으나 생산성 감소와 이에 따른 농업수익 하락 때문에 환경 친화적 농법의 채택도 쉽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GMO작물 재배와 유기농법이 공존하기도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농법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가장 주된 GMO작물 재배의 장점은 식량안보와 관련이 깊다. GMO작물 재배 옹호론자들은 안전성, 고품질, 저장성 증대를 통한 식량 안보의 강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장점은 비단 생산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옥수수수의 경우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대두는 화학비료와 노동력 절감을 가져온다. 또한 영양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용도의 토지 사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에 기여하며, 농약

이나 비료 사용량의 감소 및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로 이어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GMO작물의 주요 장단점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 논문이 존재한다. 가장 주된 장점으로는 생산성 증대, 생산물 가격 인하, 가뭄에 대한 내성 등이다. 반면 단점에 대한 연구로는 농작물 질적 저하, 잠재적 독성 및 알러지 유발, 다른 종자에 대한 유전학적 영향,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와 독성 물질 생성, 종교적·문화적·인종적 우려, 표시제 결여에 따른 문제, 동물권리와 복지 문제, 유기농과 전통방식의 생산자에 대한 문제,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GMO작물의 잡초화, 생태계 교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MO작물 생산에 따른 식량 안보에 대한 기회는 가뭄이나 병해충에 대한 내성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와 이에 따른 농약과 비료 사용량 절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상업화된 농업에서 문제점을 상쇄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특히 GMO작물의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는 생육 조건들이 맞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제초제의 투입량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관리의 용이함 때문에 GMO작물의 종자가 선호되기도 한다. 또한 GMO작물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 종자의 가격이 오를 경우 저소득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식량난 및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GMO작물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막연한 기대나 동경, 거부감이나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GMO작물의 개선을 위한 기술력의 확보와 제도적 규제,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른 GMO작물 도입의 경제성 분석, 끝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각 이해 당사자들에게 교육 전파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박효근, 2009, "GMO 작물 생산현황과 향후 전망 및 대책 -GMO 콩을 중심으로-" 한국콩연구회, 한국콩연구회지, 26(1): 21~28.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2013,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61.
- 이철호, 문현팔, 최양도, 김용택, 유명애, 손홍석, 2009,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연구보고서 55, 119~160.
- 임송수, 2013, "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57.
- 최양도, 2002,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개발 실태와 전망", 한국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 한재환, 김배성, 주현정, 2009, "GMO 생산·유통실태 파악 및 GMO표시 비용/편익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zadi, H. and P. Ho, 2010, "Genetically Modified and Organic Crops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Options for Food Security." *Biotechnology Advances* 28: 160-168.
- James, C., 2012,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12, ISAAA Brief No. 44, ISAAA: Ithaca, NY.

[인터넷 사이트]

- apps.fas.usda.gov/psdonline/, USDA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SD Online
- www.biosafety.or.kr/,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www.centerforfoodsafety.org/, Center for Food Safety
- www.gmoanswers.com/, GMO Answers

USDA 세계 곡물 교역 장기전망*

이주관(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1. 도입

본고는 2023년까지의 세계 곡물 교역 시장의 장기 전망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 성장이나 인구증가 추세 등의 거시적 요인들과 국제 환율과 원유가격과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살펴본다. 본고의 전망 범위는 곡물의 생산과 소비부분을 모두 포괄하며 세계적인 농산물 교역에서 나타나는 농산물의 가격과 각 분야별 경제지표까지 포함된다.

장기 전망은 거시경제 지표나, 농산물 및 무역 정책, 기후, 국제 개발 등의 특정한 가정 하에 이뤄진 조건부 시나리오에 근거를 하고 있다. 특히 전망에 앞서 국제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충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기후나 생산성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을 전제한다. 농업에 영향을 주는 관련 정책 역시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에서 보듯이 본고의 전망은 미래의 정확한 모습을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내외적 상황 하에 놓인다면 본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본고는 미국 농림부(USDA)의 “USDA Long-term Projection 2013”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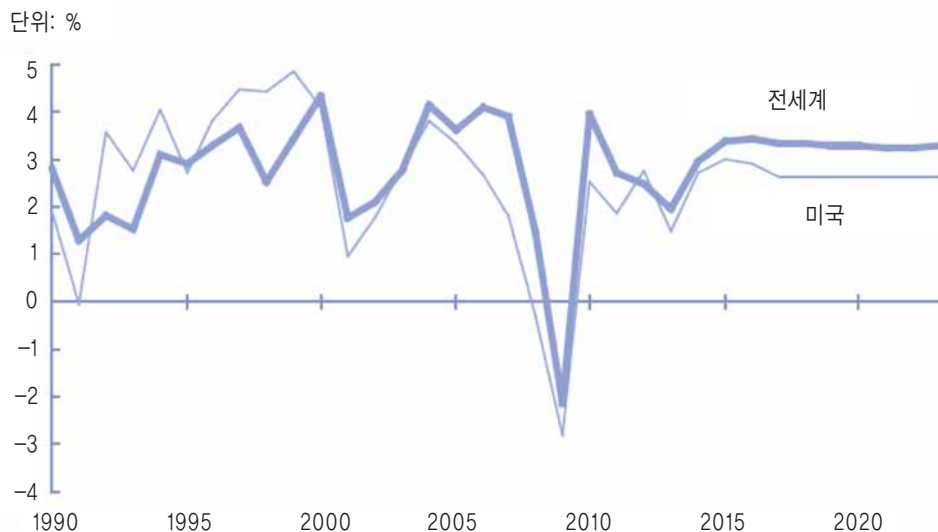
** dotter83@snu.ac.kr, 02-880-4731

2. 거시 경제 가정

2.1 경제성장

미국 농무부의 장기 전망은 거시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상대적으로 평균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이 장기 성장에 있어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2013년 8월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그림 1. GDP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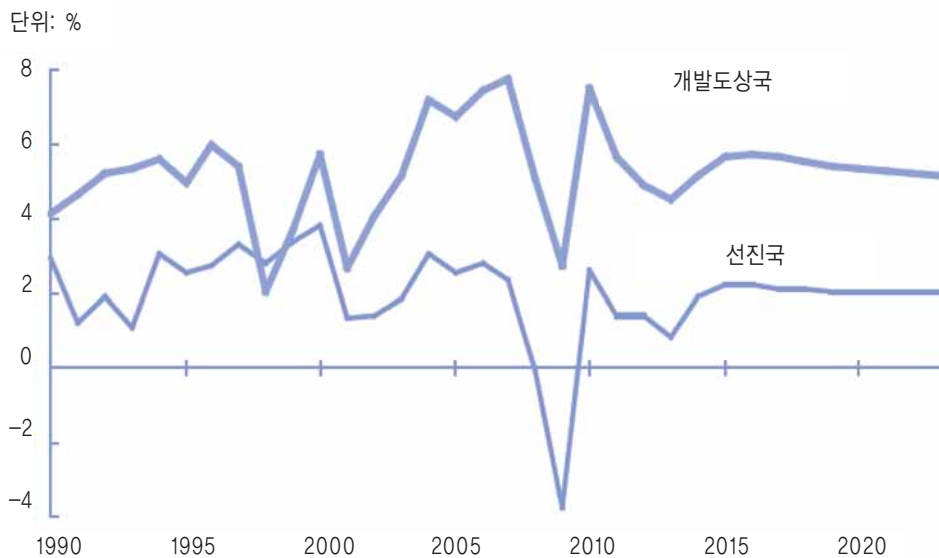
자료: USDA (2014)

향후 10년간 전세계의 총생산(Global GDP)은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지난 10년간에 비하면 낮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외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

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5%에서 2023년에는 5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09년의 경기 침체 후 미국 경제는 2010~13년 동안 연평균 2.2 % 성장했다. 앞으로 몇 년간은 3%대의 비교적 강한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2023년까지는 연평균 2.6%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세계 평균을 밑돌게 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 2013년 현재 26% 수준에서 10년 뒤에는 2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림 2. 개도국과 선진국간 GDP전망 비교



자료: USDA (2014)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현상은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시중에 과잉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고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은 역사적 평균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된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이어서 평

가절상이 향후 10년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과거 20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서 달러화 가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성장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는 식품과 농산품 소비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구증가 추세와 결합되어 향후 10년간 전세계 식품과 사료 수요 증가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속되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세계 곡물 시장 수요와 무역량, 재화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와 식품 수요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중산층으로 편입됨에 따라 식품 섭취가 다양해지고, 상대적으로 육류와 유제품,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는 사료작물과, 고부가가치의 식료품의 수입 수요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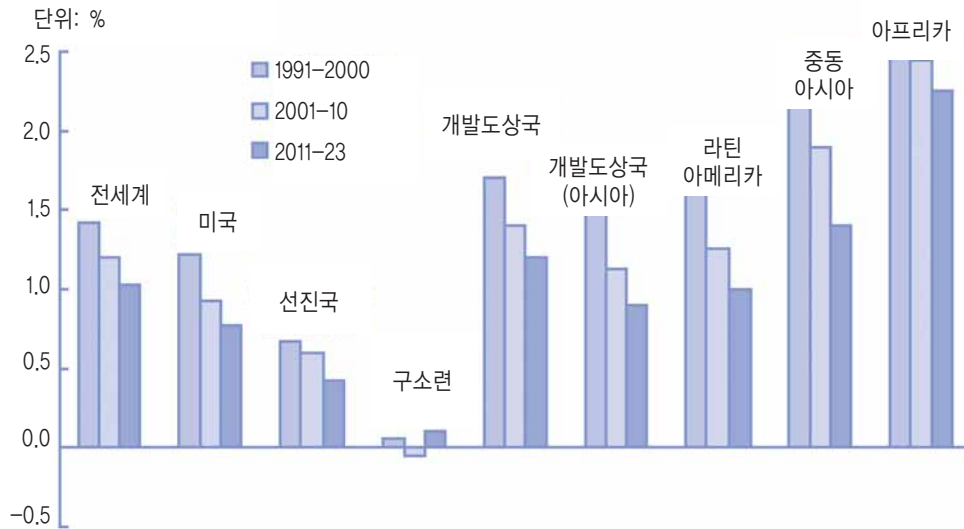
비록 미국 달러 가치가 향후 일정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달러화는 미국 농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수출 농산품목 중에서 특히 대량을 수출되는 곡물은 달러화 가치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하기 때문이다.

2.2 인구

세계 경제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기조 하에 인구성장의 둔화 추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세계 인구성장률은 연평균 1.0%로 예측되는데 이는 이전 10년간 인구성장률이 1.2%인 것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그림 3>.

선진국들은 2013-23 기간 동안 0.4%대의 매우 낮은 인구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선진국 그룹에서는 가장 높은 0.8%의 인구성장률이 예상되는데 이는 대부분 이민에 따른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대륙별 인구증가



자료: USDA (2014)

2023년까지의 개발도상국의 인구성장은 1990-2010년에 비해 조금 낮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인구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는 79%이던 것이 2023년에는 82%까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인도는 2013년에 전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했다. 중국의 인구증가율은 1991~2000년 사이에 연평균 1.6%였으나 2013~2023 기간 동안에는 0.4%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할 것이다. 인도의 인구증가율은 1.8%에서 1.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이외에도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인구증가율이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세계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구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와 중산층의 증가에 따라서 이들 국가의 식료품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빠른 도시화와 젊은 연령대의 인구 증가는 소비 성향의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소비에 비해 다양한 품목의 식품을 소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2.3 달러화 가치

그림 4. 달러화 가치 전망

가치 지수(2005년 100 기준)



자료: USDA (2014)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4년 이후에는 완만한 평가 절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4). EU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GDP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화 대비 유로화나 엔화의 가치 상승 요인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함에 따라 엔화에 대한 저평가 정책이 달러화 가치의 상대적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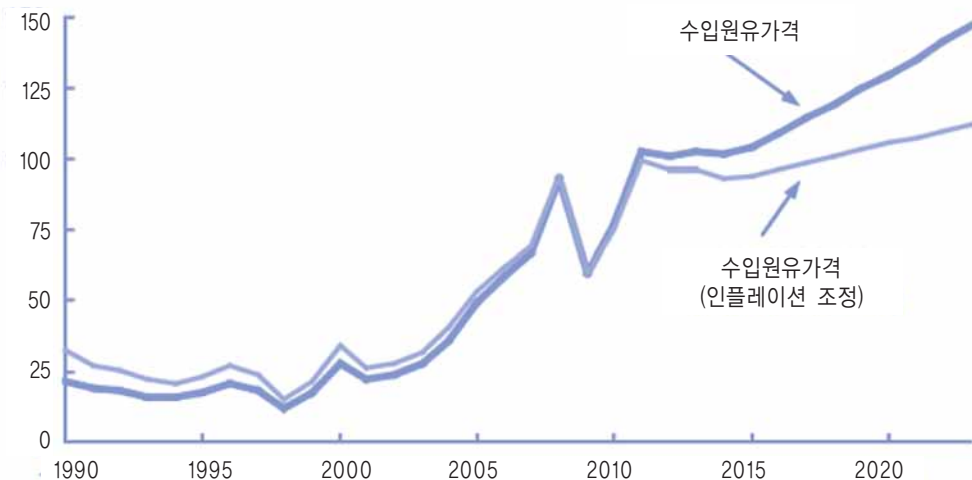
2010년 6월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2010년 7월에 비해 2013년 7월까지 13.5%의 위안화 평가 절상이 이뤄졌다. 본고의 전망은 중국정부가 실질 환율이 현재와 같은 기조로 평가 절상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 앞으로 위안화가 아시아지역 내에서는 무역과 환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세계 무역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로 기능할지는 미지수다.

달러화의 전반적 약세는 심화되는 무역 경쟁 하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익에게도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 원유 가격

원유가격은 앞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OPEC 비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유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수요측면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 증가가 둔화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속도가 늦춰지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이 새로운 시추기술을 통해서 자국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서 원유가격이 2014년도에는 원유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시추 기술에 따른 생산량 증대가 효과가 감소하면서 원유의 실질/명목가격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제 원유의 명목 수입가격이 2014년 배럴당 105 달러에서 2023년에는 배럴당 150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이러한 원유 가격의 증가는 농업부에서도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림 5. 원유가격 전망



자료: USDA (2014)

3. 곡물 시장 전망

3.1 곡물 수요 및 생산 전망

세계 농산물 수요는 2014-202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세계 농산물 공급량의 증가는 인구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인당 농산물 소비량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농산물 무역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은 최근의 높은 수준에 비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2007년 이전 수준 보다는 높게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1인당 소득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과 유지작물(oil seed), 면화와 육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농업 생산량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과 경작 면적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농업생산 증가의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많은 나라에서 농업용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농지는 생산성이 낮은 토지인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 20년간 곡물의 생산량의 증가 추이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10년간 곡물 생산성의 증대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이는 지난 25년간 농업부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공공 투자가 줄어든데 기인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관개 시설 사용 증가하고 있는데, 지하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관개 시설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비료나 농약 등의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생산비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감소가 나타났으나 주요 곡물의 생산이 회복 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요 곡물 재고량이 회복되었고,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품목의 재고량이 평균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중국의 경우 면화 재고 정책에 따라 면화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가 그 예이다. 유사하게 태국과 인도의 경우 현재 쌀 재고량이 평균 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이 재고 물량을 처분하느냐에 따라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저소득, 중간 소득 국가들은 향후 세계 농산물 소비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육류소비 증가의 80%, 곡물과 유지작물의 83% 그리고 면화 사용의 증가의 대부분을 이들 개발도상 국가들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국가에 있어 농축산물 생산 증가분보다 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육류 무역의 증가분의 90%, 곡물과 유지작물 무역량 증가의 95%를 개도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도국의 빠른 곡물 및 농산물 소비 수요증가는 소득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와 중산층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의 접경 지역은 식품 수요와 농산품 무역의 증가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빠른 인구성장과 일인당 소득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세계 가금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고기 수입량 증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강력한 자국 내 육류 생산 보조 정책은 사료작물과 단백질 사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특히 자국 내에서 토지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국가에서 이러한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이 국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곡류에서는 17%, 밀의 50%, 쌀의 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는 육류, 조곡, 유지작물 수입의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1인당 육류소비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축사육을 늘일 유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육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축 사료 수입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고기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하고,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수입은 각각 35%,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세계 돈육 시장과 가금류 수입시장의 성장 기여도는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시장에서는 중국에 이어 2번째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2009년 사이 중국은 돼지고기, 옥수수, 쌀, 밀, 소고기, 유채깻묵(채종박)과 유채기름(채종유)의 순수입국이 되었다. 2023년까지의 전망에서도 중국은 쌀과 밀을 제외한 품목에서 순 수입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년 내에 수수의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두와 유채, 보리와 대두유, 팜유의 순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곡물과 유지류, 면화의 총 수입량은 2023년까지 61% 증가해 5,8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 국가들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중요한 농산물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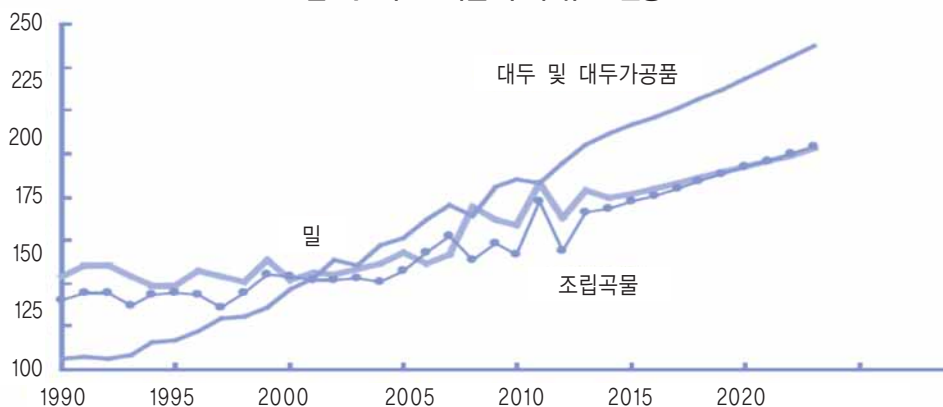
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농업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국가들은 향후 농산품 수출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지난 5년간의 성장 추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바이오 연료의 재고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연료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그 뒤로 브라질, EU, 아르헨티나가 뒤를 따른다. 이들 국가에서 바이오 에탄올과 디젤 생산의 성장률은 3% 미만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탄올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성장률에 비해 절반이하의 수치이며,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는 지난 5년 성장률의 10%에 그치는 전망이다.

EU는 바이오 연료의 가장 큰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바이오 디젤의 수입은 EU의 바이오연료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브라질은 EU의 에탄올 수입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위해 유지작물과 채종유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계속해서 바이오연료의 지배적 수출국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아르헨티나는 대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디젤 생산에 특화하며,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 생산에 특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량은 자국 내 바이오연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주요 곡물 무역 규모 전망



자료: USDA (2014)

전세계 대두와 대두 관련 상품의 무역량은 1990년 이래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는 밀과 잡곡류(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기장)의 무역증가를 넘어섰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식물성 기름과 단백질 사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 추세는 대두와 대두관련 제품의 무역 증가가 잡곡류의 무역량을 상회하는 양상을 지속되게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전세계적으로 곡물과, 유지식물, 면화에 대한 재배 면적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작부 면적의 증가는 여유 토지가 많고, 정책적으로 농가가 가격에 반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일부 남아메리카의 국가들과 사하라 이남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당된다. 반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작부 면적 증가가 위 국가들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국가들은 오히려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잡곡류 생산 증가의 절반 이상은 단수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약화된 것을 반영했음에도 단수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이러한 효과는 세계 인구의 느린 증가 추세로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인구성장은 농산물 수요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1인당 소득의 증가와 인구증가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채종유, 육류, 원예, 유제품, 곡물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1인당 채종유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류 15%, 잡곡류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1인당 밀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으며, 쌀 소비량은 오히려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과 유지식물, 그리고 기타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경작 면적을 늘리고, 재배 면적의 밀도를 높이는 유인이 된다. 가장 큰 재배면적 증가는 구소련 지역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국가들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에서도 재배면적 확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작지로 전환되는 토지에서는 식물성 기름 수요 세계적 증가에 따라 대두와 팜유 생산이 이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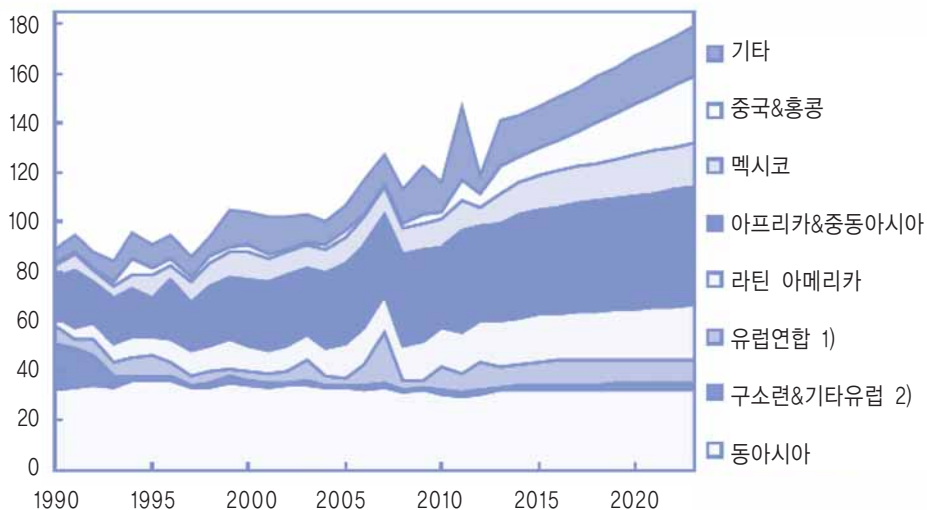
3.2 옥수수

전세계 잡곡류 무역량은 2014/15시즌부터 2023/24시즌까지 25%의 증가한 약 3,600만 톤으로 예상된다<그림 7>. 옥수수는 잡곡류의 무역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옥류소비의 증가 추세는 사료곡물을 자급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잡곡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주요인이다. 잡곡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는 중국과 멕시코, 아프리카와 중동 순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24년에는 2,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7>. 중국의 높은 옥수수 수요는 대부분 축산분야의 성장과 구조변화에 기인하며 또한 산업적 사용이 증가함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입증가는 전세계 옥수수 무역량 증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수수 수입역시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2023/14 시즌에는 성장세가 완화 되어 150만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잡곡류 수입규모

단위: 백만 톤



1) 역내무역 제외

2) 구소련 및 기타유럽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함

자료: USDA (2014)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옥수수 수입 규모는 2023/24시즌까지 잡곡류 총 무역량의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증가와 소득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축산제품 수요 증가에 원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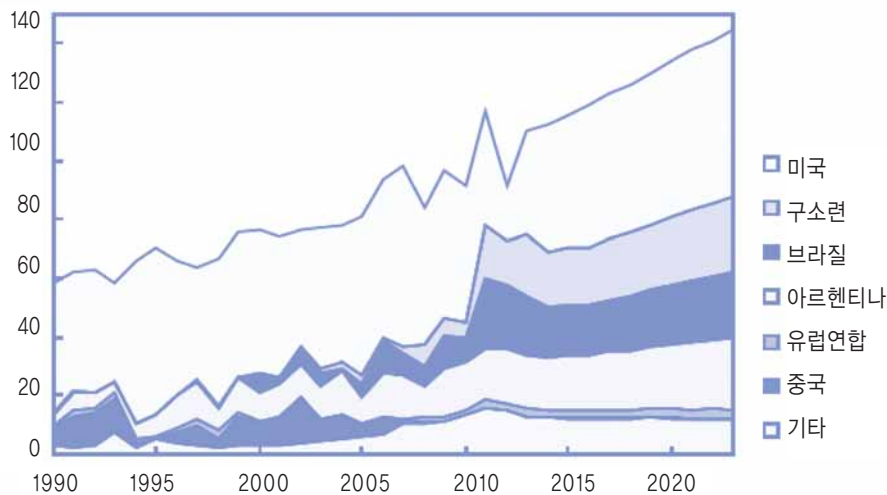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은 2014/15년에는 1천백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24 시즌에는 1,55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의 수수 수입은 여전히 200만 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멕시코의 잡곡류 수입 성장은 전세계 잡곡류 유통량의 1/8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육류소비 증가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한 국내 축산 생산을 자극하고 뿐만 아니라 잡곡류의 수입도 증가 시킬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옥수수 수입은 2012/13 대비 37% 증가한 1,2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축산농가의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이들 지역이 옥수수 무역의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이다.

동아시아는 환경적으로 축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고, 육류 수입 자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료용 곡물의 수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 지역은 현재 세계 잡곡 수입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옥수수 수출 규모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014)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최근 몇 년간의 기후에 따른 생산과 수출 감소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8>. 2023년 까지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7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옥수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십년간 평균 52%였으나 40%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지역에서 옥수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옥수수 생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개량종자의 사용이 수확량이 증가하고,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옥수수생산 증대에 유리한 조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옥수수 수출량은 현재 보다 700만 톤 증가한 2,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소련 지역에서 옥수수 사료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들 지역의 수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능가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옥수수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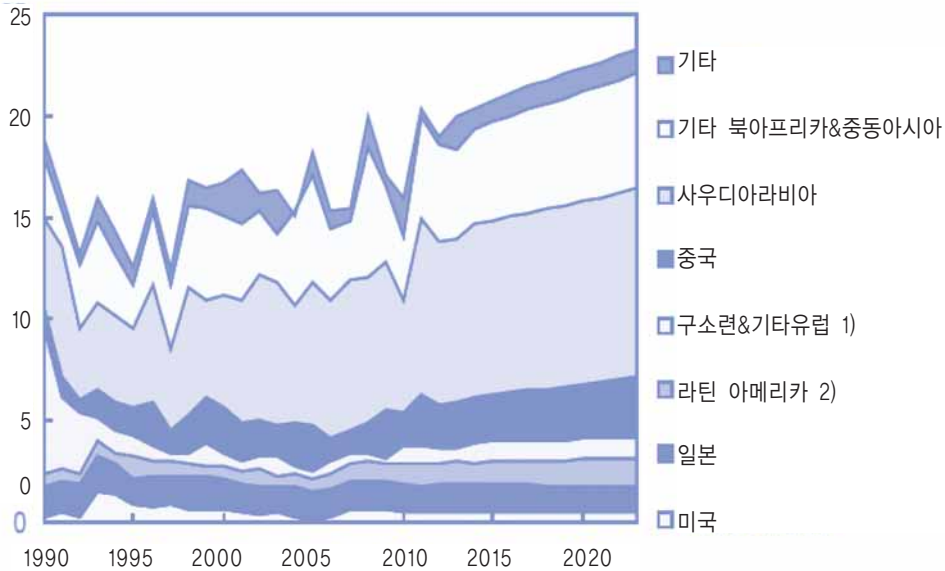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 전망은 계속되는 수출물량 통제 정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2011/12 시즌에 전에 비해 최근 옥수수 수출량이 2배 이상 늘어 대두에 이어 브라질의 최대 수출 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의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 결과이며, 대부분 마토그로소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국내용을 소비되기엔 적합한 하지 못해, 대두가 수출된 이후에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은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수출 인프라 개선과 가격상승에 따라 생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옥수수 수출량은 전망 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옥수수의 주요 순수입국이 되겠지만,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낮은 물류비를 경쟁력이 갖춰지면서 약 3백만 톤 가량 수출도 나타날 것이다.

3.3 보리

그림 9. 보리 수입 전망

단위: 백만 톤



- 1) 구소련 및 기타유럽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함
2) 멕시코 포함

자료: USD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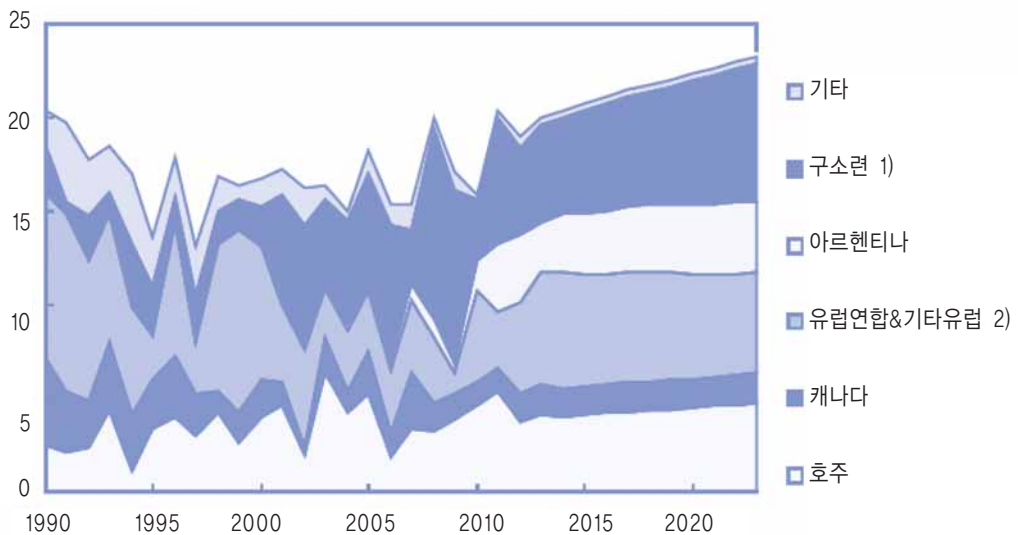
전세계 보리 무역은 290만 톤 증가하여 2023/24 시즌에는 2,33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9). 이러한 무역량의 증가는 맥아와 사료용 보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타는 현상이다. 사료용 보리는 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국가들에서 향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보리 수입량의 2/3 정도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까지 전세계 보리수입의 40%를 차지해 가장 큰 보리 수입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된 보리를 양, 염소 낙타의 사료로 사용한다. 다른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이란이 향후 보리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제외한 국가들의 보리수입량 역시 점차 증가하겠지만 여

전히 전세계 보리무역의 1/5을 차지할 정도이다. 국제적인 맥아 보리 수요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맥주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내 보리 생산이 증가함에도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2023년까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캐나다가 중국의 주요 맥아보리 수입국이다.

그림 10. 보리 수출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014)

보리의 주요 수출국은 EU, 호주, 아르헨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보리 수출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도 증가해서 500만 톤 가량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 호주의 경우에는 보리 수출이 2013/14 시즌 가뭄으로 인한 작황이 부진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조금씩 회복되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호주는 EU를 이어 세계 2위의 보리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보리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밀에 대한 수출 제한 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겨울 작목으로 수출이 가능한 보리로의 작목전환을 하게끔 유인하고 있다. 보리 재배면적의 확대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부지역에서는 대두와 함께 재배되고 있다. 다른 남아메리카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산 사료용 보리의 주요 수입국이 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산 맥아보리의 주요 수입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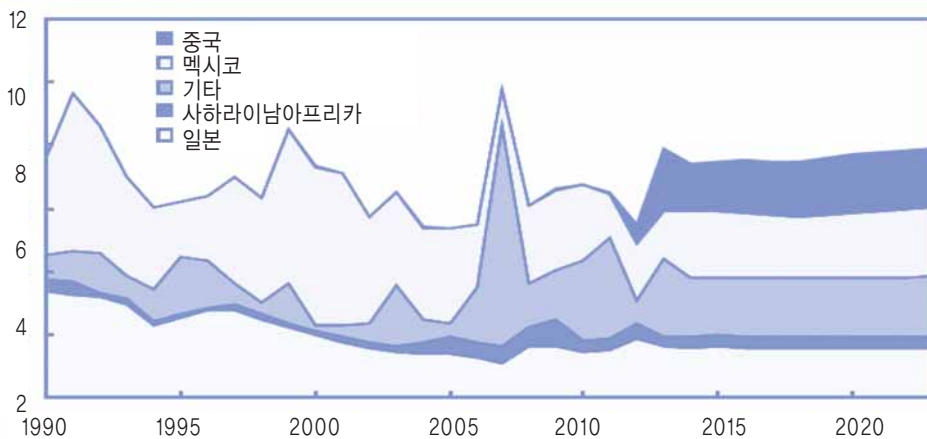
이중 러시아가 340만 톤, 우크라이나가 310만 톤을 수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지역은 특히 이란을 대상으로 보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23년까지의 보리 수출량 증가분의 74%가 구소련 지역의 수출 확대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맥아용 보리는 사료용 보리에 비해 상당히 가격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맥아용 보리 가격은 특히 호주와 캐나다의 재배 면적에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앞으로 전세계 보리 생산면적에서 맥아용 보리의 재배 면적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에는 카놀라 등 보다 이윤이 높은 작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 보리 생산면적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4 수수

그림 11. 수수 수입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014)

세계 수수 무역은 향후에도 현재의 무역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의 공급량 증가는 대체 작목에 비해 낮은 수수의 수익성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된다. 세계 수수 수입은 2014/15 시즌 약 740만 톤으로 추정되고, 2023/24년까지 조금씩 증가해 790만 톤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1>. 미국은 멕시코, 중국, 일본으로 수수를 대량 수출 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가 최근 들어 점차 수출량을 늘리고 있어 향후 세계 수수 수출의 비중을 늘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수수 수입은 향후에도 20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축산업자들은 축산사료로 수수를 선호하고, 미국은 대부분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수가 다시 멕시코로 수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전통적으로 멕시코는 전세계 수수 수입량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 비중이 조금 낮아져 3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세계 수수의 2번째 수입국인데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수수 수입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수 수입은 지난 2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을 넘어서 세계 2위 수수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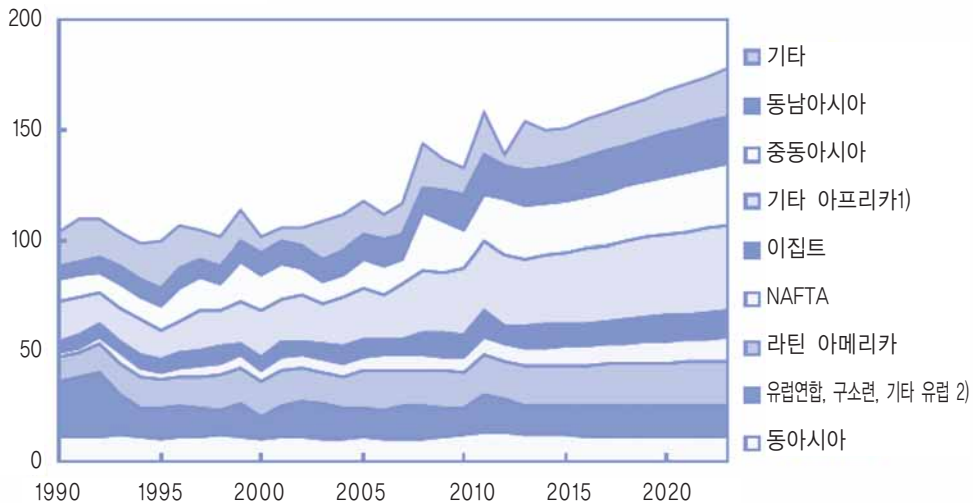
미국의 수수 수출은 2013/14시즌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10년 뒤에는 40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전망치는 최대수출량을 기록했던 시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제1의 수수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2위의 수수 수출국 지위를 향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수출 규모는 아주 천천히 증가해서 250만 톤 수준으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닌 함량이 낮은 새로운 수수 종을 재배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 수수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칠레, 유럽연합,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이다.

호주는 향후 100만 톤이 조금 넘는 물량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에서 3위의 수수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3.4 밀

그림 12. 밀 수입 전망

단위: 백만 톤



1) 이집트 제외

2) EU 역내무역 제외, 구소련(FSU) 역내무역 포함

자료: USDA (2014)

전세계 밀(밀가루 포함) 무역량은 2014/15 시즌 대비 19%(2,800만 톤) 증가하여 2023/24 시즌에는 1억 7,750만 톤이 거래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밀 수입의 증가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소득증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밀 수요 증가가 주원인이다. 주요 밀 수입국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이집트, 기타 북아프리카와 중동,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주요 수입국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1인당 밀 소비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밀 수입은 대부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증가를 자국 내 증산으로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쌀 소비 대신 밀 소비량

*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코트디부아르.

을 늘이는 것도 이와 같은 수입증대의 주요인이 될 것이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수입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의 밀 수입은 2023/34 시즌에 1천2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밀 수입도 1천만 톤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2위의 밀 수입국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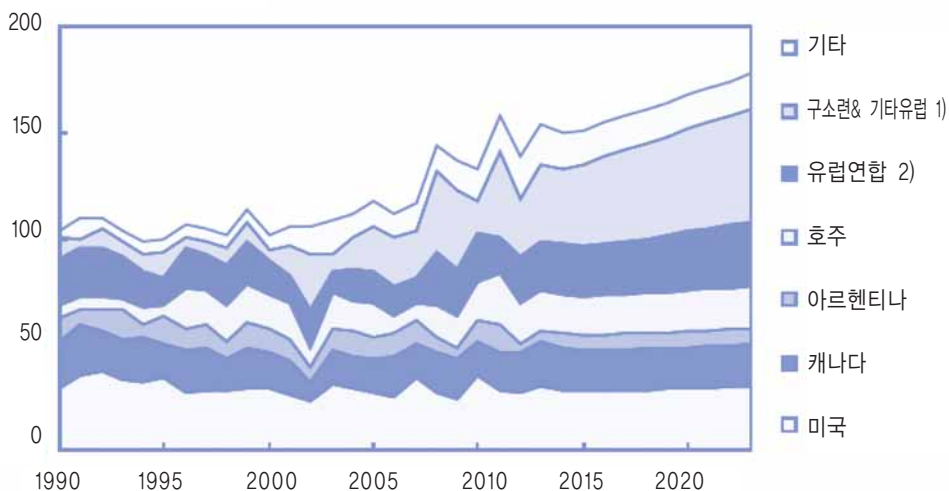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수입도 모두 빠르게 증가해 150만 톤 가량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밀수입 감소분을 상쇄하는 수준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밀 수입은 1,400만 톤까지 증가하여, 전세계 밀 무역 증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 수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밀 생산을 2016년까지 제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밀 수입량은 3백8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수입국과 수출국 지위를 번갈아 가며 유지했다. 과거 2년간 인도는 상당한 양의 밀을 수출했는데 이는 인도정부의 밀 가격지지 정책으로 인해 초과생산이 발생해 정부 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지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은 향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밀 수출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014)

밀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EU, 캐나다로 이들 5개 국가는 2023/24 시즌 전세계 밀 수출의 6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3>. 하지만 현재 이들 국가들의 점유율이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구소련지역의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 때문이다.

미국의 밀 수출은 전망기간동안 2,800만에서 3,00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밀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재배면적은 천천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 작목인 카놀라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정책과 보리의 이모작이 증가함에 따라 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14년과 2014/15 시즌 이후에는 밀 생산이 감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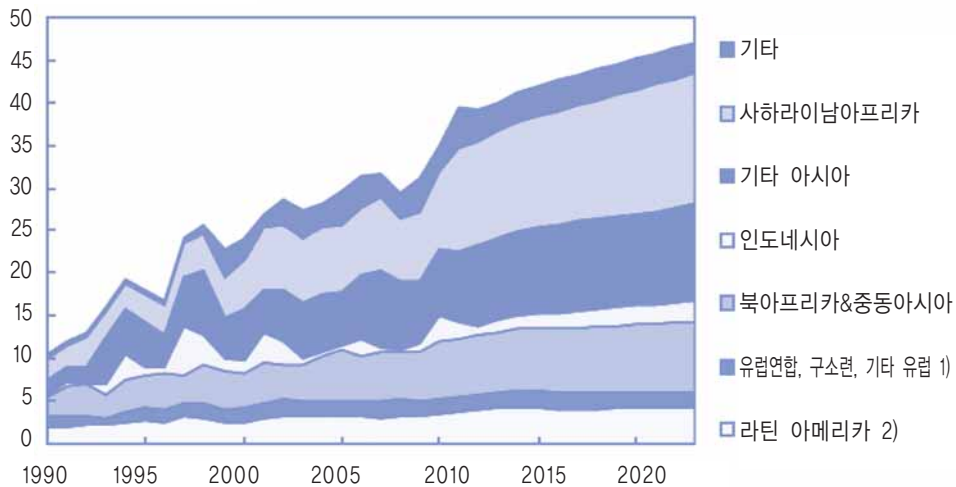
EU는 전통적 밀 수출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점유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4시즌까지 밀수출은 계속 증가해 3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료용 국내 수요가 더 저렴한 사료곡물로 대체되면서 수출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 까닭이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수출증가추세는 2010~2012년 사이의 가뭄 때문에 주춤하였으나, 이러한 점차 이러한 감소세를 회복하여 2023/24 시즌까지 50%이상 증가해 5,20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세계 밀 무역 증가량의 2/3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내 사료 수요의 증가는 초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수출증가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단, 이 지역은 기후변화가 심하고 생산량 변동도 크기 때문에 밀 생산과 무역전망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음).

3.5 쌀

그림 14. 쌀 수입 전망

단위: 백만 톤



1) 유럽연합, 구소련(FSU), 기타유럽

2) 멕시코 포함

자료: USDA (2014)

2023/24 시즌 쌀의 무역량은 2014/15 시즌에 비해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2023/24 시즌에 쌀의 거래량은 4,700만 톤에 달할 것이며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 무역량보다 35%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의 주원인은 개발도상국의 수요증가이며, 주요 수입국이 인구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를 국내 생산으로 빠르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생산의 제약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 쌀 소비는 평균 4% 증가했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소비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경우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로 인해 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은 기후적으로 쌀 생산이 어려우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원이 제약되어 쌀 생산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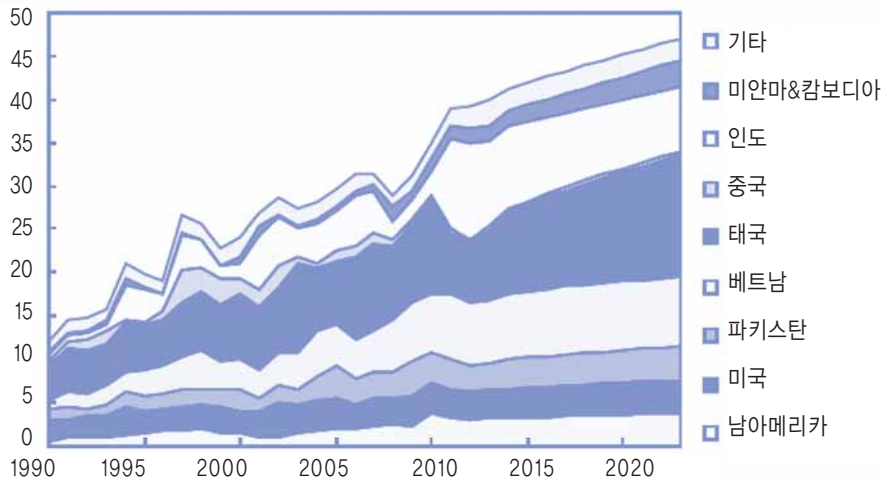
중국은 2013/14 시즌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입국이다. 향후 중국의 쌀 수입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로 베트남으로부터 저렴한 쌀을 수입하고 있으나 2023/24 시즌에 가서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저치고 가장 큰 쌀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의 쌀 수입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24 시즌의 예상 수입량은 160만 톤이다. 다른 주요 수입국가인 이란과 이라크,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50만 톤 이상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국가는 국내 쌀 생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전세계 쌀 수입 증가분의 16%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이민자의 증가는 1인당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쌀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지역의 쌀 수입은 40만에서 50만 톤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인당 소비가 증가가 둔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증대되는 현상이 혼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쌀 수출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014)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되는 쌀은 세계 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5). 태국과 베트남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쌀 수출의 47%를 차지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쌀 수출물량 증가분의 87%가 이들 국가의 수출증가에 기인할 것이다. 특히 태국에서는 생산증가와 재고 방출이 더해져서 수출량은 440만 톤 증가한 1,390만 톤이 2023/24 시즌에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수출증가분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750만 톤에서 2023/24시즌 82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두 국가에서 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물량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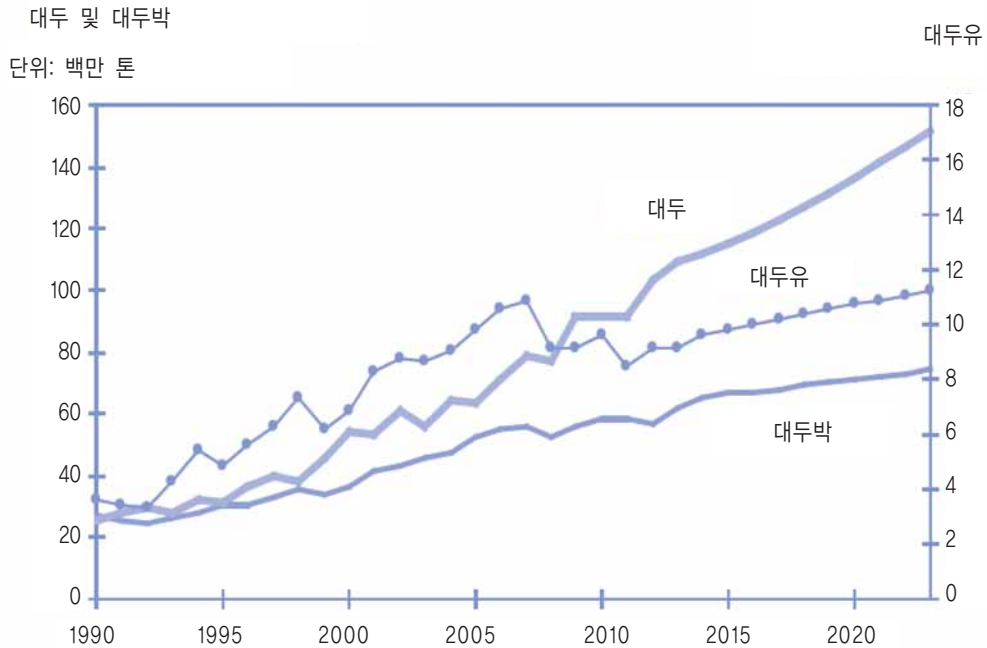
인도는 90년대에 3~4위권의 쌀 수출 국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은 변동성이 심했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 재고 물량 수준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이다. 2011년 9월에는 인도 정부가 쌀 수출금지정책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300만 톤가량 수출물량이 증가해 1,100만 톤 가량이 수출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위의 수출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재고량이 정점을 이룬 후 점차 방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의 수출물량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 예상된다. 파키스탄과 미국은 매년 300~400만 톤 가량을 수출해왔다. 파키스탄은 지속적으로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인당 수비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수출물량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 5위의 쌀 수출국의 지위는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쌀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수 증가와 국내 소비분의 감소에 기인한다. 미국의 세계 쌀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쌀 수출물량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2023/24시즌까지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31만 톤에서 44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량종을 재배함에 따라 단수가 증가해 생산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식단이 다채로워지면서 1인당 쌀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는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의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비축량은 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쌀 수출은 최근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 감소에 따라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향후 이 수준에서 벗어나 5십만 톤 정도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6 대두, 대두박, 대두유

그림 16. 대두 관련 수출 저망



자료: USDA (2014)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는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축산업에 사용되는 식물성 단백질 사료의 수요증가를 가속화 시킨다.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두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가들은 유지작물 생산을 확대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 남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착유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유지 작물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대두 무역거래량은 36%, 대두유는 17%, 대두박은 1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6).

중국인 식물성 기름과 식물성 사료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착유용으로 사용할 대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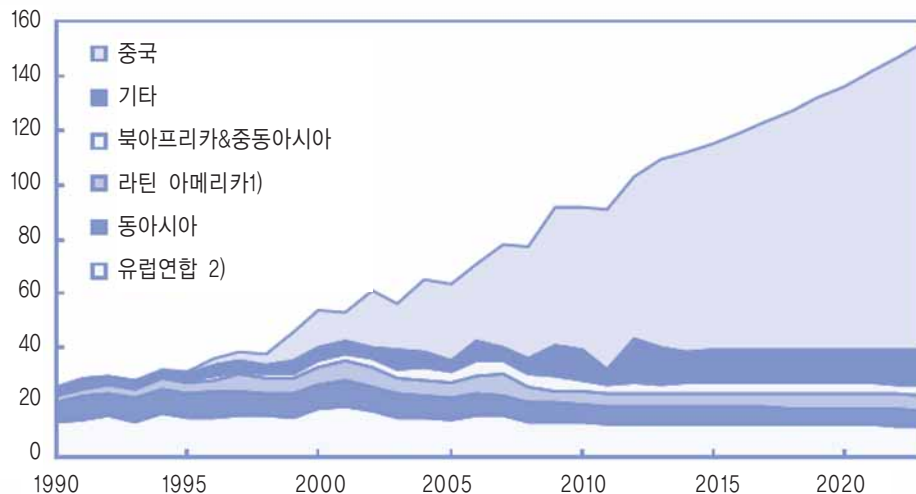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미국은 현재 세계 대두류의 수출에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점유율은 2023/24 시즌에는 87%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점유율은 3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대두생산의 단수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최근 곡물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농민들이 대두를 더 많이 재배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수출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29%인 대두수출 점유율이 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는 최근에는 그 추세가 늦춰졌지만 바이오 디젤에 대한 생산이 확대되면서, 채종유에 대한 생산이 증가하였고, 유채기름과 유채씨의 수입 역시 동시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두박과 대두유의 수입수요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6.1 대두

그림 17. 대두 수입전망

단위: 백만 톤



1) 멕시코 포함

2) EU 역내무역 제외

자료: USDA (2014)

전세계 대두 무역량은 향후 10년간 빠르게 늘어나 현재보다 4,000만 톤 증가한 1억5,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7>.

중국의 대두 수입은 빠르게 증가해 왔고 현재에는 세계 무역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중국정부의 정책이 대두보다는 식량작물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두에 대한 중국내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착유시설을 증축하고 있고, 이는 대두수입의 증가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착유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산된 대두박은 다시 인근 아시아 국가에 수출될 것이다.

EU의 대두 수입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곡류의 가격이 낮아지고, 축산분야에서 곡류와 유채깻묵의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대두 수입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대만 일본 동아시아의 대두와 대두박 수입은 국내 축산 부분이 감소하고 육류 수입으로 증가하는 구조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대두와 대두박의 수입은 축산부분의 성장이 느려짐에 따라,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대두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축산부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식물성 기름에 대한 1인당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전망이다. 다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대두생산을 늘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식용 대두와 사료용 대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대두 수입은 9%가량 늘어나서 400만 톤 가량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멕시코의 가금류 사육 증가와 돈육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국내 식품소비에도 있어서 폰을 즐기는 소비증가가 수입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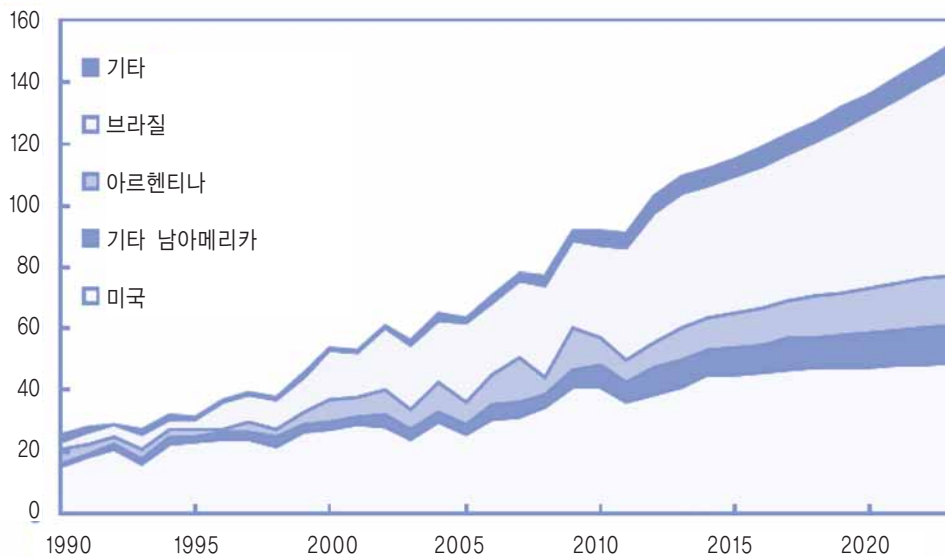
대두의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이들 세 국가는 2010/11 시즌 전세계 무역량의 90%를 차지했다. 최근에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몇몇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성장은 느린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통적 수출대국인 위 3국가의 점유율은 2023/24 시즌에도 87%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2014/15 시즌 대비 57% 증가하여 2,420만 톤 늘어난 6,65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 증대는 브라질이 제 1의 대두 수출국 지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브라질에서는 다른 작물에 비해 여전히 대두가 가

장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증대가 가능하다. 특히 세라도(Cerrado)지역과 아마존 유역에서 대두 생산 면적이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 대두 수출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2014)

아르헨티나는 대두 제품보다 대두에 대해 높은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정책 국내에서 대두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착유용 대두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24 시즌에는 현재보다 57% 늘어나 1천6백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산 대두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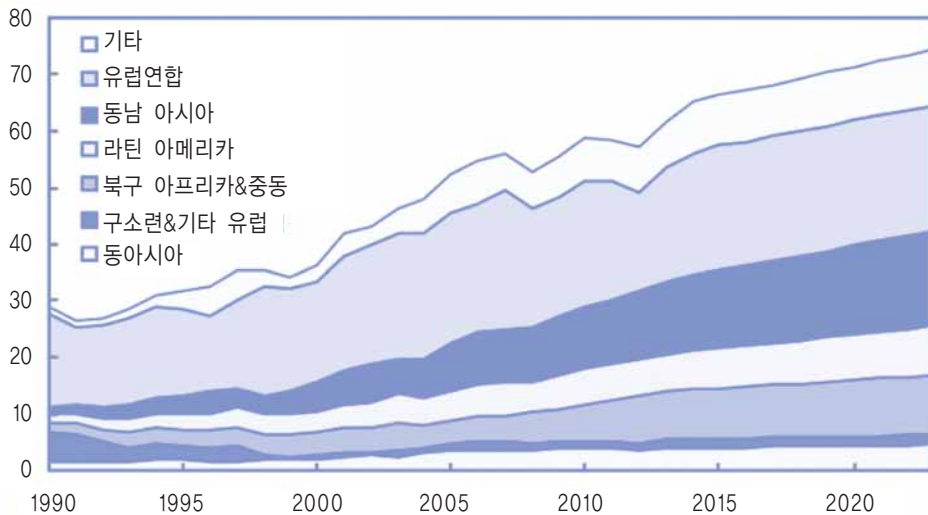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남미의 3개국 역시 대두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수출은 47%가량 증가하여 2023/24 시즌에는 1,25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의 대두 수출은 현재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제 유지작물의 가격 상승

에 따라 유채와 대두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두 수출은 80% 가량 증가하여 3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3.6.2 대두박

그림 19. 대두박 수입 전망



자료: USD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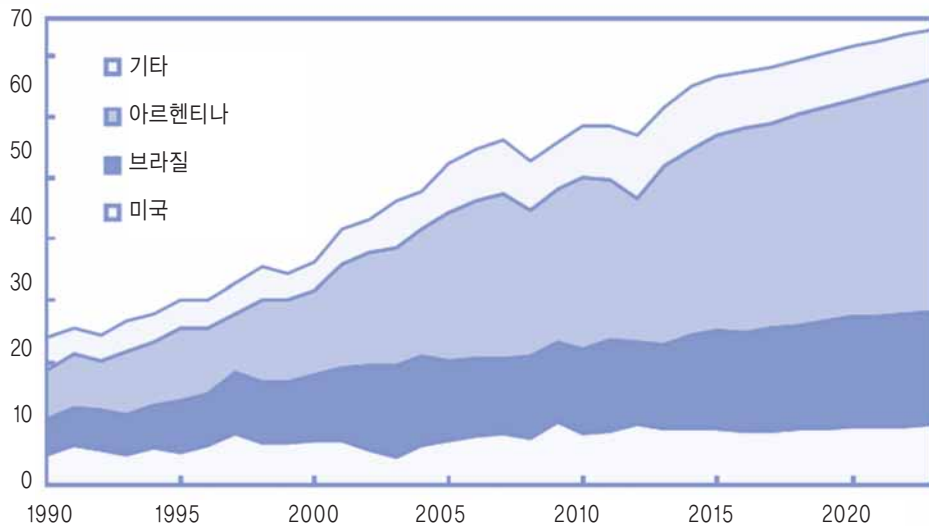
대두박의 무역량은 현재보다 14% 증가해 900만 톤이 증가한 7,400만 톤이 교역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가에서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 사료용으로 대두박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대두박의 국내생산 확대가 어려워 수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두박 이외에 국내 유지식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기타 저렴한 식물성 단백질 사료의 사용이 증가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두박 수입수요의 상승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EU는 여전히 대두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곡물사료와 채종박 사용이 증가함에도 대두박에 대한 수입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비록 저렴한 채종박이 바이오 디젤의 2차 부산물로 생산되어 풍부하게 공급되지만 비해 축산사료용으로 사용되기에는 영양학적으로 대두박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의 대두박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국내 축산업의 확대에 따라 대두박 수입수요가 크게 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대두박 무역증가분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수입은 200만 톤 가량 증가하여 수입증가분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의 대두박 수입물량은 170만 톤 정도로 예상되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두 국가로부터 공급될 것이다.

대두박 수입의 강한 성장세는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도 예상된다. 멕시코는 단백질 사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입이 늘어날 것이며 러시아 역시 국내 육류생산이 확대대피 현대화 되면서 그 대두박 수입수요의 확대가 전망된다.

그림 20. 대두박 수출 전망



자료: USDA (2014)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미국은 대두박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대두박 수출 점유율은 향후 10년간 조금 더 높아져 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대두박 수출국으로서 그 점유율이 45%에서 51%로 높아질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대두수출에 대두제품보다 대두에 대해 높은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대두 가공산업을 장려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두 생산비가 낮고, 실질적으로 대두보다 대두가공제품의 수출이 더욱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강한 수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에서는 국내 가금류와 돼지고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대두박의 국내수요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두박의 수출 증가에는 제약이 될 것이다. 브라질은 대두유 착유 시설이 과거에 비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두박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23~25%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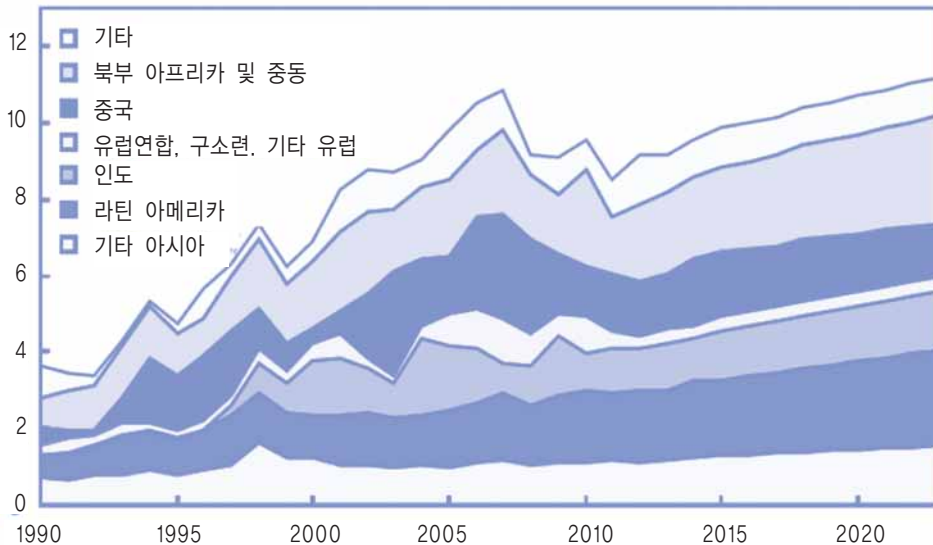
미국의 대두박 수출은 2017/18 시즌 이후로 천천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1천만톤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세계대두박 수출시장의 예상 점유율은 일부 감소하여 13% 정도로 예상된다.

인도는 최근 들어 가금류 계란, 유제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두박의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남미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두박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3/24 시즌에는 최근보다 약 4백만톤 가량 감소하여 2023/24 시즌에는 1백4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규모가 작지만 축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와 동유럽국가에 대한 대두박 수출을 지속하면서 순수출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6.3 대두유

그림 21. 대두유 수입 전망



자료: USDA (2014)

세계적으로 식품산업과 일반산업분야에서 대두유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두유 수입물량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 2014/15 시즌에 비해 세계 대두유 수입 물량은 17% 증가하여 2023/24 시즌에는 160만 톤 증가한 1,12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분 증가하는 식품과 산업부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두유소비의 상승세는 대체재인 팜유의 소비 증가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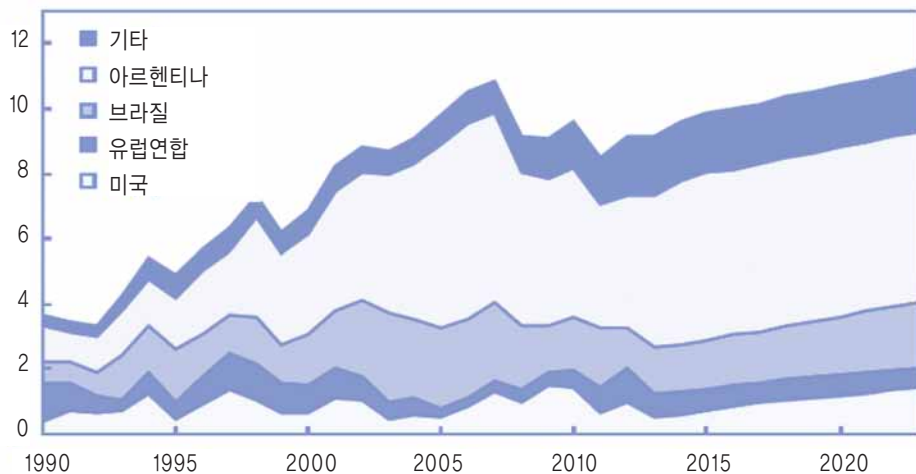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최대 대두유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대두유 수입 전망치는 42% 증가해서 1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두유 수입의 확대는 인도지역의 몬순기후가 유지작물의 재배에 적합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특징과 국내 식물성 기름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2008년에 높은 식료품 가격의 인플레이션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을 경험한 이후, 인도는 40%에 달하던 대두유 수입관세와 75~85%에 달하던 기타 식용기름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0%로 낮췄다. 향후 이 관세는 2008년 수준 이하로 다시 높아

질수 있지만 여전히 수입물량의 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중국 역시 최근 착유용 대두에 대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두유에 대한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두유 수입량이 150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10년 간 수입량은 140만에서 180만 톤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 상승과 인구증가는 대두유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고 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들 지역 중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수요가 더 크고 라틴아메리카가 그 뒤를 이를 것이다.

그림 22. 대두유 수출 전망



자료: USDA (2014)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대두유 수출 국가 들이다. 이 두 국가의 수출물량을 합치면 향후 10년 뒤에는 전세계 대두유 수출량의 2/3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대두유 수출 1위인 아르헨티나의 대두유 수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3/24 시즌에는 5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가 대두유 수출국 으로서 가지는 비교우위는 막대한 착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국내 대두유 시장이 작다는 점 그리고, 수출관세 구조가 대두보다는 대두가공품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의 이모작으로 인한 집약 적 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토지의 지력을 유지시키는 윤작법이 활용되고, 북부지

역의 한계 농지까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착유 시설이 지속적으로 보충됨에 따라 대두 생산과 착유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대두유 수출은 지난 몇 년이 기상조건의 악화로 생산이 감소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규모가 감소했었다. 또한 자국내에서 바이오 디젤원료로 대두유가 이용되는 양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량의 성장세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이 대두 수출량의 증가는 향후 전 세계 대두수출량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디젤 생산을 위한 대두유 사용이 증가할 예정이지만, 브라질 내에서 대두 생산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두유 수출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된다.

미국의 대두유 수출은 2013/14 시즌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2012년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 감소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조건이 평균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수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2023/24 시즌에는 1백40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9/10년의 수출량과 동일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3위의 대두유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USDA, 2014, *USDA Long-term Projection 2013*, USDA.

part 0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2014 World Grain Market



FAO 곡물시장뉴스 / 131

해외곡물시장 뉴스 / 144



FAO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미국 밀 판매 2013/14 마케팅 연도 말에 이르러 평균에 비해 11퍼센트 상승

2013/14 마케팅 연도(marketing year; 첫 수확 이후 1년)가 공식적으로 5월 31일 끝났지만, 미국의 상업용 밀 판매가 농무부가 전망한 3,230만 톤에 이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 밀 수출량은 이미 작년 수출량을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넘어선 상태이다.

5월15일 기준으로 2013/14 마케팅 연도에 보고된 미결제 판매량과 누적 수출량은 3,180만 톤으로, 2012/13년의 수출량 2,740만 톤보다 16% 증가했고, 지난 5년간 평균인 2,850만 톤보다 11% 증가한 량이다.

적색경질겨울밀(HRW) 수출량은 5월 15일 기준 1,200만 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다. 미 농무부는 적색경질의 총 판매량은 지난 5년간 평균보다 3% 증가한 1,2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은 지난 5년간 평균 31.9만 톤의 적색경질밀을 수입했으나, 2013/14년에는 409만 톤을 수입하여 5월 15일 기준 총 적색경질밀 판매량의 34%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의 밀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브라질은 남미 이외 국가로부터 부족분 만큼의 밀을 수입해야 했다. 2012/13년 적색경질겨울밀 수입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은 경쟁 수출국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콜롬비아의 경우 전년대비 3.9만 톤 증가한 45.4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32.8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중국은 5월 15일 기준 2013/14년 총 적색연질겨울밀(SRW) 판매량의 47%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충분한 밀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로 인해 밀 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높은 품질의 밀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357만 톤의 적색연질겨울밀을 구매하였다. 지난 5년간 중국으로 수출된 적색연질겨울밀 물량은 11.7만

톤이었다. 이번 마케팅 연도에는 중국의 수입량 증가는 전년 수입 상위 10개국들 중 8개국에서 감소된 수입량의 감소분을 상쇄시킬 전망이다. 5월 15일을 기준 총 적색연질겨울밀의 판매량은 41% 증가한 756만 톤으로, 이는 지난 5년간 평균인 421만 톤보다 78.3% 증가한 수치이다.

적색경질의 봄밀(HRS)의 판매량 또한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한 국가가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적색경질겨울밀과 적색연질겨울밀과는 다르게 2012/13년 적색경질의 봄밀 주요 수입국들은 약간씩 수입량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수입량이 18% 증가하였다. 5월 15일 기준 총 적색경질의 봄밀 판매량은 712만 톤으로, 전년 동기간 602만 톤과 지난 5년간 평균 674만 톤보다 증가한 것이다. 필리핀, 대만,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로의 수출이 증가해 일본 수입량의 감소분을 벌충할 수 있었다.

경질백색밀과 연질밀의 수출량은 5월 15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한 458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12/13년에 일본과 한국의 사료용 연질밀 수입이 많았으나, 지난 5월 유전자 변형 백색밀 종자의 검출된 이후 2013/14년 초기의 수출 물량을 회복하고 있지 않다. 7월25일 기준 백색밀 수출량은 2012/13년에 비해 18%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백색밀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19% 감소한 85.4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이를 상쇄시킬 전망이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듀럼밀(Durum) 총 판매량은 5월 15일 기준 2012/13년보다 7% 감소할 전망이다. 듀럼밀의 총 판매량은 53.2만 톤으로 지난 5년 평균인 91만 톤보다 매우 적을 전망이다. 이는 캐나다산 듀럼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이 수출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이외에 베네수엘라가 유일하게 수입량을 증가시킨 수입국으로, 2012/13년 5.1만 톤에서 2013/14년 8.2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이집트의 밀 수입 규정 정정 소식에 프랑스산 밀 수출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르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밀 수입 규정 정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수입 규정에 포함된 수분 함량 규정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는 주요 정부 바이어인 General Authority of Supply Commodities(GASC)와 민간 수입업자들은 밀을 연간 1,000만 톤 수입하여 세계 밀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집트의 주요 밀 수출국으로 수분 함량 규정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산 밀을 입찰에 포함시키는 경우 수출국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밀을 수입할 수 있다.

1월에 GASC는 13.5%까지 허용했던 수분 함량 규정을 폐지시켰다. 2013년 수확된 프랑스산 밀의 평균 수분 함량은 13.5%였다.

GASC의 부회장인 Mamdouh Abdel Fattah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 재고할 생각이며, 밀 수분 함량 제한을 13%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GASC를 감독하는 보급부는 이전에 그들의 낮은 수분 함유 기준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4월 Khaled Hanafi장관은 수분 함량 기준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프랑스 판매자들에게 제한 기준을 맞추도록 밀을 건조시키라고 조언했었다.

이번 GASC의 발언은 2014년 프랑스산 밀 구매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이것은 현재 밀을 건조시키기 위해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에 비하면,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산 밀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좋은 뉴스이다,”라고 유럽의 밀 수출업자가 말했다.

프랑스 수출업자는 이집트의 연간 수입 캠페인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2013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양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시즌에는 만약 공급 선택사항에 제한이 있을 경우 GASC가 양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역업자와 은행들은 이집트의 외환 보유액 감소로 국영기업이 수입한 밀에 대한 가격 지불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분 함량의 변화로 프랑스 수출업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거래 손실을 초래했고, 이는 이집트가 밀 수입에 보다 높은 가격을 지배했다는 뜻도 될 수 있다,”라고 또 다른 유럽 곡물상이 말했다.

“만약 이집트가 또 다시 수입 상품에 대한 가격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집트의 최우선 목표는 수입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Abdel Fattah는 아직 모든 사항들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들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 새로운 정부가 자리 잡지 않는 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곧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카이로 소재 무역상이 말했다.

GASC는 2013년 7월부터 해외 시장으로부터 500만 톤이 넘는 밀을 수입했다. 현재 국내산 밀의 밀 수확 시즌으로, 그들이 목표로 하는 440만 톤의 국내산 밀 중 약 300만 톤을 구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GASC의 발표 내용뿐이고 현재 이집트가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유럽 무역상이 말했다.

■ 이것이 옥수수과 밀 가격 급락 이유다

기후 여건의 호조와 기대 이상의 파종 시즌으로 인해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5월 초 옥수수와 밀 선물가격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파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R.J. O'Brien의 연구책임자인 Randy Mittelstaedt이 말했다. “하지만 시원하고 습했던 날씨가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변했고, 이는 옥수수 생육에 매우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10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선물가격은 부셸당 4.7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몇몇 이들은 옥수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길 원했고, 그래서 더욱 압력이 가해지길 바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Gartman Letter의 Dennis Gartmen이 화요일 자 Futures Now에서 말했다.

밀은 상황이 약간 다르다. “밀은 겨울밀인 적색경질겨울밀의 심각한 피해로 인해 선물가격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Pro Farmer Newsletter의 저자이자 발행인인 Chip Flory가 이 메일을 통해 CNBC에게 전했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밀을 생산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경쟁 수출국들이 충분한 밀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산 밀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미국의 밀 가격하락은 수요 부족과 관련이 있다.”

농부들과 낙관적인 선물 거래자들은 “기후 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미국의 밀 공

급량 부족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돈 받고 튀어라는 심리를 띄고 있다.”라고 iiTrader의 수석 상품 브로커인 Rich Ilczyszyn이 말했다.

그러나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돼지 바이러스와 소 사육 감소로 육류 가격이 치솟았다. 하지만 저렴한 옥수수 가격이 사료 가격을 낮추더라도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Mittelstaedt가 말했다.

“곡물 가격과 식료품점의 콘플레이크 가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Flory는 썼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곡물 가격들이 2012/13년까지 이어진 높은 가격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 러시아 2014년 곡물 수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다

러시아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수확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다음 시즌 곡물 수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농무부 장관인 Nikolai Fyodorov가 말했다.

Fyodorov는 2014/15년 러시아산 곡물 수출 전망치를 300만 톤 증가시킨 2,500만 톤으로 정정했다. 미국 농무부는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을 2,510만 톤으로 전망했고, 분석 그룹인 SovEcon은 이 2,560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2012/13년에 달성한 1,63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곡물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경쟁 수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루블화의 가치 하락 영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주 Fyodorov 씨가 농무부의 올해 러시아산 곡물 수확량 전망을 1억 톤으로 상향 조정한 후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밀 생산량은 5,300만~5,500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의 5,210만 톤보다 증가한 것이다. 공식적인 곡물 생산량 전망치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몇몇 민간기관들은 9,000만 톤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미국 농무부 분원은 러시아의 곡물 생산량을 이전 전망치보다 100만 톤 증가시킨 9,2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년도의 9,230만 톤과 비슷한 수치이다.

열악한 가을 날씨로 인해 겨울 곡물 파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파종된 씨앗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했고, 농부들은 봄 파종을 겨울 파종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다.

농무부는 옥수수 파종 면적을 258만 ha로 예상하며, 전년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접국인 우크라이나 다음이며, 2011년 파종 면적보다 50%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농무부는 건조한 기후와 농부들의 제한된 금전적 자원이 러시아 곡물 생산을 위협하는 주요한 사항들이라고 전하며, 수확을 위한 용자가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뒷받침 해주지 못했으며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5월 중순을 기준으로 농부들은 봄 파종과 수확을 위해 단지 750억 루블(20억 달러)만 용자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11% 감소한 것이다.

“은행들은 농부들의 부채와 늘어나는 채납 용자들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농무부는 말했다. “이러한 결과 은행들은 이자율을 높이고 담보 조건을 강화하며 신청서 검토시간을 늘렸다. 많은 농부들이 현금화 가능한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 수확을 담보로 용자를 받을 수 없다.”

■ 인도 밀 생산량 2016/17년 1억 톤에 근접

제빵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밀 가공식품 생산 증가로 2016/17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식용곡물의 35%를 차지하는 밀의 총 생산량이 2012/13년 9,350만 톤에서 1억 톤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Associate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Assocham)이 ‘인도의 밀 경제’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말했다.

“그러나 기상 이변, 병해충 그리고 밀 생산 지역 대부분의 낮은 생산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밀 생산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Assocham의 연구에서 강조했다.

밀 조달은 하르야나(Haryana)주와 펀잡(Punjab)주들로 대부분 제한되며, 이는 다른 주들이 상당량의 밀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과 낮은 이윤으로 인해 밀 조달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성장과 국가 식량 안보 관점에서 고려할 때, 여러 지리적·기후적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는 강조한다.

이 연구는 또한 현재의 애드호크(ad-hoc) 정책에서 변화해 민간부문이 무역에

참여하도록 복돋는 타당한 접근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시기에 적합한 품종에 대한 자문이 모든 밀 농부들에게 제공되도록 확대 되어야 하며, 농작물들의 성숙기에 이른 따뜻한 기후, 고된 겨울, 우박을 동반한 폭풍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강우와 같은 여러 기후로 인한 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이러한 피해가 품질 이외에 산출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전문가들의 조언이 주요 성숙 단계들과 수확기에 근접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연구는 의견을 밝혔다.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는 인도 밀 생산량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역이며, 다음으로 편잡(Punjab)주 18%,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14%, 하리아나(Haryana)주 12%, 그리고 라자스탄(Rajasthan)주 10% 순이라고 연구는 밝혔다.

그럼에도 연간 9,000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인도는 세계적으로 2.4억 ha에서 약 7억 톤의 밀을 생산하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호주 밀 소비를 줄이고 있다

곡물과 콩류 영양소 협회 (Grains and Legumes Nutrition Council)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게는 260만 명의 성인들이 밀을 그들의 식단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협회는 15세부터 80세까지의 설문 응답자로부터 호주인들이 섭취하는 곡류와 선택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된 호주 영양사 협회(Dieticia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전국 회의에서 영양사 위원인 Michelle Broom은 밀을 배제하는 사람들 3명 중 1명은 의사의 조언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며, 이러한 알레르기를 자가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Broom씨가 전했다.

Tanya Edwards는 속이 더부룩하고 “매스꺼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밀이 첨가되지 않은 상품들을 찾는다고 말했다.

“소화가 불편하고, 속이 더부룩하며, 매우 피곤하고, 처지고 면역체계가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찾는다,”라고 Edwards씨는 말했다.

곡물 홍보 회사인 Avant Agri의 상무이사인 Peter Woods는 타피오카, 쌀 그리고 코코넛 가루의 국내 식단 수요 증가는 호주 밀 생산자들에게 문제의 대상이 아

나라고 말했다.

“호주는 전반적으로 수출 열세 시장이고, 이중 55%가 아시아로 수출된다. 아시아는 곡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Woods씨는 말했다.

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하는 것은 호주인들에게 더 큰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Broom씨는 정확하지 않은 자가진단은 사람들이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치료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가진단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균형 잡힌 식단을 따르고 그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그녀는 전했다.

■ 미 농무부 분석가: 중국의 곡물 통계 자료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 곡물 통계의 미국 농무부 최고 분석가는 중국이 정책 입안자들과 시장을 위해 곡물 통계 자료의 투명화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들이 수집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솔직해 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20년간 미 농무부의 세계 농업 전망 위원회의 책임자를 역임하고, 5월 31일 은퇴하는 Gerald Bange가 인터뷰를 통해 Reuters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발표하는 정보보다 더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의 곡물, 식용유, 육류 그리고 목화 수요는 세계 시장들의 주요 포커스가 되고 있다.

44년간 미 농무부에서 일한 Bange는 중국 당국이 처음 중국과 일하기 시작한 1983년보다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투명성과 그들의 자료 출처가 자주 궁금증을 일으킨다고 그는 말했다.

“거기에는 어떠한 투명성 또는 조직화가 없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싶다. 북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Bange는 그의 은퇴를 선언한 이후 첫 인터뷰를 통해 Reuters에게 전했다.

중국의 공식 곡물 재고량 통계는 서로 다른 그룹들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농무부와 중국국가 곡물과 유류 정보 센터. 그래서 어느 부서가 가장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는지 알기 힘들다고 Bange는 말했다.

미 농무부 분석가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첨단 기술 도구들을 이용하며, 이는 위성 이미지에서 복합 기상학 자료 그리고 각국의 세계적 관측 리포트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의 보고”라고 그는 말하며, 세계적으로 북경에서 브뤼셀까지 그리고 상파울로에서 싱가포르까지 파견되어있는 미 농무부의 해외 농업 서비스 담당관들로부터 수집된다고 말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또한 정보를 제공받기 쉽지 않다. 우리는 그 지역들을 순회하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Bange는 말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가 선별해야 하는 많은 다른 정보들이 흘러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자주 일어나며 당연히 중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중국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한 나라에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6,900~7,000만 톤의 대두를 수입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엘 니뇨, 주요 곡물 생산량을 위협하다

엘 니뇨 현상은 특정한 주요 곡물 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연구가 밝혔다. 연구원들은 온도와 강우량을 변화시키는 기상 이상 현상이 옥수수 생산량을 4%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엘 니뇨 현상은 태평양 동부 열대의 바다 표면 온도의 변화로 인해 일어난다. 이 팀은 이 연구자료를 정부가 이용하여 식량 공급량을 관리 할 수 있다고 Nature Communications에 기재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 “연구 결과는 엘 니뇨가 세계 평균 대두 생산량을 2.1~5.4%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옥수수, 쌀 그리고 밀의 생산량은 -4.3%에서 0.8%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니냐 기간들 중 모든 4개 작물들의 세계 평균 생산량은 평균 보다 낮았다(-4.5%에서 0.0%까지),”라고 그들은 관측했다.

태평양 동부의 주기적인 온난화(엘니뇨)와 냉각기(라니냐)의 바다 표면 온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인 엘니뇨-남방 진도(ENSO)의 단계들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제트 기류의 위치를 이동 시켜, 결국 세계 곳곳 많은 지역의 온도와 강우 패턴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들은 영향 지역에 가뭄 또는 이례적이지 않은 강우 등의 극우 기후 환경을 초래한다. 이것은 온도와 강수량으로 인해 크게 영향 받는 작물 생산량에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이 새로운 연구가 우리로 하여금 언제 흉작일지 추수기 이전에 예측하게 해준

다,” 공동 저자이자 영국 Leeds대학의 교수 Andy Challinor이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믿을 수 있는 ENSO 예상이 이를 세계 작물 생산량 자료에 이용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것은 식량을 관측하고 기아를 일찍이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잠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이 팀은 ENSO가 영향 끼치는 4개 주요 식용 작물을 꼽았다: 옥수수, 쌀, 밀 그리고 대두.

이 작물들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세계 식용 칼로리 중 거의 60%를 차지한다.

이 팀은 다음을 관측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생산량에 끼치는 ENSO의 영향은 지리적 위치, 작물 종류, ENSO 단계 그리고 작물 생산 지역들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세계 생산량에 끼치는 ENSO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 하는 것이 단기간의 식량 이용 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긍정적인 산출량 추세를 지속하는데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학자들은 이 예보가 차종 기한, 작물 선택 그리고 화학적 치료와 관개 같은 다른 투입물들까지 영향력을 끼쳐 완화시키는데 도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NSO에 대한 개선된 대응은 영양소부족의 위협을 줄일 수 있으며 긍정적 영향을 받는 연도의 농업 투자를 증가를 허락할 수 있고 그리고 기후 변동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올해 초 UN 세계 기상 기구(WMO)은 태평양 열대의 온난화를 예측했고, 대부분의 모델들이 “엘 니뇨가 올해 중반에 발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NASA 위성으로 수집한 정보는 2014년 5월초의 태평양 동부의 환경이 2,1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3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낸 20세기 최강의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었던 1997년 5월의 환경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EU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되다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기력을 잃은 미국을 제치고 최소한 1950년대 이후 처음 유럽이 다음 시즌에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듀럼밀을 포함한 2,750만 톤의 밀을 2014/15년에 선적할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다음 시즌에 대한 그들의 첫 전망에서 말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유럽연합은 다음 달이 끝나는 이번 시즌에 3,00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연합 28개국들은 미국이 최대 생산국

자리를 차지해왔던 1960년대 이후처음으로 세계 밀 수출국의 정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가뭄으로 제빵에 이용되는 경질밀과 비스킷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연질밀을 생산하는 남부 평원 지대의 미국산 겨울 밀 작물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중서부에서 또한 낮은 파종과 서리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수출국들에서의 많은 공급량과 국내 적색경밀의 타이트한 공급량으로 인해 미국산 밀 선적량이 제한 될 것”이라고 미 농무성은 말했다.

사실상 초기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매우 저조했던 미국산 적색경질겨울밀 수확은 올해 여전히 작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북부 재배 지역의 높은 생산량으로 인해 213만 톤 증가한 7,462억 부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곳의 주요 적색경질겨울밀 생산 주들인 - Kansas, Oklahoma 그리고 Texas에서 작년 대비 33% 감소한 수확이 예상된다,”라고 Martell Crop Projections의 Gail Martell이 말했다.

“그러나 네 곳의 제빵용 밀 생산 주들인 - Montana, Colorado, Nebraska 그리고 South Dakota에서는 밀 생산량이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빵 밀 공급량을 복돋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의 생산량이 너무 저조해 2013/14년 미국 적색경질겨울밀 재고량이 약 50% 감소한 1,932억 부셀로 예상된다.

그 동안 유럽연합은 2014/15년 156만 톤이 증가한 1,449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역사적 세 번째로 큰 생산량으로써 영국의 생산량 회복으로 인해 달성되었다.

사실상 두 최대 생산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생산량은 올해 소폭 감소한 3,810만 톤, 2,4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생산국인 영국은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52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 시즌 역사상 가장 습한 기후로 가을 파종에 악영향을 입혔던 기후의 개선이 반영된 것이며, 이 기후로 인해 2012년 영국은 이례적으로 낮은 품질의 작물을 수확하였다.

실제로 국내 소비량이 평균적으로 1,400만톤 미만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2014/15년 영국은 순수 밀 수출국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두 시즌을 순수 수출국으로 지낸 이후 현재 수용량 이하로 가동되고 있는 두 큰 에탄올 공장들인 Ensus와 Vivergo에서의 이용 증가가 있을 시 이러한 회복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수출 및 수출국들은 선적량의 감소를 보일 것이며, 이러한 감소의 일부분은 호주와 캐나다에서의 생산 감소를 반영하며, 정치적 혼란이 산출량을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적 어려움이 저지시키는 우크라이나에서 또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 농무부는 “현재의 탁월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봄에 광물질 비료를 이용의 감소와 제초제 및 이외의 농업 화학물의 이용 감소가 산출량을 작년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정부의 수출 제한이 얼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밀 생산량이 전년보다 3배 증가한 65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시 주요 수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국들 중 작년에 이례적으로 저조한 수확으로 어려움을 겪은 브라질과 중국이 그들의 필요한 물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터키의 수입량은 38% 증가한 기록적인 55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뭄과 늦은 서리가 밀 생산량을 300만 톤 떨어진 1,500만 톤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건조한 기후 이후, 작물의 초기 발화 기간에 Anatolia 고원에 내린 4월 초의 서리가 예상된 생산량을 감소로 이끈 주요 요인이다,”라고 미 농무부는 말했다.

■ 열에 내성이 있는 옥수수가 기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될 수 있을지도

열 내성이 있는 옥수수 작물이 기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저 개발 국가들의 식량 보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식품 전문가가 한 회의에서 토요일에 말했다.

Faisalabad 농업 대학(University of Agriculture, Faisalabad)의 식물 육종과 유전학 부서가 이 회의를 개최했다.

UAF의 부학장인 Iqrar Ahmad Khan은 이 국가가 옥수수 생산에서 엄청난 진척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녹색 혁명 이전까지 옥수수 가루가 밀가루보다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처파티의 대중화가 식량 부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열 내성과 내 충성 작물들이 생산량 증가를 도울 수 있다. 농업 기술의 개선 또

한 생산 비용을 줄일 것이다.”

세계 옥수수과 밀 개발 센터(the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CIMMYT)의 국가 대표 Muhammad Imtiaz는 파키스탄이 옥수수 생산에 집중하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의 옥수수 생산이 2012-13에 15퍼센트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요 옥수수 공급원이며 중국이 그들의 두 번째로 큰 소비국이라고 말했다.

농학 부 학장 Muhammad Arshad는 옥수수가 식량 보장의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를 고려했을 때, 단기 작물이 이 국가의 식량 수요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곡물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옥수수가 2020에는 개발 도상국들 사이에 가장 수요되는 곡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물 육종과 유전학부서의 회장인 Abdus Salam은 변화하는 기후 형태가 고품질의 씨앗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가혹한 기후 환경에도 좋은 작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옥수수 혼성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ffice of Research, innovation and Commercialisation 감독인 Asif Ali는 옥수수가 수익성 있는 작물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나라가 옥수수 생산을 향상시키면, 옥수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 성장해 고용 기회들을 생성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북아메리카	아시아
미국 미국 옥수수파종 73%완료, 대두는 33%완료 USDA, 풍부한 곡물공급 전망	중국 중국, 브라질산 옥수수 소량 수입 중국, 미국산 주정박 수입허가증 발행 중단 일본 일본, 엘니뇨 발생시기 가까워오고 있다고 전함 태국 태국, 쌀 농가 지불금으로 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 차입예정 인도 몬순, 인도해안에 평소보다 약간 늦게 인도, 옥수수 수출증가 그러나 여전히 연간하락세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2014/15 밀 재배면적 4.3백만 헥타르로 전망 아르헨티나, 옥수수생산량 25백만 톤으로 상향전망	호주 호주, 엘니뇨 발생 가능성 약 70%로 전망
아프리카	유럽
이집트 이집트의 밀 수입규정 조정으로 프랑스산 밀 공급 상향전망	프랑스 프랑스 옥수수파종 거의 완료

1. 미 국

■ 미국 옥수수파종 73%완료, 대두는 33%완료

지난 주 미국 중서부지역 강우로 인해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이 둔화되었으나 USDA 데이터에 따르면 농가들의 원래 일정과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USDA의 주간 작황보고서에 따르면, 파종속도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보다 약간 둔화되었다고 한다. 5월 18일 기준 옥수수파종은 73% 완료로 지난 주 59%대비 상승하였으나 5년평균치인 7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대두파종도 33%완료로 5년평균치 38%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USDA 국립농업통계서비스의 일리노이 현장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강우와 서늘한 기후는 지난 주 파종을 둔화시켰다” 라고 한다. 옥수수재배 지역 중 북부지역은 습하고 차가운 토양으로 파종이 지연되어 노스타코타 지역은 옥수수파종 17%, 대두는 5% 완료되었다. 미네소타의 국립농업통계서비스 사무소에 의하면 옥수수파종은 28%로 그 지역의 5년평균치보다 뒤처지며 대두파종도 평균기간보다 11일 지연되었다고 한다. (2014.5.20.)

■ USDA, 풍부한 곡물공급 전망

USDA의 두 번째 2014/15년 미국 및 세계곡물전망에 따르면, USDA는 미국의 풍부한 옥수수 및 대두공급을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밀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밀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카고 밀 선물가격은 2월28일 이후 약 2%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옥수수도 풍부한 공급전망으로 1% 하락하며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대두가격도 1% 하락하였다.

2014년 미국산 겨울밀 생산량 전망은 전년대비 10% 하락한 13.8억 부셸로 5월 추정치보다도 2% 하락할 것이다. USDA는 적색경질 겨울밀 생산량은 하향조정하였으나 적색연질 겨울밀은 상향 전망하였다. 올해, 총 밀 생산량은 미국 남부 및 중부 평야와 태평양 북서부지역의 작황부진으로 인해 무역 전망치인 19.64억 부셸을 하회하는 19.42억 부셸이다. 2014/15년 세계 밀 공급량 전망은 4.1백만 톤 상승되었으며 기말재고량도 상향 전망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및 유럽연합의 생산량이 확대 전망되었다. Global Commodity Analytics의 분석가 마이크 주

줄로는 “러시아가 밀 생산량을 1백만 톤 확대시킨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라고 전했다. (2014.6.12.)

2.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의 2014/15 밀 재배면적 4.3백만 헥타르로 전망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4/15 밀 재배면적은 4.3백만 헥타르로 추정되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4.1백만 헥타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남미 국가들의 2013/14 밀 재배면적은 3.62백만 헥타르였으며 수확량은 10.1백만 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번시즌 파종면적의 증가는 높은 국제 밀가격 및 작황에 이상적인 기후에 기인한다. 곡물거래소 주간보고에서는 “적절한 토양수분, 유리한 가격 및 종자 가용성이 파종면적 전망확대에 많은 작용을 했다” 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부 장관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2013/14에 밀 3.65백만 헥타르를 재배하여 9.2백만 톤을 수확했다고 한다. 또한,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3/14 곡물 파종면적은 3.61백만 헥타르이며 9.5백만 톤이 수확되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아직 2014/15 밀 파종면적이나 생산전망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가 없다. 남반구 겨울밀 재배가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6월과 7월에 대량의 밀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매년 국내수요 분으로 6.5-7백만 톤의 밀을 공급하고 나머지 수확분은 정부 쿼터시스템 하에서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014.5.16.)

■ 아르헨티나, 옥수수생산량 25백만 톤으로 상향전망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2013/14년에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상업용 옥수수 25백만 톤을 수확하여 이전추정치인 24백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이상적인 기상여건이 특히 늦게 파종된 옥수수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시즌 수확량인 27백만 톤과 비교했을 때 7.4% 낮은 수준이다. 화요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가들은 2013/14년 수확량 중 이

미 41.6% 수확을 마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금주 초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도 2013/14년 옥수수 수확량을 23.9백만 톤에서 24.5백만 톤으로 상향 전망하였다. 한편, 2013/14년 대두수확은 88.1% 완료되어 전주대비 7.5%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나 작년 수확속도와 비교하면 10.8%포인트 뒤처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2014.6.13.)

3. 중 국

■ 중국, 브라질산 옥수수 소량 수입

아시아 국가 대사관에 의하면, 중국은 3월 31일 발효된 브라질산 옥수수수입 공식승인 이후 브라질산 옥수수를 소량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주요 옥수수 수입국은 대체로 미국이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형질 검출 이후 1백만 톤이 수입취소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선적이 제한되었다. Li Jinzhang 대사는 “지금까지 브라질산 옥수수는 매우 제한된 물량만 수입되었는데, 향후 수입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덧붙여, “향후 브라질은 중국의 주요 옥수수수입국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브라질은 이미 중국의 최대 대두수출국으로 중국의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물사료에 쓰이는 곡물 및 오일시드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USDA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3/14년 옥수수 20백만 톤, 대두 44.5백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2014.5.27.)

■ 중국, 미국산 주정박 수입허가증 발행 중단

중국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옥수수형질 검출 우려로 미국산 주정박(DDGs)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행을 중단했다. 중국 검역당국은 수입업자들에게 이미 선적된 물량 중 MIR162가 포함된 것은 재수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주정박 수입항구가 있는 칭다오는 이미 지난 달 재수출하지 않은 수입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수입허가증 발행을 중단했다.

중국은 가축사료로 쓰이는 주정박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주

정박 613,678톤을 수입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2월 중국정부의 정밀조사로 2,000톤 이상의 옥수수가 수입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52% 상승했다.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형질 검출로 인해 수입제한된 선적분은 아직까지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당국은 수입업자들에게 수입 제한된 선적분 중 250,000톤을 재수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수입업자들은 수출을 할 주정박 수입국들을 찾기가 어려워 재수출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6.10.)

4. 일 본

■ 일본, 엘니뇨 발생시기 가까워오고 있다고 전함

일본 기상청은 엘니뇨 발생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2월 처음으로 올해 엘니뇨 가능성을 예측한 기관으로 이번 여름 발생할 것이며 적어도 가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의 사용가능한 데이터와 예측모델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엘니뇨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기상청이 7월초 월간 업데이트를 발표하게 되면 구체적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엘니뇨는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홍수를 야기시켜 세계 각국 다른 지역에 폭우와 가뭄을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쌀, 밀 및 원당 등 주요산물 생산은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또한, 기상청은 11월 해수면 온도 전망치도 낮췄다. 현재 11월 해수면 온도는 이전 전망치인 3도보다 낮은 약 2도로 하향전망되고 있다. (2014.6.10.)

5. 태 국

■ 태국, 쌀 농가 지불금으로 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 차입예정

태국 재무부 장관에 의하면, 태국정부는 쌀 수매제도 하에서 사들였던 몇 달치

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다음 달 초 15억 달러(500억 바트)를 차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관은 대출금을 입찰하기 위해 32개 금융기관을 초대할 것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500억 바트에 대한 입찰이 먼저 진행될 것이고, 나머지 400억 바트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다” 국영은행은 정부의 연체금을 약 900억 바트로 추정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은 6월 6일에 300억 바트 대출 입찰을, 6월 13일에 나머지 200억 바트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5.26.)

6. 인 도

■ 몬순, 인도해안에 평소보다 약간 늦게

평소보다 며칠 늦은 금요일, 인도의 남부해안에 장맛비(Monsoon)가 내렸으며 여름작물 생장에 중요한 우기를 기다리던 농가들의 우려를 잠재웠다. 쌀, 콩 및 원면은 인도 북서부 및 남부지역에서 이미 파종이 시작되어 약간 지연된 몬순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시아에 가뭄을 야기하는 엘니뇨는 4개월 장마기간 중 후반부 강우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델리 인도기상청(IMD)의 국가기상예측센터장(NWFC) 야다브는 “장마철 중 첫 달에는 엘니뇨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기상청은 엘니뇨의 높은 발생가능성과 함께 짧은 몬순기간을 예측했다.

기상청직원은 지난 금요일 몬순의 시작을 확인하였다. 몬순은 케랄라 남부지역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되는 강우량 및 편서풍의 속도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장마기간 중 첫 주의 강우량은 인도의 평균 강우량의 약 40%가 감소하였다. 연간강우의 북쪽으로의 진행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6월 상반기까지 인도의 절반을 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인도정부의 올해 이른 작물파종 조언, 원면, 콩, 옥수수 및 대두의 단기중자 이용 조언에 주의를 기울였다. (2014.6.6.)

■ 인도, 옥수수 수출증가 그러나 여전히 연간하락세

인도의 옥수수수출은 풍부한 옥수수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지난 몇 달간 증가하였으나, 2013/14년 전체 선적을 중단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반면, 이러한 연간 하락세는 브라질과 미국과 같은 경쟁 수출국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의 주 수입업자들에게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인도의 최대옥수수 수출업체 Anil Nutrients Ltd의 부사장 Raju Choksi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수출거래가 급등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가로 올해 수출량이 작년보다 나올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옥수수 선적량이 작년 4.7백만 톤에서 2014년 9월까지 3.5-3.7백만 톤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에서 올해 4월 기간동안 수출량은 총 2.1백만 톤으로 2012/13년 동기간보다 약 1백만 톤 적었다고 한다.

니자마바드의 상인에 따르면, 유통년도 시작시점의 인도산 옥수수가격은 톤당 20-25달러로 남미산 옥수수 수출가격(FOB)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Choksi에 따르면, 최근 인도산 옥수수 수출가격(FOB)은 톤당 240달러로 남미산 가격 265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3월에 국내산 겨울옥수수의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2014.6.13.)

7. 호 주

■ 호주, 엘니뇨 발생 가능성 약 70%로 전망

호주 기상청(BOM)은 올해 엘니뇨 발생가능성을 여전히 70%로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4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후모델의 절반이 8월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를 야기하는 엘니뇨는 바람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 다른 지역에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며 곡물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다. (2014.6.3.)

8. 이집트

■ 이집트의 밀 수입규정 조정으로 프랑스산 밀 공급 상황전망

세계 최대 밀 수입국들 중 하나인 이집트는 프랑스산 밀을 제한했었던 까다로운 수분함량 잠재적 완화 등 밀 수입규정을 조정 중에 있다. 이집트의 주요 국가수입처인 GASC와 민간 수입단체들은 연간 10백만 톤의 밀을 수입하며 국제적 밀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프랑스는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밀 공급국으로서 이집트의 엄격한 곡물수분 제한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급참여는 입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이집트가 부담할 비용을 절감시켜줄 것이다.

1월, GASC는 허용 수분함량을 13.5%로 지정했고 2013년 수확분 프랑스산 밀의 평균 수분함량 역시 13.5%였다. 그러나 GASC의 부의장 압텔 파타흐는 제 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밀 수분함량 제한도 13%로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주요 목적은 밀 수입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로이터통신에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수입규정 조정이 있기 전 발언이긴 하지만, GASC 감독기관인 공급부 장관 칼레드 하나피는 수분함량 규정이 변화없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프랑스 밀 상인들은 이 기준에 맞춰 밀을 건조시키도록 권고했다.

GASC의 이러한 수입규정 조정은 2014년 프랑스산 밀 구매허용을 위해 곧 적용될 것이다. 한 유럽상인은 “이는 프랑스 밀 시장에 좋은 소식이다. 현재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으며 프랑스의 수출상인들도 예상치 못한 이집트의 절충안이라고 했다.

한편 상인들과 은행원들에 따르면, 이집트는 감소하는 외환보유고로 국가기관이 구매한 식품에 대한 지불절차가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 유럽상인은 “이러한 수분함량 변화는 프랑스 수출업자들에게 수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집트도 더 많은 수입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뜻한다”고 하며 “이집트는 수입지불액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으며 가장 낮은 가격의 수입보장을 위해 수입국 우선순위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이집트의 대선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용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2014.5.28.)

9. 프랑스

■ 프랑스 옥수수파종 거의 완료

FranceAgriMer의 주간곡물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옥수수파종이 5월 12일까지 목표 재배면적의 약 92%까지 진행되어 거의 완료되었다고 한다. 4월 말 강우로 인해 파종후기단계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작년 파종속도를 앞서고 있어, 전주 83%, 지난 해 77% 대비 상승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작황도 대체로 좋은 편으로 옥수수작물의 91%가 good/excellent rating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다른 겨울곡물도 작년 성장세를 앞서고 있다. 연질맥의 44%가 heading stage로 지난 해 6%에 대비하여 높은 성장률이며, 모든 겨울보리는 heading stage로 작년 38% 대비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질맥과 겨울보리는 지난 3개년 평균 성장속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빠른 상태에 있다. 또한, 3월과 4월 매우 건조한 기후 이후 최근 강우로 인해 봄보리의 작황도 소폭 개선되었다. 봄보리의 약 70%가 good/excellent rating으로 전년 79%, 전주 69% 대비 상승했다. 또한, 밀과 겨울보리의 작황도 전주와 동일하게 각각 73%, 70%가 good/excellent rating이다. (2014.5.17.)

part 04 세계 농업기상 정보

2014 World Grai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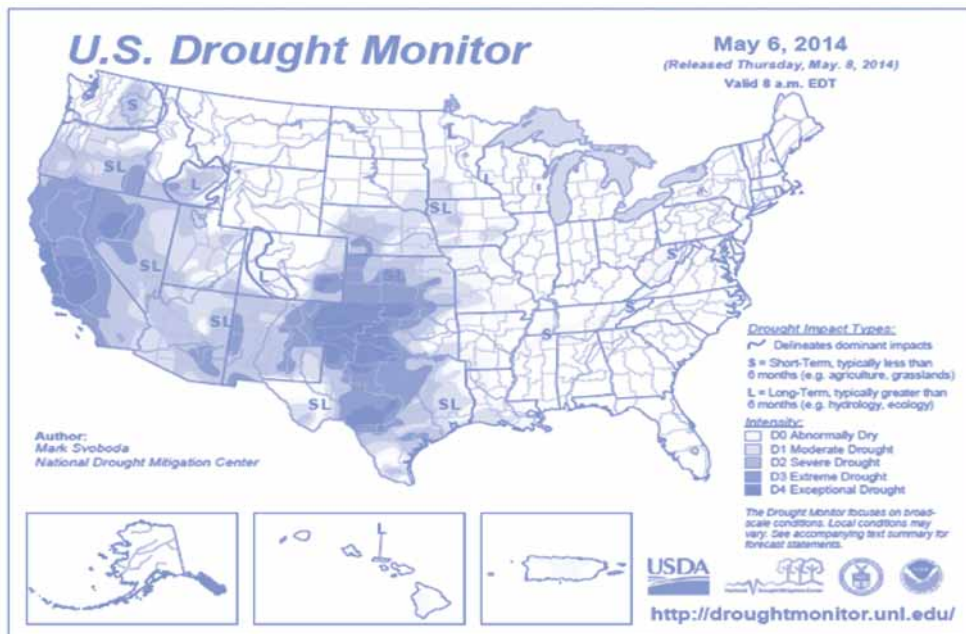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55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미 국

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AND CROP BULLETIN」, Volume 101(No. 19), May 6, 2014.

■ 5월

5월 초순,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며칠간 지속되었고 작물의 파종을 앞당겼으며, 남부와 중서부 지역 여름작물의 출수와 생육상황을 증진시켰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높았고, 평균적으로 5~ 10°F를 기록하였다. 남부 콘벨트 지역과 대서양 연안 주들은 연속적으로 여름 작물의 파종이 이루어졌다. 주 후반으로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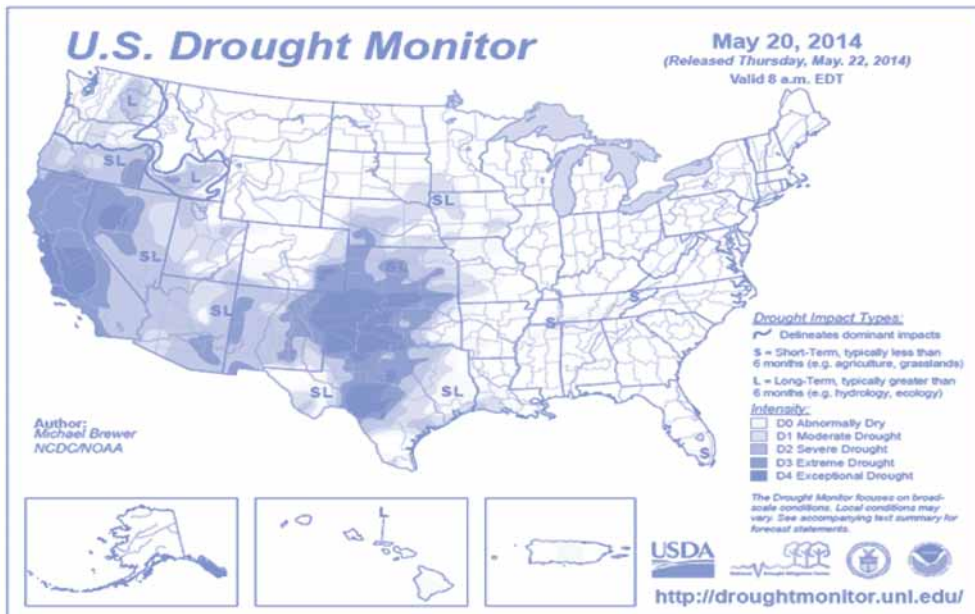
수목 국지적으로 중부 걸프만 연안, 중남부 미시시피, 오하이오 계곡과 같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좀 더 북쪽 지역의 경우, 차고 습도 높은 날씨로 인해 옥수수, 대두, 보밀의 파종 작업이 방해받았다. 북부 평야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5°F를 유지하였다. 남부 고원평야지역에서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폭우가 내리기도 하였다. 이 지역 주간 강수량은 2~4인치 가량이었으며, 북동부 텍사스지역의 경우 좀 더 많은 양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작물 파종 진행과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남부 대평원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가뭄이 가속화되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강수량이 3인치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록키산맥의 동부 전 지역(북부 대평원, 대호지역, 뉴잉글랜드 지역 제외)에서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높거나 평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12°F를 기록하였다.

5월 중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서늘한 대기가 밀려왔다.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어도 1인치 정도의 비가 내렸으며, 동부 텍사스에서 중부와 동부 콘벨트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2~4인치를 기록하였다. 비로 인해 농작업이 줄었으며, 대부분의 중서부와 남부, 동부지역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파종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 중부 지역에서는 서늘한 대기가 형성되었으며, 옥수수와 대두, 보밀 재배지역인 북부 대평원과 중서부 상부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10°F를 기록하였다. 동결로 인해 출수기에 접어든 가을 밀을 위협하게 되었다. 북부 대평원과 콘벨트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는 개화한 과수작목들이 발아가 시작되었다. 며칠간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지만,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서늘한 날씨가 관측되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해안지역과 인접지역의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10°F를 기록하였다. 한 주 동안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남부 고원평야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대평원 서부 모든 지역에서는 한 주간 강수량이 1인치 미만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0.25인치 정도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형성되었으며, 단지 북서부와 록키산맥을 기준으로 서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북부 대평원의 일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10°F보다 높게 나타났다.

5월 하순, 남부 고원평야지역에서는 집중 호우(지역적으로 2~4인치 이상)가 내렸으며, 비가 내리기 앞서 여름 작물의 파종 작업이 촉진되었다. 비는 남부 평야지

역에서 자라고 있는 가을 밀에 혜택을 주기에는 너무 늦게 내린 경향이 있었지만, 방목장, 목초지, 다양한 여름 곡물 등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었다. 중부 평야지대에서는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렸으며, 동부 캔사스 지역에서는 적어도 1~2인치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정하지 않았고, 남서부 캔사스와 남동부 콜로라도 지역을 우회하여 중요한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더 북쪽지역인 북부 평야지역과 중서부 상단지역으로 갈수록 파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지만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였다. 북부 평야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균 3~6°F로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철 농작업은 지속적으로 서늘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로 인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콘벨트 지역에서는 때때로 내리는 소나기에 영향을 받았으며, 강수량이 많거나 야외 농작업을 중단시킬 만큼 내리지는 않았다. 남동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늦봄 농작업을 촉진시켜주었다. 북서부 지역의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남서부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다. 서부 지역의 강수량은 대체로 고립되거나 태풍전선의 발달과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중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1(No. 21), May 20, 2014

2. 유 럽

■ 5월

5월 초순, 대체로 비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겨울 작물에 대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으나, 야외 농작업은 지연되거나 정지되었다. 대서양 연안에서 발생한 폭풍은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발틱의 넓은 곳에 소나기(5~50 mm)를 내리게 하였으며, 밀과 유지식물의 재생산을 전망에 유익한 조건을 유지시켜주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강수량은 독일 지역에서 특히 환영받았으며, 25mm를 초과해 내린 비는 독일 지역에서 지속된 가을-겨울 가뭄을 해갈시켜 주었다. 좀 더 동쪽 지역인 발칸반도의 경우, 천천히 이동하는 지중해 폭풍이 많은 양의 폭우(25~60 mm)를 내리게 하였다. 따라서 농작업은 중단되었지만 재생산에 진입한 겨울 작물에는 충분한 수분을 유지시켜주었다. 소량 또는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린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따뜻한 계절 작물(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요구되는 관개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스페인지역에 한정되어 건조한 날씨가 발생하였으며, 작물의 성숙과 초기 수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중순, 건조하고 평탄한 날씨가 남서부 지역에 형성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양의 비와 국지적으로 천둥을 동반한 날씨가 동유럽에 발생하였다. 천천히 이동하는 지중해 폭풍이 남부 폴란드 지역에서 발칸반도의 경우 지역적으로 25~150mm의 강수량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저지대의 경우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소곡물과 여름 작물의 재파종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낳았으며, 강한 돌풍과, 큰 우박, 토네이도를 양산하였다. 야외 농작업과 작물과 인프라 시설에 피해를 입혀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겨울 곡물과 유채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폭풍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폭우(25mm 이상)가 내렸으며,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증진시켰다. 서부 지역에서는 소량의 비가 내렸으며, 독일은(10~30mm), 프랑스(2~15mm), 영국(5~33mm)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형성되어 최고기온이 35°C 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5월 하순, 홍수가 발생한 발칸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다시 돌아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나기와 천둥번개를 동반한 날씨가 발달하였다. 지난 주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남동부 유럽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주 폭풍은 지역적으로 역사상 기록될 강수량과 피해를 야기하였지만, 유럽 곡물 생산 지역에는 좋은 영향을 주었다.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은 넓은 지역에 소나기와 폭풍우가 형성되게 하였으며, 폭우는(국지적으로 50mm 이상) 서부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서부와 체코에 주로 내렸다. 결과적으로 토양 수분은 가을 밭의 충전과 개화를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었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날씨(평년대비 3~7°C 높음)는 평년보다 한 달 앞선 생육상태를 가져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소나기(5~25mm)가 내렸으며, 겨울 곡물의 성숙도와 수확은 지연시켰지만, 관개가 필요한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충분한 수분을 제공해 주었다.

3. 구소련(서부)

■ 5월

5월 초순, 불안정하게 싸늘한 날씨가 대부분 지역에 지속되었고, 따뜻한 날씨는 남부와 동부 작물 생산 지역에 머물렀다. 정체된 전선의 경계가 북부지역에서는 서늘한 기온을 나타내게 하였고,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서부 농업지역에 나타나게끔 분리되어 나타났다. 벨라루스, 북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형성되어 겨울 작물의 생육이 지연되었으며, 밤시간 기온은 영하 3~0°C를 유지하여 작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북부지역은 폭풍 전선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넓은 지역에 소나기(5~35 mm)가 내렸다. 강수량은 겨울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었지만 봄밀과 여름 작물의 파종시기를 재촉하던 것을 완화시켰다. 남부와 동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평년보다 3°C 높음)이 남부 러시아와 남동부 볼가강 유역의 가을과 봄 작물의 발육상황을 가속화시켰다.

5월 중순, 동부와 남부 생산지역에서는 여름과 같이 고온이 지속되는 날씨였으나, 서부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중부 러시아에서는 정체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평균 5~10°C 높은 날씨가 나타났다. 맑은 날씨는 여름작물의 파종과 겨울 곡물의 발달을 빠르게 하였으며, 주말 낮 최고기온은 35°C에 달했다.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는 더위를 식혀주

었으며, 주요 밀 생산지역에서의 강수량은 5mm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력하며, 느리게 이동하는 지중해성 소나기와 폭풍으로 인해 벨라루스와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강수량은 25~100mm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봄 곡물과 여름 작물 파종과 같은 농작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으며, 충분한 수분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곡물의 생산량 전망을 밝게 하였다.

5월 하순, 2주 연속 정체된 날씨 패턴은 러시아 지역에는 고온 현상을 발생시켰고, 중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폭우가 내리게 하였다. 정체된 고기압 지역인 러시아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맑고 더운 날씨가 유지되었으며, 낮 최고 기온이 30°C 중반으로 나타나 가을 밀의 재생산에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 대체로 가을 밀은 개화단계에 기온에 민감한 작물로 기온이 35°C 이상이 될 경우 단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중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10~60 mm)와 폭풍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옥수수과 소곡물류에 요구되는 토양 수분의 양은 증대시켰지만, 반면 농작업은 지연되었다.

4. 호 주

■ 5월

5월 초순, 서부지역에서는 비(10~50 mm, 국지적으로 더 많은 곳도 있음)가 내려 밀, 보리, 카놀라 파종 작업은 지연되었지만, 발아와 출수에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 남부 호주지역인 Victoria와 New South Wales에서는 15~50 mm의 비가 내려, 겨울 곡물과 유채를 일부 지역에서 파종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초기 작물의 생육에도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북부 New South Wales와 남부 Queensland 지역에 팽배하였으며, 여름 작물의 수확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 작물의 발아와 자리 잡기에 필요한 표토층의 수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호주 남부와 동부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1~2°C 낮았고, 호주 서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기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중순,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강수량이 대체로 5 mm 미만)가 팽배하였다. 건조한 날씨는 겨울 곡물의 파종에는 유리하며, 온난한 날씨와 적합한 표토층의 수분 조합은 밀, 보리, 카놀라의 발달을 도와주었다. 밀 벨트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토양 수분이 감소하였다. 남동부 호주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3°C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하순, 잠시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어, 겨울 작물의 파종을 촉진시켰으며, 서부 호주 지역에서는 비(10~25 mm)가 내려 밀, 보리, 카놀라의 발아와 출수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는 넓은 곳에서 산발적인 소나기(1~5 mm, 국지적으로 10 mm 이상)가 주요 농업생산지역에 내렸으며, 조생 가을 곡물과 유채의 발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북부 New South Wales와 남부 Queensland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2~10mm)가 내렸으며 표토층의 수분을 증진시켜주었고, 지역의 겨울 곡물들의 출수와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밀벨트 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기온은 20°C 초·중반으로 조사되었다.

5. 아르헨티나

■ 5월

5월 초순, 지난 주 기록된 강수량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가 옥수수, 대두, 면화의 수확률은 낮추었다.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25~75 mm)가 내렸으며, 2주째 농작업을 방해하였고, 달갑지 않은 비로 인해 성숙된 면화를 유지되게 하였다. 주 초반 대체로 비가 내렸고, 더욱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낮 최고 기온이 20°C 후반)가 과도한 수분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북부 지역(Salta and Tucuman)에서는 소량에서 적당한 양의 비(5~25 mm)가 내렸지만, 서부 면화 생산지역(Santiago del Estero와 서부 Chaco와 Formosa)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평년대비 기온이 높았다(낮 최고 기온은 20°C 중후반).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팽배하였으며, 대부분의 농업지역에서는 10mm미만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남부 Cordoba와 북부La Pampa에서 남동부 Buenos Aires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mm의 강수량을 기록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옥수수와 대두 수확이 지연되었다. 5월 8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율은 56%p로, 전년 65% 대비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화 수확률은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수확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5월 중순, 오래 지속된 비로 인해 주요 여름 곡물과 유채, 면화 생산지역에서의 수확율이 부진하였다.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의 총 강수량은 5~50mm이었고, 대부분의 비는 주 초반에 내렸다. 파라나 강 유역에서는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가(많은 것은 25 mm 이상) 내렸으며, 몇 주간 지속된 농작업 하기에 좋은 건조한 날씨가 마감되었다. 강수량을 동반한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2~3 °C 높았다, 낮 최고 기온은 20°C 초중반을 기록하였으며, 며칠간 지속된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영하의 날씨는 보고되지 않았다. 계절에 맞지 않는 폭우는 북부 지역에 지속되었으며, 총 강수량은 면화벨트지역(북부 Santa Fe, Formosa)에서 25mm를 기록하였다. 5월 15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율은 30%p로, 전년 60% 대비 3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두 수확율은 69%p로, 전년 85%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5월 하순, 계절에 맞지 않는 비가 전국에 지속적으로 내렸으며, 가을 농작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었다. 북부와 중부 아르헨티나 대부분 지역에서 총 강수량은 25~100mm이었으며, 폭우(50 mm 이상)가 내린 지역은 Buenos Aires, 북부 Cordoba, Tucuman 이었다. 중부 아르헨티나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낮은 수준인 평균 1~3°C를 기록하였다. 중부 Cordoba에서 남서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밤시간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나타났다.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인 다소 낮았고, 큰 비가 내리기 전 낮 최고 기온은 20°C 후반을 기록하였다. 5월 22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율은 31%p로, 전주대비 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63% 대비 3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두 수확율은 73%p로, 전년 90%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6. 브라질

■ 5월

5월 초순,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폭우가 내려 중부 브라질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와 면화의 관개율은 높아진 상황이다. 서부 생산지역의 총 강수량은 10~50mm 정도이다. 남동부 대다수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적절히 수분을 함유한 옥수수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평년대비 높은 기온(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은 남동부 작물의 성장에 건조한 영향력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국지적으로 내린 폭우(25mm 초과)는 Rio Grande do Sul 지역에 지속되었으며, 가을 밀 자리 잡기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였다. 북동부 연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와 코코아, 다른 관개작물에도 충분한 수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중순, 따뜻하고 계절에 적합한 건조한 날씨가 서부에서 중부 브라질 지역에 확장되었으며, 옥수수와 면화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to Grosso와 Mato Grosso do Sul과 같은 서부 생산 지역에서는 소나기(10~50 mm)가 내렸지만,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남동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와 커피의 후기 시즌 발달에 필요한 수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부와 남부 브라질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1~2°C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동부 연안지역에서는 계절성 소나기(10~100 mm)가 내려서, 사탕수수, 코코아, 타 작물의 수분 보유율을 증가시켜 주었다.

5월 하순, 브라질 남부와 서부의 주요 농업생산지역에 소나기가 확장되어 내렸으며, 미성숙한 작물의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었다. Mato Grosso에서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75mm이었으며, Rio Grande do Sul과 Santa Catarina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부 커피 생산지역인 Minas Gerais에서는 소량의 비(10 mm)가 내렸고, 북부 지역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는 소나기(10~50 mm)가 내려 옥수수의 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되었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평년대비 다소 더운 날씨는(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 2~3°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이 30°C 초·중반 기록) 북부 Goiás와 Minas Gerais 지역에 계속되었다. 인근 Tocantins와 Bahia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였고, 사프리카 옥수수, 면화의 발달이 서둘러졌다. 건조한 날씨(총 강수량은 25 mm 이하)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생산지역에 팽배하게 나타났다.

7. 동아시아

■ 5월

5월 초순, 중국 동부지역에서는 작물의 봄철 발아에 유익한 소나기가 내렸으나, 북동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중국 남부 대부분의 지역과 양쯔강 유역에서는 폭우(50~150 mm)가 내렸으며, 일모작 쌀과 다른 여름 작물들의 수분 공급을 증진시켰다. 지난 2주 동안 강수량은 작물의 수분 이용가능성을 향상시켜 주었다. 북중국 대평원에서는 소나기(15~50 mm)가 내렸으며, 새롭게 파종된 여름작물인 면화, 옥수수, 땅콩, 대두와 같은 작물에 유익하였다. 그러나 가을밀의 성숙 단계인 충전중인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은 조건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여름작물들이 성장하는 시기인 요즘 평년보다 다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5월 중순, 중국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내린 소나기는 여름작물에 이로웠으며, 건조한 날씨는 겨울 작물의 성숙과 수확을 도왔다. 중국 북동부지역에서는 강수량이 30mm를 기록하였으며, 옥수수와 대두의 발아와 출수에 도움을 주었다. 랴오닝성과 인근 내몽골 지역에서는 비슷한 강수량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옥수수 출수에는 도움을 주었다. 북부 중국 대평원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을 밀(수확은 6월부터 시작됨)은 성숙하여 충전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양쯔계곡에서는 비 내리는 날씨(10~25 mm)가 겨울 유지작물의 수확을 느리게 하였지만 여름 작물에 대한 수분 조건을 좋게 유지해 주었다. 남부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려(25~100 mm), 계절 총 강수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쌀의 생육상황에 이로운 조건을 제공하였다. 한국에서는 쌀이 자라기에 적합한 소나기(20~60mm)가 내렸지만 일본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5월 하순,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꾸준히 내렸으며, 북동부 지역에서 주초에 12mm정도의 비가 내렸다. 옥수수와 대두의 출수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북부 중국 평야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가을밀의 성숙을 도와주었으며, 15~40mm의 비가 내려 최근 파종된 여름 작물의 수분 공급에 이로웠다. 양쯔계곡 유역에서는 10~25mm의 비가 내렸는데, 평년보다 많은 양이며, 옥수수, 면화, 쌀의 생육상태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남부 중국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렸으며, 한 주 동안 100mm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part 05 [부록]

2014 World Grain Market



세계 곡물 통계 / 167

국가별 보리 통계 / 171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44,412	269,908	11,258	12,413	270,066	52,606	1.87
1981/1982	144,375	277,902	10,232	11,726	278,456	50,503	1.92
1982/1983	140,526	284,974	9,884	10,731	277,833	56,781	2.03
1983/1984	144,613	306,942	10,708	12,515	292,600	69,316	2.12
1984/1985	144,067	316,758	10,615	10,740	298,287	87,662	2.20
1985/1986	144,728	317,986	10,311	11,485	306,784	97,690	2.20
1986/1987	144,809	316,051	10,686	13,063	308,060	103,304	2.18
1987/1988	141,432	315,092	10,452	11,572	312,026	105,250	2.23
1988/1989	146,582	332,117	11,701	14,015	323,373	111,680	2.27
1989/1990	147,811	345,247	10,589	11,484	335,392	120,640	2.34
1990/1991	146,966	351,371	10,593	12,115	343,821	126,668	2.39
1991/1992	147,486	353,235	12,028	14,453	350,794	126,684	2.40
1992/1993	146,480	354,003	12,954	14,876	355,574	123,191	2.42
1993/1994	145,332	354,700	16,138	15,837	359,239	118,953	2.44
1994/1995	147,342	364,148	19,380	21,058	363,850	117,573	2.47
1995/1996	148,352	368,791	18,127	19,820	366,581	118,090	2.49
1996/1997	150,083	381,382	16,666	19,110	376,768	120,260	2.54
1997/1998	151,708	387,433	24,232	26,646	377,539	127,740	2.55
1998/1999	153,114	394,915	25,219	25,633	388,228	134,013	2.58
1999/2000	155,860	409,176	20,263	22,831	397,551	143,070	2.63
2000/2001	152,443	399,260	22,073	23,988	393,678	146,737	2.62
2001/2002	151,349	399,472	25,969	26,782	412,503	132,893	2.64
2002/2003	146,894	378,199	26,297	28,659	405,765	102,965	2.57
2003/2004	149,316	392,312	25,012	27,406	411,293	81,590	2.63
2004/2005	151,839	400,920	25,980	28,275	406,342	73,873	2.64
2005/2006	154,006	417,898	26,535	29,728	412,260	76,318	2.71
2006/2007	154,597	420,454	28,583	31,437	418,749	75,169	2.72
2007/2008	154,696	432,946	30,027	31,472	425,825	80,845	2.80
2008/2009	158,096	449,129	27,395	28,955	436,014	92,400	2.84
2009/2010	155,755	440,947	28,180	31,359	435,550	94,618	2.83
2010/2011	158,184	449,946	33,003	35,182	442,774	99,611	2.84
2011/2012	160,224	466,920	35,710	39,885	455,592	106,764	2.91
2012/2013	158,017	471,596	36,631	39,476	465,311	110,204	2.98
2013/2014	160,809	477,474	38,634	40,652	473,531	112,129	2.97
2014/2015	161,626	480,719	38,317	41,400	479,100	110,665	2.97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36,901	435,867	89,496	90,126	443,433	112,657	1.84
1981/1982	238,911	444,995	97,042	100,376	441,758	112,545	1.86
1982/1983	238,353	472,739	93,230	100,949	447,850	129,929	1.98
1983/1984	229,923	484,307	97,994	101,794	465,073	145,359	2.11
1984/1985	231,669	508,913	101,573	103,646	484,075	168,124	2.20
1985/1986	229,826	494,811	80,505	82,452	482,527	178,470	2.15
1986/1987	227,895	524,082	86,488	89,274	508,470	191,296	2.30
1987/1988	220,087	498,710	112,247	111,565	531,254	159,434	2.27
1988/1989	217,878	495,276	102,384	105,151	516,684	135,259	2.27
1989/1990	226,333	533,132	98,797	103,419	526,684	137,085	2.36
1990/1991	231,015	588,801	99,003	103,843	549,477	171,569	2.55
1991/1992	222,770	543,510	108,361	109,948	550,254	163,238	2.44
1992/1993	222,061	562,634	108,810	110,039	546,474	177,869	2.53
1993/1994	221,044	558,470	98,561	103,717	547,828	183,355	2.53
1994/1995	213,326	523,031	99,877	98,215	543,801	164,247	2.45
1995/1996	216,715	537,516	97,293	99,195	544,183	155,678	2.48
1996/1997	227,103	581,345	98,470	106,924	564,908	163,661	2.56
1997/1998	226,424	610,232	103,698	104,370	575,938	197,283	2.70
1998/1999	219,179	590,436	100,068	101,298	576,979	209,510	2.69
1999/2000	212,528	586,828	109,171	113,402	581,215	210,892	2.76
2000/2001	215,582	583,312	99,955	101,334	585,548	207,277	2.71
2001/2002	214,460	583,791	106,235	105,870	586,994	204,439	2.72
2002/2003	213,431	569,607	103,750	105,551	602,336	169,909	2.67
2003/2004	207,629	555,286	100,966	108,645	581,824	135,692	2.67
2004/2005	215,813	626,705	110,421	111,310	605,028	156,480	2.90
2005/2006	217,645	618,873	111,691	117,272	615,343	154,429	2.84
2006/2007	211,568	596,527	114,022	111,702	618,781	134,495	2.82
2007/2008	217,099	612,651	113,467	116,719	614,543	129,351	2.82
2008/2009	224,079	683,530	137,662	144,185	637,122	169,236	3.05
2009/2010	225,384	687,088	133,611	137,087	650,909	201,939	3.05
2010/2011	216,991	650,794	131,671	132,803	653,413	198,188	3.00
2011/2012	220,770	695,991	149,304	158,212	688,008	197,263	3.15
2012/2013	216,026	657,305	144,248	137,177	686,360	175,279	3.04
2013/2014	220,452	713,969	155,187	162,748	695,639	186,048	3.24
2014/2015	222,591	701,621	150,194	152,084	697,170	188,609	3.15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31,189	408,734	74,263	80,308	411,826	102,541	3.12
1981/1982	133,040	441,753	72,177	68,083	421,225	127,163	3.32
1982/1983	125,245	439,869	66,623	59,535	424,356	149,764	3.51
1983/1984	119,699	348,272	58,542	60,955	406,641	88,982	2.91
1984/1985	128,969	458,366	66,256	67,008	428,446	118,150	3.55
1985/1986	130,999	479,020	53,470	55,302	417,666	177,672	3.66
1986/1987	131,859	475,444	52,484	55,077	445,661	204,862	3.61
1987/1988	126,860	450,997	57,323	59,128	456,354	197,675	3.56
1988/1989	126,108	400,413	66,465	68,461	450,832	145,260	3.18
1989/1990	127,310	461,690	73,603	72,176	475,526	132,851	3.63
1990/1991	129,102	481,963	58,547	58,389	473,577	141,395	3.73
1991/1992	132,498	492,950	63,107	62,053	494,366	141,033	3.72
1992/1993	133,080	535,605	60,289	63,263	509,088	162,714	4.02
1993/1994	130,703	475,773	56,973	58,861	507,161	129,438	3.64
1994/1995	135,169	559,332	68,911	66,126	538,207	153,348	4.14
1995/1996	134,966	516,371	65,702	70,422	531,717	133,282	3.83
1996/1997	141,477	592,817	64,846	65,572	559,029	166,344	4.19
1997/1998	136,250	574,378	63,206	63,347	573,373	167,208	4.22
1998/1999	138,919	605,803	66,506	66,938	581,213	191,366	4.36
1999/2000	138,979	608,409	70,930	75,541	600,783	194,381	4.38
2000/2001	137,075	591,760	74,896	76,722	609,041	175,274	4.32
2001/2002	137,341	601,817	71,482	74,579	622,500	151,494	4.38
2002/2003	137,440	603,872	75,699	76,746	627,453	126,866	4.39
2003/2004	141,694	627,447	76,829	77,135	649,316	104,691	4.43
2004/2005	145,401	716,804	75,948	77,659	688,508	131,276	4.93
2005/2006	145,388	700,696	80,130	80,904	706,700	124,498	4.82
2006/2007	150,349	716,621	90,159	93,905	726,650	110,723	4.77
2007/2008	160,391	795,539	98,203	98,554	774,195	131,716	4.96
2008/2009	158,696	800,943	82,255	84,169	783,290	147,455	5.05
2009/2010	158,684	825,566	89,622	96,644	819,373	146,626	5.20
2010/2011	164,638	835,919	92,311	91,259	853,500	130,097	5.08
2011/2012	172,162	889,327	99,900	116,980	867,736	134,608	5.17
2012/2013	177,229	868,796	99,429	95,207	869,486	138,140	4.90
2013/2014	177,376	981,889	116,694	124,157	943,519	169,047	5.54
2014/2015	177,251	981,123	114,772	115,522	966,773	182,647	5.54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49,761	80,926	26,217	25,342	83,920	16,545	1.63
1981/1982	49,971	86,083	29,107	29,316	87,316	15,103	1.72
1982/1983	52,060	93,455	28,366	28,617	90,959	17,348	1.80
1983/1984	50,748	83,104	25,485	26,221	86,021	13,695	1.64
1984/1985	53,713	93,063	25,419	25,249	88,988	17,940	1.73
1985/1986	51,991	97,006	27,325	26,061	92,635	23,575	1.87
1986/1987	51,577	98,049	29,071	28,552	102,119	20,024	1.90
1987/1988	54,062	103,654	28,143	30,114	101,095	20,612	1.92
1988/1989	55,659	95,857	23,901	23,558	97,620	19,192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275	104,154	21,517	1.84
1990/1991	54,419	104,290	25,546	25,392	104,625	21,347	1.92
1991/1992	54,944	107,297	28,220	28,098	109,293	19,391	1.95
1992/1993	56,595	117,206	30,047	29,296	115,900	21,448	2.07
1993/1994	60,258	117,582	28,178	27,729	120,823	18,656	1.95
1994/1995	62,150	137,646	32,762	31,982	132,407	24,675	2.21
1995/1996	61,063	124,700	32,462	31,643	131,700	18,494	2.04
1996/1997	62,431	131,942	35,631	36,764	134,012	15,291	2.11
1997/1998	68,528	157,950	38,164	39,314	145,100	26,991	2.30
1998/1999	71,299	159,826	38,550	37,928	158,701	28,738	2.24
1999/2000	71,876	160,307	45,522	45,634	159,309	29,624	2.23
2000/2001	75,592	175,849	53,089	53,817	171,611	33,134	2.33
2001/2002	79,605	184,917	54,356	53,012	184,306	35,089	2.32
2002/2003	81,617	196,942	62,884	61,321	191,084	42,510	2.41
2003/2004	88,583	186,776	54,037	56,046	188,911	38,366	2.11
2004/2005	93,350	215,896	63,561	64,754	204,333	48,736	2.31
2005/2006	93,115	220,870	64,099	63,852	215,983	53,870	2.37
2006/2007	94,569	236,309	68,906	71,137	224,976	62,972	2.50
2007/2008	90,853	219,017	78,373	78,321	229,556	52,485	2.41
2008/2009	96,533	211,884	77,426	77,212	221,464	43,119	2.19
2009/2010	102,255	260,600	86,817	91,440	238,152	60,944	2.55
2010/2011	103,228	264,145	88,760	91,700	251,794	70,355	2.56
2011/2012	103,141	239,525	93,456	92,151	257,592	53,593	2.32
2012/2013	109,152	267,853	95,564	100,648	259,319	57,043	2.45
2013/2014	113,101	283,788	107,381	110,992	270,052	67,168	2.51
2014/2015	115,694	299,995	108,678	112,326	280,631	82,884	2.59

국가별 보리 통계

□ 한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331	811	0	0	1,163	378	2.45
1981/1982	353	859	0	0	1,189	48	2.43
1982/1983	317	749	0	0	704	93	2.36
1983/1984	322	815	114	0	932	90	2.53
1984/1985	338	804	0	0	894	0	2.38
1985/1986	237	571	0	0	571	0	2.41
1986/1987	190	453	0	0	453	0	2.38
1987/1988	206	516	0	0	516	0	2.5
1988/1989	195	780	17	0	797	0	4
1989/1990	179	715	32	0	747	0	3.99
1990/1991	160	576	47	0	623	0	3.6
1991/1992	127	485	76	0	561	0	3.82
1992/1993	103	449	55	0	504	0	4.36
1993/1994	171	450	67	0	517	0	2.63
1994/1995	85	324	121	0	445	0	3.81
1995/1996	90	403	52	0	455	0	4.48
1996/1997	95	412	81	0	493	0	4.34
1997/1998	69	266	65	0	331	0	3.86
1998/1999	83	157	113	0	270	0	1.89
1999/2000	77	336	106	0	442	0	4.36
2000/2001	68	229	85	0	314	0	3.37
2001/2002	91	383	102	0	485	0	4.21
2002/2003	81	305	65	0	328	42	3.77
2003/2004	65	249	67	0	327	31	3.83
2004/2005	63	278	63	0	325	47	4.41
2005/2006	61	287	41	0	305	70	4.7
2006/2007	57	148	53	0	254	17	2.6
2007/2008	54	169	24	0	189	21	3.13
2008/2009	54	170	49	0	202	38	3.15
2009/2010	49	149	38	0	174	51	3.04
2010/2011	39	81	46	0	126	52	2.08
2011/2012	40	130	73	0	202	53	3.25
2012/2013	40	130	73	0	206	50	3.25
2013/2014	40	130	75	0	205	50	3.25
2014/2015	40	130	75	0	205	50	3.25

□ 러시아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7/1988	16,621	26,101	2,940	115	25,494	3,432	1.57
1988/1989	15,866	19,418	1,670	195	22,928	1,397	1.22
1989/1990	14,660	22,201	2,190	105	24,508	1,175	1.51
1990/1991	13,210	27,235	3,055	70	30,530	865	2.06
1991/1992	14,630	22,174	809	105	23,454	289	1.52
1992/1993	14,050	26,989	1,159	100	27,357	980	1.92
1993/1994	14,910	26,900	83	185	26,824	954	1.8
1994/1995	15,750	27,000	564	2,031	24,087	2,400	1.71
1995/1996	12,530	15,800	666	800	17,566	500	1.26
1996/1997	10,540	15,932	474	149	16,400	357	1.51
1997/1998	11,860	20,786	168	1,502	16,550	3,259	1.75
1998/1999	7,110	9,797	335	115	12,900	376	1.38
1999/2000	7,450	10,602	839	91	11,400	326	1.42
2000/2001	8,460	14,078	413	573	12,700	1,544	1.66
2001/2002	9,710	19,533	201	2,593	14,250	4,435	2.01
2002/2003	9,490	18,738	251	3,132	15,500	4,792	1.97
2003/2004	9,250	18,003	439	2,318	18,600	2,316	1.95
2004/2005	9,570	17,180	272	1,089	16,500	2,179	1.8
2005/2006	8,700	15,791	189	1,726	15,500	933	1.82
2006/2007	9,600	18,155	246	1,547	16,400	1,387	1.89
2007/2008	8,360	15,663	199	1,046	15,050	1,153	1.87
2008/2009	9,440	23,148	56	3,444	17,100	3,813	2.45
2009/2010	7,720	17,881	8	2,657	16,650	2,395	2.32
2010/2011	4,970	8,350	408	267	9,500	1,386	1.68
2011/2012	7,695	16,938	368	3,544	14,300	848	2.2
2012/2013	7,631	13,952	262	2,236	12,100	726	1.83
2013/2014	8,024	15,389	300	2,500	12,800	1,115	1.92
2014/2015	8,200	16,000	200	3,500	13,200	615	1.95

□ 중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850	4,411	79	0	4,459	1,006	2.38
1981/1982	1,811	4,329	155	0	4,552	938	2.39
1982/1983	1,819	4,401	107	0	4,513	933	2.42
1983/1984	1,814	4,387	100	0	4,467	953	2.42
1984/1985	1,951	4,583	40	0	4,529	1,047	2.35
1985/1986	1,748	4,714	325	0	4,960	1,126	2.7
1986/1987	1,913	4,803	518	0	5,145	1,302	2.51
1987/1988	1,941	5,096	332	0	5,399	1,331	2.63
1988/1989	2,022	5,166	256	0	5,415	1,338	2.55
1989/1990	1,848	4,852	581	0	5,417	1,354	2.63
1990/1991	1,809	4,903	915	0	5,652	1,520	2.71
1991/1992	1,618	4,622	1,009	0	5,714	1,437	2.86
1992/1993	1,526	4,665	647	0	5,673	1,076	3.06
1993/1994	1,355	4,327	1,318	0	5,743	978	3.19
1994/1995	1,395	4,411	1,365	1	5,854	899	3.16
1995/1996	1,283	4,089	1,399	0	5,550	837	3.19
1996/1997	1,300	4,000	2,036	7	5,700	1,166	3.08
1997/1998	1,300	4,000	1,176	0	5,575	767	3.08
1998/1999	904	2,656	1,955	6	5,209	163	2.94
1999/2000	868	2,970	2,244	1	5,200	176	3.42
2000/2001	791	2,646	2,305	1	4,900	226	3.35
2001/2002	770	2,893	1,913	0	4,500	532	3.76
2002/2003	914	3,322	1,792	4	4,900	742	3.63
2003/2004	775	2,717	1,519	2	4,700	276	3.51
2004/2005	785	3,222	2,049	3	5,350	194	4.1
2005/2006	850	3,400	2,217	3	5,400	408	4
2006/2007	832	3,115	1,127	49	4,200	401	3.74
2007/2008	773	2,785	1,091	81	3,800	396	3.6
2008/2009	794	2,823	1,551	17	4,300	453	3.56
2009/2010	626	2,318	2,341	13	4,500	599	3.7
2010/2011	580	1,972	1,656	9	4,050	168	3.4
2011/2012	511	1,637	2,541	4	3,800	542	3.2
2012/2013	490	1,626	2,184	1	4,000	351	3.32
2013/2014	450	1,500	3,300	5	4,700	446	3.33
2014/2015	430	1,400	3,000	0	4,500	346	3.26

□ 호주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451	2,682	0	1,298	1,314	125	1.09
1981/1982	2,685	3,450	0	1,834	1,691	50	1.28
1982/1983	2,452	1,939	0	480	1,419	90	0.79
1983/1984	3,109	4,890	0	3,781	1,146	53	1.57
1984/1985	3,518	5,554	0	4,643	766	198	1.58
1985/1986	3,284	4,868	0	3,661	1,321	84	1.48
1986/1987	2,313	3,611	0	2,211	1,413	71	1.56
1987/1988	2,384	3,477	0	1,639	1,826	219	1.46
1988/1989	2,231	3,306	0	1,364	1,600	561	1.48
1989/1990	2,310	4,121	0	2,579	1,777	326	1.78
1990/1991	2,556	4,184	0	2,500	1,955	55	1.64
1991/1992	2,744	4,606	0	2,107	1,732	822	1.68
1992/1993	2,982	5,460	0	2,416	2,834	1,032	1.83
1993/1994	3,424	6,956	0	4,436	3,034	518	2.03
1994/1995	2,470	2,913	66	1,144	2,142	211	1.18
1995/1996	3,111	5,823	18	3,375	2,323	354	1.87
1996/1997	3,366	6,696	9	3,950	2,746	363	1.99
1997/1998	3,521	6,482	36	3,005	3,041	835	1.84
1998/1999	3,167	5,987	13	4,240	2,130	465	1.89
1999/2000	2,596	5,032	15	2,565	2,560	387	1.94
2000/2001	3,454	6,743	0	3,967	2,200	963	1.95
2001/2002	3,707	8,280	0	4,676	2,800	1,767	2.23
2002/2003	3,864	3,865	0	1,984	2,700	948	1
2003/2004	4,477	10,387	0	6,398	3,050	1,887	2.32
2004/2005	4,646	7,740	0	4,261	3,500	1,866	1.67
2005/2006	4,406	9,483	0	5,267	3,500	2,582	2.15
2006/2007	4,182	4,257	0	1,851	4,000	988	1.02
2007/2008	4,902	7,159	0	3,386	3,100	1,661	1.46
2008/2009	5,015	7,996	0	3,234	4,000	2,423	1.59
2009/2010	4,422	7,865	0	3,915	4,500	1,873	1.78
2010/2011	3,681	7,995	0	4,664	4,200	1,004	2.17
2011/2012	3,718	8,221	0	5,376	3,300	549	2.21
2012/2013	3,622	7,466	0	4,482	3,000	533	2.06
2013/2014	4,000	9,600	0	6,000	3,700	433	2.4
2014/2015	3,800	8,100	0	4,700	3,300	533	2.13

☐ 유럽연합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9/2000	14,780	59,378	177	9,708	53,347	11,691	4.02
2000/2001	14,112	60,061	370	7,162	55,942	9,018	4.26
2001/2002	14,148	58,928	1,351	4,151	55,146	10,000	4.17
2002/2003	14,041	58,339	1,096	5,214	55,574	8,647	4.15
2003/2004	14,096	55,923	679	2,607	58,167	4,475	3.97
2004/2005	13,776	64,265	297	3,207	54,790	11,040	4.67
2005/2006	13,835	54,902	81	3,257	54,266	8,500	3.97
2006/2007	13,893	56,430	245	3,394	55,943	5,838	4.06
2007/2008	13,857	57,765	337	3,760	54,450	5,730	4.17
2008/2009	14,564	65,759	301	3,569	57,270	10,951	4.52
2009/2010	14,000	62,393	101	1,123	56,770	15,552	4.46
2010/2011	12,530	53,691	178	4,873	56,610	7,938	4.29
2011/2012	11,949	51,883	456	3,008	51,200	6,069	4.34
2012/2013	12,511	54,897	66	4,939	51,000	5,093	4.39
2013/2014	12,349	59,607	50	5,800	53,700	5,250	4.83
2014/2015	12,219	55,884	50	5,800	51,000	4,384	4.57

□ 우크라이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7/1988	4,077	12,190	230	1,655	10,817	848	2.99
1988/1989	3,658	8,751	1,160	1,345	8,578	836	2.39
1989/1990	3,234	10,090	550	1,090	9,677	709	3.12
1990/1991	2,729	9,168	500	350	9,307	720	3.36
1991/1992	3,190	8,047	435	275	8,306	621	2.52
1992/1993	3,451	10,106	325	180	10,319	553	2.93
1993/1994	4,215	13,550	0	275	11,729	2,099	3.21
1994/1995	5,092	14,508	0	410	13,722	2,475	2.85
1995/1996	4,413	9,633	1	875	10,834	400	2.18
1996/1997	3,426	5,725	0	325	5,500	300	1.67
1997/1998	3,704	7,407	0	540	5,767	1,400	2
1998/1999	3,567	5,870	0	975	5,545	750	1.65
1999/2000	3,475	6,425	12	776	5,650	761	1.85
2000/2001	3,690	6,872	29	1,016	5,800	846	1.86
2001/2002	3,921	10,186	94	2,802	7,000	1,324	2.6
2002/2003	4,153	10,364	262	2,883	7,400	1,667	2.5
2003/2004	4,601	6,833	133	1,517	6,400	716	1.49
2004/2005	4,515	11,084	7	4,312	6,500	995	2.45
2005/2006	4,350	8,975	61	3,959	5,300	772	2.06
2006/2007	5,236	11,341	14	5,103	6,300	724	2.17
2007/2008	4,088	5,981	49	1,044	5,000	710	1.46
2008/2009	4,167	12,612	4	6,371	5,900	1,055	3.03
2009/2010	4,994	11,833	11	6,232	5,600	1,067	2.37
2010/2011	4,317	8,484	37	2,794	6,000	794	1.97
2011/2012	3,684	9,098	42	2,462	6,300	1,172	2.47
2012/2013	3,293	6,935	0	2,134	5,100	873	2.11
2013/2014	3,233	7,561	25	2,500	5,100	859	2.34
2014/2015	3,000	7,000	5	2,000	5,000	864	2.33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938	7,863	128	1,647	7,537	2,990	2.68
1981/1982	3,658	10,310	150	2,142	8,090	3,218	2.82
1982/1983	3,647	11,233	182	962	8,953	4,718	3.08
1983/1984	3,934	11,066	110	1,934	9,836	4,124	2.81
1984/1985	4,540	13,021	162	1,560	10,361	5,386	2.87
1985/1986	4,691	12,850	136	429	10,818	7,125	2.74
1986/1987	4,846	13,249	145	2,909	10,288	7,322	2.73
1987/1988	4,029	11,354	246	2,634	9,296	6,992	2.82
1988/1989	3,090	6,314	229	1,727	7,532	4,276	2.04
1989/1990	3,364	8,800	285	1,937	7,923	3,501	2.62
1990/1991	3,047	9,192	293	1,739	8,299	2,948	3.02
1991/1992	3,405	10,110	534	2,058	8,734	2,800	2.97
1992/1993	2,948	9,908	248	1,748	7,916	3,292	3.36
1993/1994	2,733	8,666	1,556	1,438	9,053	3,023	3.17
1994/1995	2,698	8,162	1,434	1,442	8,726	2,451	3.03
1995/1996	2,541	7,824	887	1,359	7,635	2,168	3.08
1996/1997	2,714	8,544	801	671	8,459	2,383	3.15
1997/1998	2,508	7,835	876	1,619	6,879	2,596	3.12
1998/1999	2,369	7,655	649	621	7,195	3,084	3.23
1999/2000	1,851	5,922	602	613	6,571	2,424	3.2
2000/2001	2,104	6,919	636	1,258	6,407	2,314	3.29
2001/2002	1,729	5,407	521	575	5,661	2,006	3.13
2002/2003	1,669	4,940	402	659	5,179	1,510	2.96
2003/2004	1,913	6,059	449	409	4,990	2,619	3.17
2004/2005	1,627	6,091	264	506	5,672	2,796	3.74
2005/2006	1,323	4,613	117	606	4,570	2,350	3.49
2006/2007	1,194	3,923	264	441	4,596	1,500	3.29
2007/2008	1,417	4,575	636	902	4,324	1,485	3.23
2008/2009	1,529	5,230	632	288	5,127	1,932	3.42
2009/2010	1,260	4,949	361	123	4,604	2,515	3.93
2010/2011	998	3,925	207	165	4,537	1,945	3.93
2011/2012	906	3,392	354	193	4,192	1,306	3.74
2012/2013	1,313	4,796	507	193	4,666	1,750	3.65
2013/2014	1,214	4,683	394	303	4,680	1,844	3.86
2014/2015	1,133	4,267	544	218	4,659	1,778	3.77

□ 캐나다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4,634	11,259	9	3,236	6,835	3,203	2.43
1981/1982	5,476	13,724	2	5,722	7,046	4,161	2.51
1982/1983	5,149	13,966	0	5,648	7,275	5,204	2.71
1983/1984	4,353	10,209	0	5,268	8,174	1,971	2.35
1984/1985	4,566	10,279	84	2,604	7,574	2,156	2.25
1985/1986	4,750	12,387	6	3,592	7,653	3,304	2.61
1986/1987	4,829	14,568	0	6,528	8,172	3,172	3.02
1987/1988	4,993	13,916	0	4,374	9,007	3,707	2.79
1988/1989	4,191	10,326	0	2,608	8,625	2,800	2.46
1989/1990	4,727	11,784	3	4,234	8,297	2,056	2.49
1990/1991	4,529	13,441	0	4,656	8,195	2,646	2.97
1991/1992	4,217	11,617	2	3,312	8,338	2,615	2.75
1992/1993	3,792	11,032	3	2,454	7,925	3,271	2.91
1993/1994	4,159	12,972	1	3,564	9,304	3,376	3.12
1994/1995	4,093	11,692	5	2,934	10,319	1,820	2.86
1995/1996	4,363	13,033	10	2,564	10,550	1,749	2.99
1996/1997	4,888	15,562	19	3,360	11,051	2,919	3.18
1997/1998	4,700	13,527	20	2,218	11,789	2,459	2.88
1998/1999	4,272	12,709	39	1,134	11,336	2,737	2.98
1999/2000	4,069	13,196	33	1,709	11,419	2,838	3.24
2000/2001	4,468	13,229	38	1,971	11,618	2,516	2.96
2001/2002	4,150	10,846	105	1,164	10,405	1,898	2.61
2002/2003	3,342	7,468	247	427	7,711	1,475	2.23
2003/2004	4,397	12,164	31	1,854	9,714	2,102	2.77
2004/2005	3,841	12,557	81	1,175	10,130	3,435	3.27
2005/2006	3,634	11,678	44	2,232	9,636	3,289	3.21
2006/2007	3,223	9,573	43	1,232	10,182	1,491	2.97
2007/2008	3,963	10,910	55	3,046	7,842	1,568	2.75
2008/2009	3,504	11,786	42	1,483	8,949	2,964	3.36
2009/2010	2,922	9,528	36	1,309	8,717	2,502	3.26
2010/2011	2,394	7,627	44	1,207	7,464	1,502	3.19
2011/2012	2,402	7,892	16	1,299	6,916	1,195	3.29
2012/2013	2,751	8,012	19	1,434	6,809	983	2.91
2013/2014	2,650	10,250	25	1,600	7,900	1,758	3.87
2014/2015	2,270	7,200	25	1,200	6,800	983	3.17

□ 아르헨티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73	217	0	8	220	6	1.25
1981/1982	115	132	0	5	130	3	1.15
1982/1983	119	211	0	40	172	2	1.77
1983/1984	96	166	0	22	144	2	1.73
1984/1985	137	238	0	30	164	46	1.74
1985/1986	137	130	0	5	145	26	0.95
1986/1987	94	140	0	12	128	26	1.49
1987/1988	131	282	0	35	235	38	2.15
1988/1989	139	329	0	105	206	56	2.37
1989/1990	162	365	0	50	290	81	2.25
1990/1991	149	327	1	52	272	85	2.19
1991/1992	233	573	0	100	390	168	2.46
1992/1993	229	583	0	150	400	201	2.55
1993/1994	199	459	0	125	330	205	2.31
1994/1995	149	345	8	25	333	200	2.32
1995/1996	218	386	17	11	379	213	1.77
1996/1997	250	536	127	250	407	219	2.14
1997/1998	323	926	7	140	550	462	2.87
1998/1999	212	538	7	109	425	473	2.54
1999/2000	185	420	10	32	475	396	2.27
2000/2001	248	722	0	211	475	432	2.91
2001/2002	246	530	0	89	475	398	2.15
2002/2003	251	550	0	102	475	371	2.19
2003/2004	334	1,005	0	191	625	560	3.01
2004/2005	275	895	0	316	625	514	3.25
2005/2006	267	799	0	353	550	410	2.99
2006/2007	355	1,330	0	531	825	384	3.75
2007/2008	453	1,600	0	911	825	248	3.53
2008/2009	633	2,110	0	1,018	895	445	3.33
2009/2010	503	1,356	0	482	990	329	2.7
2010/2011	750	2,950	0	1,614	1,135	530	3.93
2011/2012	1,160	4,500	0	3,616	1,200	214	3.88
2012/2013	1,500	5,000	0	3,581	1,300	333	3.33
2013/2014	1,270	4,750	0	3,000	1,400	683	3.74
2014/2015	1,000	3,850	0	2,500	1,500	533	3.85

□ 터키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800	5,300	0	336	4,914	550	1.89
1981/1982	2,965	5,900	0	197	5,453	800	1.99
1982/1983	3,137	6,400	0	741	5,559	900	2.04
1983/1984	2,900	5,425	332	296	5,611	750	1.87
1984/1985	3,250	6,500	463	326	6,237	1,150	2
1985/1986	3,350	6,500	48	18	6,680	1,000	1.94
1986/1987	3,200	6,300	0	1	6,199	1,100	1.97
1987/1988	3,200	6,000	71	103	6,368	700	1.88
1988/1989	3,300	7,000	80	400	6,380	1,000	2.12
1989/1990	3,350	4,900	473	9	6,164	200	1.46
1990/1991	3,400	6,600	91	44	6,036	811	1.94
1991/1992	3,400	6,800	12	1,390	5,900	333	2
1992/1993	3,440	6,500	96	580	5,841	508	1.89
1993/1994	3,550	7,300	158	534	6,074	1,358	2.06
1994/1995	3,500	6,500	54	1,022	6,300	590	1.86
1995/1996	3,550	6,900	62	100	6,505	947	1.94
1996/1997	3,650	7,200	20	375	6,475	1,317	1.97
1997/1998	3,700	7,300	148	955	6,684	1,126	1.97
1998/1999	3,600	7,500	150	1,241	6,800	735	2.08
1999/2000	3,550	6,600	63	134	6,700	564	1.86
2000/2001	3,600	7,400	47	139	6,900	972	2.06
2001/2002	3,500	6,900	29	548	6,600	753	1.97
2002/2003	3,550	7,200	29	509	6,800	673	2.03
2003/2004	3,450	6,900	223	17	7,100	679	2
2004/2005	3,500	7,400	59	0	7,300	838	2.11
2005/2006	3,600	7,600	53	541	7,300	650	2.11
2006/2007	3,600	7,500	53	375	7,300	528	2.08
2007/2008	3,600	6,000	187	0	6,100	615	1.67
2008/2009	3,400	5,700	178	0	5,700	793	1.68
2009/2010	3,400	6,500	178	781	5,900	790	1.91
2010/2011	3,350	5,900	57	23	6,000	724	1.76
2011/2012	3,200	7,000	39	103	6,750	910	2.19
2012/2013	3,300	5,500	259	0	6,200	469	1.67
2013/2014	3,330	7,300	150	25	6,950	944	2.19
2014/2015	3,400	4,000	500	0	5,150	294	1.18

발 행 일 2014. 6. 24.
발 행 인 최세균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인 쇠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